



12

198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1. 12호

(루계 410)



◆◆◆◆◆◆◆◆◆◆ 차 례 ◆◆◆◆◆◆◆◆◆◆

김정일 동지께	4
김정일 동지를 우러러	4
새별, 김정일 동지	5
주체의 새별 온 누리를 비쳐주네	5
두만강의 흐름을 따라	6
마음속엔 항시 어머니 계시여	8
어머님의 그 사랑 그 정성에	9
한길에서	10
눈내리는 대안의 구내길에서	18
대안이여!	19
그 마음 다 헤아릴순 없어도	19
그 언제나 별빛으로	20
운반공 나는 좋아라	21
주체의 태양아래 꽃피는 영광의 땅	22
구내길을 걸으며	25
해발을 안고 간다	26
딸을 떠나보내며	27
《해병모 선장》	28
덕천안개	37
인호대에 오르며(외 2 편)	39
절벽가의 소나무	39
묘향산 등산길	40

묘향산의 동고비	41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42
축구지도원	45
황금벌천리	50
종다리	51
그리운 고향 산천아	58
수표	59
병사는 다시 알았네	65
중편소설 《청춘은 빛나라》와 작품의 창작적개성문제	66
로광부	70
총석정의 해돋이	71
가난한 집 처녀	72
로씨야 성격	73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	77
충성심을 심어주는 시	78
생활의 교훈과 신념을 준다	79

김정일동지께

호썌찌 에도

우려롭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라의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시여
김일성 동지의 위업 계승하시여
당신께서는 주체의 기치 높이 드시고
온갖 간난신고 헤쳐나가십니다.
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을 위해
당신께서 탄생하신 날을 맞는
백두의 상상봉은 노을에 불타고
산속의 온갖 새들 노래합니다.

영광의 이날
두메산골마을에서도
별방과 도시들에서도
용감한 조선인민은 다짐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운명을 의탁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따르리라고
살아도 죽어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북과 남이 평화와 행복속에서 포옹할 그날을
위하여
주체위업의 중국적승리를 위하여
불굴의 투지로 전진하리라고

자유의 영원한 보호자이신 **김정일** 동지이시여
당신의 말씀은 주체의 진로에 밝게 빛나는
붉은 별
제3세계인민들의 앞길 밝혀주는 지도적지침
김일성 동지께서 키를 잡으시고
김정일 동지께서 풍파 사나운 바다를
뚫고나가실제
우리의 배는 기어이 행복과 광명의 기슭에
가닿으리니
아 **김정일** 동지이시여
영광의 탄생일을 맞으며
당신의 겸손성, 소박성, 헌신성을 노래합니다

당신께서 인민들에게 영예와 존엄을
안겨주셨기에
우리의 후대들도
행복의 웃음, 감사의 눈물에 젖어
위대한 당신의 영상 우러르리니
백두의 상상봉에 올라
우리의 아들딸들도 궁지높이 웨칠것입니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언제나 시대의 진두에서 밝은 앞길 밝히시며
휘황한 미래에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리라고
(모리셔스작가협회 부위원장)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지. 리. 미삼비

세상사람들 칭송하는 그 이름
세상사람들 환희에 넘쳐 우러르는 그 이름
제국주의자들에게는 공포를 주고
그 앞잡이들에게는 철추를 내리며
전세계 혁명가들의 사랑속에 불리우는 그 이름
김정일 동지!

모든 사람들 우러러모시는 그이는
조선의 위대한 혁명가
조선인민의 친근하신 령도자
전세계 혁명가들의 자애로운 지도자이십니다

가장 친근하고 아름답게 올려오는 그 이름
김일성 동지의 존함과 더불어

만민이 높이 부르는 그 이름
위대한 **김정일** 동지!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빛내어나가시는
김일성 동지의 유일한 후계자
주체위업 계승해나가시는
공산주의미래의 태양이십니다.

그이를 우러러
세계 혁명적인민들
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종합대학 교원)

새별, 김정일동지

알루어라 코리누아

대지는 찬란한 해빛아래 빛나고
동해에서 불어오는 봄바람
영광의 성산
백두의 상상봉을 스쳐지나네

하늘은 맑고 푸른데
천지의 물결 기슭을 치며
물갈기 일으키네

태고연한 밀림속
화약내 자욱하던 엄혹한 투쟁의 나날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시었네

불멸의 위훈 간직한 숲속에서
총탄이 비발치는 그 숲속에서
그이께서는 성장하시었네

그이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능숙하게 이끄시는 세련된 령도자

높이 추대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화려한 꽃밭속이 아니라
언제나 인민들이 있는곳에 계시며
그들에게 힘과 열정을 주시었네

그이는 소박하고 인자하신분
그이는 근면하고 친근하신분
그이는 대범하고 명철하신분
이렇듯 영명하신 그이를
향도자로 모신 조선의 영광 끝없고
인민의 행복 강산에 넘쳐나네

찬란한 업적으로 시대를 빛내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는 영광의 노래, 청송의 노래 드리거니
주체의 위업을 앞당겨가는 길에서
인류의 진보를 위한 투쟁의 길에서
최대의 성과 이룩하시기를 삼가 축원하노라
(우리 나라에서 공부하고있는 짐바브웨류학생)

주체의 새별 온 누리를 비쳐주네

아드난 아브둘 왈리

해방의 봄노을 피어나던 력사의 2월
백두의 맑은 정기 한몸에 안으시고
주체의 새별
미래의 태양으로 솟았나니
그이는 영명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20세기 령마루우에서
그이는 온 누리를 비쳐주시는 희망의 등대
주체의 조국을 우러르는 우리의 마음속에
찬란한 빛발을 뿌려주시거니

그이는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동지

온 세상에 **김일성**주의를 선포하시여
우리에게 시대의 라침판
시대의 전략을 주신분
그이는 인류사상의 광휘로운 해불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주체의 새별로 솟아 온 누리를 비쳐주네
(예멘 호메이다자둥차프락프르수리공장 전공)

두만강의 흐름을 따라

리춘복

렬차는 이 나라 북변의 장강 두만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력사의 땅 회령에 들어섰다.

회령!

그 이름만 불러도 정답고 마음 끝없이 숭엄해지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고향!

우리는 렬차에서 내리기 바쁘게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을 찾았다. 우리는 단정한 군복차림에 진달래를 정겹게 안으시고 서계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영상을 경건한 자세로 우러러보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를 반겨 맞으시듯 밝은 미소를 띄우시고 서계셨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그 영원한 미소에는 빛나는 한생을 위대한 수령님께 자신의 모든것을 고스란히 바치시여 충성 다하신 고결한 혁명가의 행복과 조선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신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의 크나큰 기쁨, 조국과 인민, 혁명동지들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으로 어려저있다. 군복깃을 여민 혁명에 소중히 간직하신 권총은 간고한 혁명의 불길속에서 날아드는 적탄을 몸으로 막아나서시여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신 존경하는 어머니의 불멸의 위훈을 가슴뜨겁게 이야기해주고있다.

정다운 손길로 진달래를 안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조선혁명의 찬란한 미래를 안아 키우시여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신 위대한 조선의 어머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이름난 명사수였고 능숙한 지하공작원이였으며 모진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강毅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 동생을 잃고 친척들과도 생리별하고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남달리 조국을 사랑했고 동지들을 사랑했으며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참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빛나는 한생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귀감이시다.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높은 존경과 그리움을 안고 오산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고향집을 찾았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탄생하시여 모진 풍파를 다 겪으시며 어린시절을 보내신 낯은 초가집은 오늘도 혁명일가의 비참했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방안에 놓여있는 소박한 살림도구들, 밑굽이 다 닳아 떨어진 함지박과 귀떨어진 물동이들은 어머니의 일가가 얼마나 극빈하게 살았는가를 잘 말해주고있었다. 흙담벽에 걸려있는 등잔불밑에서 눈이 어두운 할머니의 일손을 도와 바늘귀도 꿰여 드리시고 삼겹질도 벗겨 드리시는 그녀의 다정다감한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왔다.

고향집 프락을 나선 우리는 어머니의 어린시절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오산덕마루에 올라섰다. 아버님이 안계시는 집에서 일가의 생계를 고스란히 맡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나 가정의 생계를 추세워보려고 이른 아침부터 소작밭에서 손끝이 모지라지도록 시달리시며 아침마다 밭으로 나가시는 어머니를 보실 때마다 종달바구니를 작은 손에 받쳐드시고 나물 캐러 오산덕에 오르시곤하시였다.

봄이면 백살구꽃 활짝 피는 이 언덕기슭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인간생활의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였으리라 생각하니 우리의 가슴은 저절로 후터워졌다.

달래, 민들레, 딱지딴을 찾아 살구나무사이에 무수히 찍어놓은 어머니의 그 작은 짙은 자국이 아직도 뚜렷이 남아있는듯싶어 우리는 눈을 밝히며 수림속을 걸었다.

악착한 지주놈이 빛독축을 하다못해 땅마저 빼앗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일가는 두만강을 건너 이역땅으로 정착없는 류량의 길을 떠나자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는 어머니의 일가가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이역땅으로 들어가실 때 두만강을 건드신 망양나루터로 발길을 옮겼다.

우리의 눈앞에는 푸른 물결이 굽실대는 두만강이 나타났다. 백두산 천지에 뿌리를 박고 연연 조국의 북변을 감돌아흐르는 력사의 강-두만강!

그 옛날 침략해 온 녀친쪽을 무찔러 애국명장들 서슬푸른 장검을 갈고 천군준마가 타는 목을 추겼던 두만강! 두만강의 푸른 물결우에 피나리 보집 달랑하니 지고 배고프다 우는 애의 손목을 부여잡은 류량민들의 처량한 모습이 그 얼마나 비겼던가.

논물의 강, 리별의 강, 피의 강이었던 두만강! 오늘의 두만강은 가슴 터치고 잊을수 없는 그날의 사연들을 말해주는듯 물결쳐 설레었다.

어리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망양나루터에 이르시자 어머니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시었다.

악착한 일제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에게 모든것을 빼앗기고 제나라 제땅에서 쫓겨나는 류량인들의 정상이 가공하여 손때 묻은 고향집의 사립문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시었다.

비통한 마음을 누르시며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던 어머님께서는 따님의 어리신 마음에 조국을 익혀주시고 고향산천의 모습을 영원토록 새겨주시려는듯 말없이 녀사의 손을 이끌어 언덕우에 세워주시었다. 어리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꽃향기 풍겨오는 오산덕과 실버들 늘어선 회령천기슭에 자리잡은 회령시가를 하염없이 바라보시었다. 꿈결에도 잊을수 없는 고향의 전경은 어머님의 가슴속에 뜨겁게 흘러들어 애국의 뱃으로 깊이깊이 심어졌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머니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원썩들을 몰아낸 해방된 그날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굳게 맹세다치시며 나루배에 오르시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서계시였던 그 언덕에서 우리는 회령 시내를 굽어보았다. 컴컴한 목조건물들이 다닥다닥 들어앉은데다 게딱지같은 초가집들이 빙 둘러선 그 옛날의 회령시가지의 흔적은 간곳없이 그 자리에 밝은 다층문화주택들이 준비하게 늘어선 현대적인 도시가 두만강 푸른물에 노을처럼 비꼈다. 흰연기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곡산공장이며 현대적인 화학생산기지 크라프트지공장, 대학과 영화관을 비롯한 교육문화기관들... 그 어디를 보나 국경도시의 새면모가 뚜렷하다. 강반에 늘어선 버드나무 뒤로 해마다 풍작을 이룩하는 기름진 논밭 또한 보기 좋다.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향도의 해발아래 날에 날마다 번영하고 살기좋은 회령땅,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60 여년전 항일의 녀성영웅 어머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해방된 조국의 참된 모습이다. 류량민들의 처량한 모습만이 어룡지고 피눈물이 고여흐르던 두만강에 오늘은 번영하는 사회주의지상락원이 비끼고 행복과 웃음이 실려 넘실거린다.

정녕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렬차에 오르는 우리는 회령을 떠났다. 밤렬차는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두만강의 흐름을 따라 새별군과 은덕군을 지나 웅기땅으로 달리고있었다. 차창밖으로는 여전히 두만강이 흐르고있다. 밤의 신비한 장

막속에 포근히 안겨든 강물은 잊을수 없는 사연을 그 누구와 주절대는듯 밤새 사뭇치며 흐르고있다. 칙칙한 어둠속에 하얀 띠처럼 선명히 안겨오는 두만강을 이윽히 바라보느라니 20 여년전 어느 봄날 서수라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두만강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하신 뜨거운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검푸른 두만강을 이윽히 바라보시며 이 강은 잊을수 없는 강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동무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이 강을 넘나들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되였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현지도의 그 바쁘신 길이지만 두만강을 넘나들며 강도 일제와의 피어린 싸움에서 아깝게도 희생된 동지들이 생각나시여 발길을 돌리시기 저어하셨고 떠나는 차안에서 혁명가요를 조용히 부르신 어버이수령님! 아, 그런 위대한 어버이의 품속에서 살며 싸우기에 투사들은 죽음도 기꺼이 맞받아 나아갔고 받아안은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이지 않았던가. 그런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항일의 녀성영웅으로, 친위대원으로 성장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이시였기에 한생을 오직 장군님께 충성 다하실수 있었다.

렬차에서 내린 우리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어느날 새벽에 아드님과 함께 오시였던 웅기땅에 들어섰다.

해뜨기전 이른아침 검푸른 동해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듯 고요히 설레이고있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는 항일의 녀성영웅 어머님께서 웅기땅을 밟으시던 잊을수 없는 그날을 감회깊게 돌이켜보았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의 손목을 이끄시고 조국의 한없이 정답고 귀중한 산밭을 바라보시며 솟구치는 감격에 목이 메이시었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항일의 성전에서 친위전사의 위훈을 남김없이 떨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사랑하는 아드님을 안으시고 웅기에 오셨다는 소식에 접한 수많은 환영군중들은 끝없는 기쁨에 뿔뿔히 설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자제분을 불안고 뿔뿔히 찌르는 사랑의 정에 겨워 불을 비비고 태양이 웃는 맑은 하늘 높이 받들어 올렸다.

여기에서 하루밤을 보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며칠간 이곳에 머무르시면서 피로도 푸시고 고향 회령에도 둘러보시였으면 좋으련만 존경하는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 드려야 한다니며 그날밤으로 화물자동차를 타시고 청진으로 떠나시였다수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자제분을 불안고 끓어넘치는 사랑의 정에 겨워 불을 비비고 태양이 웃는 맑은 하늘 높이 받들어 올렸다. 이리하여 어머님께서는 그토록 가보고싶으신 오산덕의 고향집을 생전에 찾아보지 못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어머님의 성스러운 발자취가 어려있는 《조선인민혁명군웅기경무부》, 어머님께서 친히 찾아주셨던 혁명전우의 살림집 그리고 콩마당길도 함께 하시며 농민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새 조국 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신 농민의 집을 돌아본 우리는 서수라로 향하였다.

두만강이 동해로 흘러드는 조국의 최북단 서수라! 연연 천리길을 사품치며 흐르던 두만강은 품속에 고이 간직한 수많은 사연을 다 읊조린듯 여기 와서 그 도도한 흐름을 멈추고 바다로 흘러든다. 그 옛날 류랑민들의 람루한 그림자만이 얼룩지고 리별의 피눈물이 흐르던 두만강, 항일성전의 나날 투사들의 고귀한 땀이 깃든 잊을수 없는 력사의 강은 오늘 룡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새모습을 고이 담아 실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우암산마루에 오르시여 군단위 종합농장을 창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 그때로부터, 력사의 그 발자취를 따라 당의 해발찬연히 비친 그날로부터 여기 웅기땅은 행복의 락원으로 전변되였다. 지난해 5월 웅기군을 찾으신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웅기군종합농장이 백과사전입니다라고 만족해하시였다.

그렇다, 두만강에 비긴 조국은 온 세상에 소리가 자랑할만한 대백과사전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그토록 열망하신 념원이 해와 별 빛나는 사회주의 이 강산에 활짝 꽃피였다.

력사의 증견자 두만강이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한 노래로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라!

아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뜨거운 사랑을 싣고 충성의 한길로 도도히 굽이치라!

마음속엔 항시 어머님 계시여

김춘림

언제 한번 딸이라 저를 불러
머리 빗겨준 일도 없으시건만
기쁜 날 즐거운 날 행복에 겨울수록
마음속엔 항시 그리워
김정숙어머님

아침에도 저녁에도
오늘의 행복에 목메이며
당중앙 우러를 때도
나날이 커가는 이 기쁨 이 행복속에
어머님 계셨으면 모시였으면
마음속엔 항시 이런 생각 고이여

알뜰한 부뚜막에 마주설 때도
만강의 한 농가집 부엌에 앉으시여
감자껍질 벗겨주시던 어머님 생각
삼삼이도 허물없이 도와주시며
조국광복 10대강령 들려주시던
그 밤의 모습...

뜨락의 화단에 꽃들이 곱게 피도
근거지의 귀틀집 그 뜨락마다
백두의 진달래 옮겨심으시며
오산덕의 봄동산을 그리시던 어머님 미소
그래서 더더욱 정다운 봄철의 진달래...

가을이면 가을마다 누런 벼이삭
땅이 겨웁도록 절을 할 때면
그리도 소탈히 그리도 허물없이
애국미 벼가마니 함께 드시던
어머님 생각

아, 이 땅에 피어나는 한뼘기 꽃이라
산천초목 아름다움 계절의 빛갈도
장군님을 받드시여 인민을 위하시던
어머님의 그 념원 그 뜻 아니라

오늘에 꽃피난 이 기쁨 이 행복
우리들이 가꾸어야 할 미래의 행복까지
그 한품에 소중히 안으시고
한평생 고히 바쳐 가꾸셨으니

어찌 그 행복 안기만하오리
받아안은 행복 크면 클수록
가슴속엔 더더욱 짊어만지는
어머님을 우러러 따르는 마음
아, 김정숙어머님
온 나라 인민의 우러르는 마음속에 길이 빛날
조선의 어머님

어머님의 그 사랑 그 정성에

김 석

하늘의 삼태성도 기운
이슬한 이 밤
뜰안의 귀뚜라미 울음소리
밤의 고요를 조용히 흔들어
깊어가는 이밤

김정숙어머님
전등불 낮추 드리워놓고
조선옷을 지으시네
한뼘한뼘...

이밤이 새면 떠나리
장군님의 높이신 뜻 받들고
새 조선 건국의 한 초소로
항일의 너투사는 떠나리

해방은 되었어도
백두의 풀물 든 군복차림이니
너투사의 옷을 갈아입히지 못하신
장군님의 심려
남먼저 헤아리신 어머니

준엄한 항일전의 길에서도
유격구에 수리명절이 오면
조선옷 갈아입고 그네를 뛰던
너투사의 그 모습 다시 그려보시는가
이국에서 못견디게 안고싶었던
조국의 그윽한 향기여

꿈결에도 못잊어 그리던
그날의 그 념원
꽃피여 만발한 이 강산
어머님께 올린
인민의 지성어린 비단천이건만

자신께선 아니 입으시고
사랑을 수놓으시며
한뼘두뼘...

어머님의 정성 들실로 누벼지고
어머님의 사랑 날실로 새겨지니
못내 기쁨에 넘치신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
비단천우에 어려오는듯-

백두의 설한풍 밀림을 흔드는
피어린 항일의 전장
한뼘 그대로 해발이 되시고
한뼘 그대로 성벽이 되시여
걸음걸음 장군님을 보위한
어머님 충성의 마음
오리오리 뜨거이 수놓으시며
한뼘두뼘...

한벌의 새옷-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실
사랑의 날개옷 되려니
그날을 눈앞에 그리시며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어머님은
밤깊도록 옷을 지으시네

아, 온나라 인민이 올린
그 절절한 마음도
장군님 받드시는 길에 고이신
어머님의 그 사랑
저 하늘의 붉은 노을이 되어
새조선의 새 아침이
푸름푸름 동터오고있었네

한길에서

김동호

《…그러니까 결국 그 집을 내한테 지우겠단말씀이지요. 허허, 그런 집이라면야 설사 어깨가 무거워 일어서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백번인들 못지않습니까.》

이마가 번듯하고 눈썹리가 축 처진 ㄷ기계공장 기사장 권일수는 너부죽한 얼굴에 웃음을 한가득 실었다.

기사인 나는 그가 이렇게 성글게 나오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내가 세번째로 만난 사람이 권일수다.

ㄷ기계공장에서 올해 년간계획에 물렸던 대상설비를 당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전으로 조립 완성해서 ○○기업소에 보내주었다는 놀라운 소식은 나를 몹시 흥분케 하였다.

그런 기적을 창조한 여기에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결이 있는 법이다.

나는 ㄷ기계공장에 급히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지배인은 회의에 올라가고 공장에 없다는것이 아닌가.

차라리 잘되었다. 그것은 공장에 내려가지 않고도 지배인을 가까이에서 만날수 있었기때문이었다.

취재수첩을 삼면차크가방에 찔러넣은 나는 ㄷ기계공장지배인을 만나려고 회의장소에 찾아갔다.

나는 겨우 점심시간에야 그를 만날수 있었다.

키가 흰칠하고 이마가 반쯤 벗어진 지배인 명철한은 첫인상에 썩 고집스러워 보였다.

명철한은 처음부터 동문서답이다. 그는 묻지도 않는 당비서에 대한 이야기로 짧은 시간을 다 메워버리었다.

오후에도 회의가 계속되어 더는 그를 붙잡고있을수 없었다.

그는 대상설비조립에 대한 기사를 쓰려면 자기보다도 공장에 내려가서 당비서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길로 공장에 내려왔었다.

공장에서는 쉬는날이었지만 마침 비서동무가 방에 있었다.

ㄷ기계공장 당비서 한성길은 나의 손을 덥석 잡으며 지배인한테서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꺼냈었다.

《대상설비조립이야 생산을 직접 책임진 지배인 동무한테서 들어야지 내한테서야 무엇을 들을수 있겠습니까.나는 변변히 밀어주지 못했습니다. 지배인동무가 수고했습니다. 차라리 우린 기사장동

무를 만나는게 더 좋을겁니다.》

면도자리가 푸릿한 한성길당비서는 급실한 파도형 머리칼을 왼손으로 쓸어넘기며 바른손에 수화기를 들고 기사장을 찾았다.

지배인을 만나고 다시 당비서를 만났을 때까지도 이번 나의 취재가 예상외로 힘들어진다는것을 느꼈다.

당비서는 나를 데리고 기사장 방에까지 가서 소개하였다. 그리고 그는 돌아갔다.

나는 기사장을 바라보며 먼저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기사장동무가 이야기해줘야겠습니다. 사실 대상설비조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

《그렇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가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우리 당비서하구 지배인을 소개해야 할것 같구만요.》

기사장의 야릇한 대답의 서두였다. 나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겠는지 하는 호기심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감회로운 회의를 더듬는지 소리없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우리 당 비서동무와 지배인동무는 친형제나 다름없습니다. 회의 할 때나 각기 자기 직무를 가려 볼수 있을 정도지요. 한참 끼구 돌아가며 장난을 할 때 보면 꼭 아이들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다.

원고개를 넘어섰을 지배인이나 당비서가 아이들처럼 장난을 한다는것은 처음 듣는다. 귀맛이 열리는 소리다. 나는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듣고 싶어 취재수첩을 한장 거슬러 넘기었다. 권일수는 《수선화》담배를 꺼내서 내앞에 내밀었다. 담배를 한대 뿜아 든 나는 라이타를 켰다. 라이타에 불을 붙인 일수는 불이 께이도록 길게 연기를 들이그었다. 파르스름한 담배연기가 응접탁이 놓여있는 천정으로 곧바르게 타래쳐올랐다.

일수는 눈귀를 쪼프리며 그날에로 조급해 달리였다. 《자그마한 기계공장이 자리잡은 여기에다 정전 직후에 제대군인 배낭을 풀어놓은게 당비서하구 지배인이였습니다. 말하자면 공장과 함께 늙어온 사람들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두 그 사람들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 공장으로 온지도 벌써 25년세월이 흘렀으니깐요. 내가 처음 배치받아올 때는 생각도 많았고 또 꿈도 켰습니다.

지휘관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부기사장 자리는 몰라도 기술부어야 배치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나는 먼저 지배인실에 들렸습니다. 죄가 잡겼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 위원회를 찾아갔지요.

그 방에도 걸려있었습니다. 아마도 회의에 간 것이라고 넘겨졌었지요. 그런데 알고보니 종업원들과 함께 바다가에 휴식하러 나갔다는게 아닙니까. 그날 공장에서는 한달동안에 분기계획을 넘쳐하고 쉬는날이었습시다.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압니까. 일꾼들이란 노동자들은 휴식시키더라도 자기들이야 공장에 남아서 그사이 밀린 뒤일을 처리하는것이 상례가 아닙니까. 그런데 공장을 책임진 간부들까지 놀러가다니. 얹어진김에 선여간다구 나는 백사장으로 걸음을 옮겼습시다. 해당화가 만발한 때여서 모래불을 걷는 정취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쪽에서는 종업원들의 유희경기가 한창이더군요. 와와 고아대는 오락장이 나를 끌었습니다. 씨름이 벌여졌습시다. 황소같은 두사람이 떡 붙었는데 정말 볼만했습니다. 듣자니까 그게 당비서하구 지배인이었습니다.

그날 비서동문 공무직장에 속했고 지배인동문 조립직장에 속했더군요. 그런데 마지막 결승전이었습니다.

비서동무는 만만치 않았습시다. 하지만 살바를 잡는 품이 지배인도 영 그믐밤은 아니었습니다.

씨름이란게 살바를 어떻게 잡는가에 승패가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당비서가 몸을 척 말기면서 지배인더러 먼저 살바를 잡으라 하더군요. 지배인은 여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에 멍이 지도록 바싹 조여냈지만 당비서는 여전히 웃고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에서 저저마다 소린치더군요. 들었는지 비서동문 고개만 끄덕일뿐 노상 웃음짓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첫판엔 당비서가 이겼습시다. 일이 이렇게 되자 가뜰이나 웃지 않는 지배인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요. 두번째판이 시작되자 입술을 지그시 사려문게 무슨 일이 일어날것 같습시다. 마음먹기 탓인지 지배인이 안걸이를 걸작 당비서가 그만 살바를 놔버렸습니다. 찰나에 지배인이 다리를 걸어 들어 었치더군요. 그 바람에 당비서가 나동그러졌습시다. 그래 노니 3 회전이야 오죽 팽팽했겠습니까.

당비서가 속한 공무직장 동무들은 섭죽놀이를 하려던 가마뚜껑을 복삼아 찢구 지배인동무를 끌어온 조립직장동무들은 눅식기를 팽파리처럼 두들겨댔습시다.

숨을 길게 들아긋던 지배인이 <이야-> 하고 소리지르며 또다시 안걸이를 걸자 당비서가 히죽 웃으며 배지기를 뺐는데 황우같은 지배인이지만 견더배깁니까. 공무직장동무들이 숲처럼 일어서

며 환성을 지르자 기가 눌린 조립직장동무들이 털고일어서며 입들만 찻찻 다시더군요. 그런데 지배인이 나가넘어지려는 찰나에 당비서가 그를 끌어안고 돌면서 손을 먼저 땅에 짚었습니다.》일수는 담배가 다 타들어 가는것도 모르고 흥에 겨워 이야기했다. 나도 그의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담배대가 재털이에서 외롭게 타고 있다는것도 감감 잊어버리고있었다.

오늘은 쉬는날이어서인지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전화도 뜸했다.

《두사람사이가 각별했지만 늘 봄별같지는 않았습시다. 겨울도 있었지요. 말하자면 찬바람도 불구 얼음장같은 랭기도 서리구요. 제가 공장에 온지 다섯달이 잡혔을 때였습시다. 비서동무가 불러서 가니 지배인동무도 와있었습니다. 처음엔 비서동무가 별로 성내는 기색이 없이 이것저것 캐묻더군요. 주로는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드는가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현장에서 일하고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나를 기능공들이 적은 조건에서 기대를 하나 직접 말아보면서 현장기사 사업을 하라고 배치하더란말입니다. 불만이 목에까지 차올랐지만 꼭 참고 맡겨진 일을 할수밖에 없었던것입니다. 했으나 역시 불만을 그 자리에서 터놓을수도 없는것이어서 그저 태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시다.》

《없다-그런데 동문 무엇때문에 기술부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소?》

《예?!》

이렇게 귀뜸해서야 나는 정신이 펴쩍 들어 놀랐습시다. 허허허... 인제 와서야 기자동무한테 내가 뭘 숨기겠습니까.

잔주름이 일기 시작한 일수의 눈에서는 별빛같은것이 부서지였다.

《나에게는 의학대학을 졸업한 애인이 있었습시다. 나는 공장에 와서 보름만에 그 동무한테 기술부에 배치받았다고 편지를 했었지요. 글썽 대학을 졸업했다는 기사가 기대를 잡았다면 그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에게 다른 동무들이 물어봐도 그렇고 또 나자신의 자존심도 그렇고... 그후 몇달이 지나서 그 동무가 나한테 왔다간 일이 있습니다. 그 동무가 돌아가자 당비서앞으로 편지를 보낸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일수동무가 기술부에있는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일하고있으니 무슨 파오라도 범한게 아닌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도 알아야 도와나설수 있겠기에 당조직의 방조를 바란다고 뒤를 누른 장문의 편지였습니다.

《나는 동무가 기술부에 있다고 해서 동무 애인이 동무를 더 높이 쳐다볼 그런 처녀는 아니라고

민소. 동무의 처세가 자기 애인을 모욕하는 길로 떨어진다는걸 몰랐겠소? 애인을 모욕한것쯤이야 리해시키면 되겠지. 그러나 동무가 우리 로동계급을 모욕한데 대해서는 참을수 없소. 그래 기사가 현장에 나가 기대를 좀 잡으면서 일하면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지오?)

《...》

나는 당비서의 그 추상같은 질책에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사랑에서 기술부면 어떻게 현장이면 어떻소? 동문 자기 애인이 대학을 졸업한 의사이기때문에 사랑했겠소?》

《비서동지 그런건 아니지만 사실...》

《사실은 무슨 사실, 옳지 못하오. 로동계급의 사상을 배우라고 작업복을 입혔더니 되려 우리. 로동계급을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어디서 그런 물이 들었나말이요.》

《비서동지, 그건...》

《너무하단말이지. 동무가 우리 로동계급을 모욕한것만큼 나도 가슴이 아프오. 동무가 우리 로동계급을 모르고서는 일을 제대로 할수 없소. 그런 기사는 필요없단말이요.》

그전날의 씨름판의 당비서는 어디로 갔는지 그는 바위우에 떡 버티고 선 호랑이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비서동무의 충고가 억울하게만 생각되었습니다. 당비서라는 사람이 기사의 심정을 이다지도 몰라줄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배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측은한 눈길로 나를 바라다볼뿐 아무 말없이 덤덤히 앉아있었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때 지배인은 나를 기술부에 돌리자고 강경히 제기했더군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거짓말을 안한것으로 될거고 애인도 달리 생각지 않을게 아닌가 하는것이였지요. 하지만 당비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던것입니다.

《지배인동무! 권일수동문 기사가 아닙니까. 우리 로동계급을 모르기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겁니다. 지배인동무 말대로 기술부에 돌린다고 그가 기술자 구실을 똑바로 할것 같습니까.》

일은 무사치 못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나는 2가공직장에 나가서 본래의 기대보다 더 큰 집체같은 기계를 직접 말아보면서 계속 현장 일을 했습니다.

파연 내가 잘못한게 뭇인가 그췌한 일을 가지고 그래도 대학을 나온 기사를 이렇게까지 취급한단말인가. 당비서를 잘못 만났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붙이지 못한 판국이였으니 기대를 똑바로 다루었을게 뽀니까. 일주일만에 종시 큰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일수는 그것을 차마 말하기가 딱한지 담배를 켜고 들어왔더니 《후유-》하고 길게 한숨을 지으며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담배연기가 자욱하게 방안에 서리였다. 《나는 응당 법적제재를 받아야 했습니다.(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단말인가. 내가 지금 어느 벼랑가에 서있단말인가.)

나는 두손으로 머리를 움켜잡고 몸서리치며 모대졌습니다. 결국 나는 또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편을 들어주었던 지배인의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뽀정하기란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외롭고 처절한 마음에 휩싸인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후의 이야기는 먼 후날에 지배인동무가 들려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나온 다음 당비서는 자리에서 우췌 일어서더니 한동안 말없어 사람들을 빙 둘러보더라는겁니다.

<내가, 일을 잘못했습니다. 그 동문 이틀째 배탈을 만나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래도 아프단 말 한마디 입밖에 내지 않았습다.》

만일 내가 감기에 걸렸대도 의사를 찾아갔을게고 동무들이 달려왔을게 아니요? 그런데 우리들중 그 동무를 돌봐준 사람이 누구니까. 그 동무에게 더운물 한그릇이라도 떠다준게 누구니까? 나는 그를 엄하게 다룰 생각만 하면서 호통만 쳤지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책임은 권일수동무한테 있는것이 아니라 이 한성길에게 있습니다. 당앞에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회의를 끝난 다음 지배인이 당비서를 찾아갔는데 그의 눈두덩이 부석부석해있더라합니다. 언제한번 그런 얼굴을 보인적 없는 그였습니다. 책상우에 붉은 뚜껑을 한 당생활수첩이 펼쳐져있구...

비서동문 지배인을 보더니 맥주서너병하구 당파류를 좀 사달라고 부탁하더라합니다. 그날밤 그결든 당비서가 지배인을 앞세우고 내가 들어있는 합숙호실에 찾아왔습니다.

물기가 언뜻 비낀 그의 부리부리한 눈엔 따듯한 빛이 돌았다. 그것은 마치 방안에 후더운 입김을 불어넣으려는것 같이 느껴지였다. 이름 모를 뜨거운것이 가슴에 무뚝히 젖어들어 나는 가볍게 눈을 습벅이었다.

그러자 일수는 나를 던지시 쳐다보며 빙그레 미소지었다.

《기자동무가 충분히 리해해주리라 믿고 제가 그때 벌여졌던 사실을 좀 에둘렀습니다. 그날 나는 밤교대작업을 했습니다. 글췌 제가 기대를 돌려놓구 제기앞에서 그만 잠들었었습니다. 때마침 비서동무가 나왔습니다. 비서동문 내가 잠든새

풀어진 나사못을 몇개 조여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정배관을 도장할 때 돈있만한 은박이 기대에 흘러내릴걸 닦아내질 않았겠습니까. 아무려 닦아도 그것이 벗겨지지 않자 어데가서 신나를 얻어다가 닦아냈더군요.

나는 그런줄도 모르고 잠에 노그라졌었습니다. 작업반장이 나를 봤지요. 그가 나를 깨우려 들자 비서동무가 굳이 막았답니다. 이윽해서 눈을 떠보니 비서동무가 손수건으로 손을 씻으며 허무죽이 미소짓더군요.

《아니 비서동지!》

《자,담배나 한대 피우지.》

비서동문 <금강> 담배 한갑을 내앞에서 터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비서동무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자기가 먼저 한대 꺼내고는 갑채로 내게 맡기더군요. 나는 다수곳이 머리를 숙인채 서있었습니다.

《불을 좀 켜라구.》

그제서야 나는 라이타를 켜줍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당비서동무의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받아안은 감격이 오죽 컸으면 그 본을 따자 하겠습니까. 그후부터 나는 옷사람을 찾아가갈 땐 혹시 담배를 안 넣고 가도 아래사람을 만나러 갈 땐 늘 담배부터 먼저 호주머니에 넣곤합니다.》

《거야말로 교훈적입니다.》

《말하자면 한 학년 올라서는 길이지요. ... 비서동문 날더러 담배를 한대 피우라면서 <오늘이야 일찍 들어가야지.>》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날 비서동문 다른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가버리었습니다. 나는 구석쪽에 돌아서서 자신도 알수 없는 눈물을 흘리쳤지요.

나는 그때까지 눈물이란 마음이 약할 때 흘러내리는것이라고만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눈물은 결코 그런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비서동무 몰래 작업반장이 직장장에게 알렸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지배인한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가만 있질 않았습니다. 그때 비서동무가 정상수치를 넘어서려는 계기를 제때에 바로 잡아왔으니 망정이지 그걸 그냥 두어두었다라면 영낙없이 사고를 저질렀을게고 나는 나라에 막대한 손실을 준 범죄자로 남았을것입니다.

비서동무때문에 사고는 면했지만 행정 도입에서 비판을 받은것은 백번 정당했구 지배인동무가 그 모임을 집행한것도 옳았지요.

비서동무는 그런줄도 모르고 직장장을 만나려고 나왔다가 모임이 끝날 림박에야 참가했습니다.

나는 그때 한순간이란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새삼스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발명가는 한순간에 세계를 경탄시킬 위대한 발견을 하지만 때로 인간은 한순간을 잘못 살므로써 씻을수 없는 죄과를 범하게 된다는결말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1분을 귀중히 하라!》 이렇게 자신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날밤 비서동무가 무엇때문에 직장엘 나왔는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야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그 이튿날이 내 생일이었습니다. 비서동문 내가 혹시 연장작업이라두 하지 않나 해서 찾아나왔던것입니다. 비판을 받고 침대에 몸을 맡긴채 어쩔바를 몰라하고있는데 당비서와 지배인이 맥주와 당과류를 들고 합숙에 찾아오질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자기 생일날도 모르고있었으니 ...

《비서동지! 지배인동지!》

나는 어린애처럼 부끄럼도 잊고 그들의 품에 와락 안기여 울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일찍 여윈 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란 어떤것인지 모르고 자랐지요. 그렇지만 나에게에도 어머니를 대신할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전에없이 일찍 출근했습니다. 내가 공장에 와서 처음으로 그렇게 맨 선참 출근했었지요.

나와 보니 기대열에 <기계설비경력서>가 걸려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공구함문짝뒤면에는 주유주기표가 붙어있었구. 그리고 기계설비의 구조작용과 운동계통에 대한 그림도 기대 가까이에 그려붙였더군요. 나는 처음에 그 모든것을 직장장이나 작업반장이 아니라면 교대기능공이 했으리라 고만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어딘가 서투른데가 있었습니다. 구조작용은 정확히 그렸으나 운동계통에 대한 도해는 잘 그리지못했더군요. 만일 직장 사람이나 기술자가 해놓은 일이라면 틀리게 그렸을리가 없었으리라는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보니 비서동무가 밤에 해놓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다. 노동계급다운것이 나에게 는 조금도 없다. 그래도 내가 기사라고...) 나는 종주먹으로 제 가슴을 마구 두들겼습니다. 그러니 당비서가 그린 그 그림이 설사 틀린것이라할 지라도 어떻게 떼어버릴수 있었겠습니까. 직장장이 떼어버리자고 한다 해도 막아나섰지요.

그로부터 닷새만에 그 그림대신 그 자리에 액틀에 넣은 다른 그림이 붙어있는게 아니겠습니까. 날더러 하래도 그렇게까지 숨쉴있게 그리진 못했

을 겁니다. 알고보니 지배인이 기술부 동무들과 함께 해놓은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날 퇴근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기대엿을 떠날수 없었습니다.

내가 얼없이 서있는데 갑자기 가볍게 등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서동무였지요.

<자, 그만 들어가자구. 퇴근이야 제시간에 해야지.> 비서동무가 잡아끌어 서야 나는 기대엿을 떠났습니다.

비서동무하고 공장구내를 함께 걸으려니 해돋이를 맞이할 때처럼 가슴이 설레여지더군요. <일수동문 외아들이라지?>

<그렇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이 다를바 없겠지만 외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은 더 각별한 법이야. 나도 외아들이네 우리 부모들의 나에 대한 관심이 그랬거든. 자식을 키우면서 그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야. 참 우리 공장엔 외아들이 많거든!>

그날밤 나는 자리에 일찍 들었지만 밤새 뜬눈으로 새웠더랬습니다. 만일 그날 비서동무가 나를 기대앞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모인앞에서 뺨을 쳤대도 그렇게 아프진 않았을겁니다. 내가 다루는 기대가 바로 외아들이었다말입니다. 그러니 날더러 외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되라는게 아니겠습니까?> 일수는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젖어올라서 인지 한동안 창문밖을 가버이 응시하고있었다. 나도 가슴이 뜨겁게 저려들어 창문밖에 눈을 주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창문을 가볍게 어루쓰다듬었다. 물거이런 방울나무잎이 한잎두잎 땅우에 내려앉았다.

멀려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갈매기가 깃을 치며 물우를 스칠듯이 땀돌았다.

끼룩끼룩.

정답게 울어 예는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귀전에 날아오는듯싶다.

《꼭 아홉달이 지난 다음에 지배인동무가 나를 찾더니 래일부터 기술부에서 일하라 하더군요. 나는 현장에 있겠다고 뽐냈습니다. 무슨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현장생활에 정이 들었던겁니다.

《동무는 지난날에 대한 반발을 하자는거요? 동문 그런 버릇을 어데서 배웠소?》

나는 비서동무앞에서 한마디도 자기를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신들매를 조이고 기술부에 나갔습니다. 그날 비서동문 그새 쓰지 못한 회답편지를 우리 친구한테 말하자면련애시절의 나의 애인인 그의사한테 그때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한달후엔

비서동무가 그쪽으로 출장 나갔다가 아예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더군요, 그때 내가 제일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였습니다. 내가 하던 연구과제가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지요. 사람의 인내력에도 한계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나는 몇번씩이나 포기하구 나가넘어졌었습니다. 부서에서두 모두가 받아들여주구 지배인과 당비서도 노상 내정에 와있었지만 실험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쓰러지자 모든 사람들이 날더러 쉬라며 동정하더군요. 지배인은 더 했습니다. 글썄 휴양권까지 가져다주며 머리를 푹 쉬우고 와서 더 달라붙어보자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비서동문 전혀 용서가 없었습니다.

《…나는 동무의 심장 역시 강철조박으로 부어 만든게 아니라는걸 모르지 않소, 그러니까 쓰러질수있지. 하지만 곳곳이 일어서야 할게 아니요. 용감한 사람이란 결코 쓰러지지 않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백번 쓰러졌더라도 그때마다 매번 일어서는데있는거요.》

나는 다시 일어섰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찾아나가진 못했습니다. 비서동문 그 사람을 데려오자 바람으로 공장병원에 넣었었습니다. 하루는 비서동무가 그 사람을 찾아갔더군요.

《일수동무가 무엇때문에 오지 못한다는걸 알았으면 동무가 찾아래도 가봤어야지. 좋은 날에야 동무가 곁에 없어도 기뻐해줄 사람들이 많을테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동무가 더 가까이여 있어야 할게 아니요.》

나는 끝내 실험에서 성공했구 내 창안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과를 내한테로 돌리구… 그해 겨울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우리 공장을 찾아주시었습니다. 과분하게도 저는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는 기쁨을 지니였구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까지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습니다.》《정말 그때가 새로운 전환기로 되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후에 제가 기사장의 무거운 임무를 맡아 안게 되었습니다. 일도 변변히 하지 못한 제가 그런 영예를 지니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비서동무가 왜서 저에게 그렇게 엄격하고 남다른 요구성을 제기하였겠습니까.

먼길을 가려면 신발부터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서동문 나를 우리 시대의 기술일군으로 로동계급의 참다운 지식인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로동계급의 신발부터 신겼던거지요. 그런데도 나는 그의 심중을 전혀 리해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지어 그를 원망까지 하구… 군대에도 나갔다고 대학도 졸업했지만 생활을 알고 인간의 깊이를 리해하는데서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에야 비로소 나는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의 첫걸음을 떼기시작했지요.》

《지식과 인간이 꼭 정비례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 두가지중에서 훨씬 얻기 쉬운것이 학력이나 지식일겁니다.》

《그렇지요. 지식은 하루이틀에 쌓아질런지 몰라도 인간은 결코 하루이틀에 높아지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자기를 수양해 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높이는 누가 진실로 인간답게 살려는가에 달렸다는것을 비서동문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주었지요.

그런데도 나는 아직 제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10 월 내일전으로 년간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전례없는 비약을 이룩했습니다. 대상설비조립에서도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있지요.

대상설비를 제정된 기일까지 다 조립하려면 조립속도를 종전보다 두배로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욕망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기술적해결과 인원이 안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기술적해결이란 바로 새로운 조립기구를 도입하는것이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갑자기 해결하겠습니까. 뿐만아니라 로력도 당장 어디서 보충받겠습니까.

지배인이 회의에 올라가기전에 비서동무와 함께 우리 셋은 이 문제를 풀어 보자고 며칠밤을 기술자들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상태로는 도저히 10 월 10 일전으로 대상설비조립을 끝낼수 없었지요.

지배인동무는 기일이 박두했는데 어떻게 새 기구를 만들어 하겠는가하고 하면서 전문설계기관이 나 이웃 공장의 지원을 좀 받아오 했습니다.

지배인의 말을 묵묵히 듣고있던 당비서동무는 《 지배인동무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만합니다. 우리 좀 더 생각해봅시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날저녁 당비서동무는 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지요.

무엇때문에 이렇게 집에까지 나타났을가 하는 의문이 나를 놀라게 했던것입니다.

《기사장동무, 지배인동무의 고민을 그가 돌아 오기전에 우리가 풀시다. 당장 새 조립기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이건 혁명임무입니다.》

《 ...!! ...》

나는 당비서동무의 그 마음을 리해할수 있었습니다. 나의 가슴은 뜨겁게 불타올랐지요.

나는 그밤으로 현장에 달려나갔습니다.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에게 기술적문제가 아니라 나의 진

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혜와 힘은 뜨거운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 창안의 실마리를 잡았지요.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저녁차로 제대군인들이 도착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사람이 당비서동무였지요. 지배인동무도 회의에 올라가기전에 제대군인들이 인츰 도착한다는것을 알고 떠났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배인은 이렇게 빨리 보내줄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실로 기뻐했습니다.

하나 내가 한편으로 새로운 대형기계를 다루려면 기술자나 기능공이 많이 와야지 기계라는건만저 보지도 못했을 제대군인들이 와서 뭘 하겠는가고 우려하자 당비서동무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들은 그 기계 못지 않는 혁명의 무기를 다루던《기술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말 그 말뜻을 그때를 추억하는 오늘에 와서야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당비서동무는 우리 공장의 큰 경사라면서 역두까지 나가서 그들을 맞아드렸지요. 그러니 나도가만히 있을수 없었을게 아닙니까? 후방부지배인은 또 얼마나 편줄 압니까?

《지배인동무가 동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밤낮 기다리다가 회의에 올라갔소. 올라가면서 동무들을 잘 맞아들이구 한배당씩 지워서 집에 휴가를 보내라고 내한테 부탁까지 하고 떠났소. 그런데 내가 그만 일을 쓰게 하지 못하다 보니 구력두 변변히 채우지 못했소.》

비서동무가 제대군인들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휴가를 보내다니 당장 로력이 걸렸는데 ...)

나는 당비서를 의아쩍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마 제대군인들은 내 눈치를 살렸던가 봅니다. 로력의 긴장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그 심정을 내 얼굴에서 읽었던지 사관장을 했다는 역대우 같은 제대군인이 척 나서며 지금 공장에서 뭘 하는가고 묻는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업소에 보낼 대상설비를 만들고있소. 그 이야기는 우리 공장 참모장인 기사장동무한테서 들어보시오. 정말 벅찬 일입니다.》

당비서동문 나를 제대군인들앞에 소개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문 뭐가 제일 걸렸는가하고 하는것이였습니다. 당비서동문 그 질문도 내한테 밀더군요. 그래서 공장실태를 길게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 동문 내이야기가 채 끝나기도전에 《우리 제대군인들이 돌격대를 무어 대상설비조립을 돕겠습니다. 무엇

이든지 맡겨주십시오.》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대군인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자 비서동무가 막아나서더군요.

《동무들은 빨리 집에 갔다와야 하오. 그러지 않아도 초소에서 수고했는데 일가친척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소. 휴가를 갔다와서 본때있게 일해보자구.》

비서동무가 이렇게 나오자 제대군인동무들도 더욱 힘을 얻구 불같이 일떠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동무들이 비서동무의 말에 고무되어 그렇게 나오는것이 얼마나 기뻐던지 모르니다.

그런데도 비서동문 그냥 막아나서더군요.

제대군인들이 하두 극성스럽게 나오자 비서동무는

《동무들이 정 소원이라면 기사장동무랑 같이 들어가서 지배인동무에게 전화를 걸어 토론해보겠소. 세대주는 내가 아니라 지배인이거든. 그러니 일체 결론은 내한테서가 아니라 지배인이나 기사장한테 받아야 하는거요. 확답이 떨어질 때까지 동무들은 우선 공장을 돌아보고 다음은 폭쉬라구.》

그때 나는 자기를 심각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사업과 인간! 나는 이것을 떼어놓고 생각했을 뿐만아니라 사업 일면만을 중시했었지요. 우리 일군들이 나처럼 사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비서동무는 그렇지 않았던것입니다.

비서동무는 그날저녁 지배인동무한테 장거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아파하던 문제인데 지배인이 반대할리 있습니까. 첫마디에 찬성이었지요.

한편 비서동문 전투를 총지휘할 구체적인 과업은 나한테 주고 자신은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속에 들어가서 새 조립지구제작에 달라붙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다면 그때만큼 나의 지혜와 재능을 짜내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뿐이었기때문에 우리는 며칠사이에 대상설비조립을 2배나 높일수있는 지구를 대중적지혜와 힘으로 성과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30명으로 된 제대군인돌격소대도 정식 전투에 달라붙었지요. 그 기세는 불길이었습나다.

그때 벌어진 감격적인 이야기는 이미 지상을 통해서 소개되었으니 알리라 믿습나다만 조립장은 문자그대로 불도가니였습니다.

그때가 지난 8월이었지요.

대상설비조립전투에 새 지구가 도입되고 제대군인들이 달라붙은지 나흘째 되는 점심 설참이었

습니다. 글썽 비서동무가 제대군인들을 한데 모이라고 해서 무슨 급한 문제를 토론하려는가부다고 생각하며 대오를 지어섰답니다.

《자, 여기 빙 둘러앉으라구.》 하더니 비서동무가 빙 둘러쳐 앉은 한가운데다 보자기에 쓴것을 펼쳐놓더라는겁니다. 김이 문문나는 꽃강냉이었지요.

《집에 휴가를 갔으면 어머니가 종자닭이라도 잡아주겠는데 허참 할수 없지. 꽃강냉이라도 한이삭씩 들지요.》

그 강냉이가 글썽 비서동무네 집 터밭에서 따온것이였습니다. 그리고도 전혀 그런 내색을 내지않았습니다. 그 강냉이가 비서동무의 아들이 가져온것이라는것을 뒤늦게야 알았을 때 제대군인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웅근 두달이 힘들리라던 대상설비조립을 단 40일동안에 끝냈습니다.》

《정말 감격없이는 들을수 없구만요.》

《전화로 이 소식을 들은 지배인은 내려올 때 악기를 한조나 차에 부쳐가지고 왔습니다. 내려오자바람으로

<기동선동대가 춤을 춰야 온 공장이 춤을 출게 아닌가.> 하며 신통히도 비서동무가 외우던 말을 그대로 읊기더군요. 지배인이 직접 선전대를 끌구 현장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방송차를 앞세우구요. 전엔 생산만 생산이라며 악기같은덴 관심조차 돌리지 않던 지배인이었지만 당비서동무가 안타까와하던 문제중의 하나이라는것을 알고 이렇게 뛰어다녔습니다.

기동선전대원들을 방송차에다 태우고 지배인이 솔선 앞장서서 공장구내가 들썩하게 도니 정말 대경사가 났습니다. 하루는 당비서동무가 지배인동무를 료양보내려구 료양권을 가지고 왔더군요. 그 료양권이 요 며칠전까지도 지배인의 책상서랍에 있는걸 봤댔습니다.

그날부터 지배인과 당비서는 현장에서 밤낮을 같이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새로 태여날 생명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랄가, 그렇게 아글타글 뛰어다녔댔습니다. 그런데 걸린 고리가 이렇게 풀리니 숨이 나가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휴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이다싶이 밤늦게까지 셋이 모여서는 그날 일을 총화하고 다음날 일을 설계하곤합니다.

그날저녁 우리 셋이 모인데서 비서동문

《우리도 래일 집에서 폭 쉬고 새로운 전투에 나설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강조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지배인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썰녜이였습니다. 나는 창가림을 찢히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날이 채 밝지 않아 밝은 어둑어둑했습니다. 그런데 제관직장쪽에서 용접불빛이 병긱거리는데가 아니겠습니까. 휴식을 취도 노동자들이 쉬지 않기때문에 그날은 참모부의 명령으로 휴식을 선포했던겁니다. 비서동무도 그렇고 지배인동무도 그만큼 강조했는데 누가 또 몰래 나왔을가?! 나는 그냥 집안에 불박혀 있을수없어 뛰쳐나갔겠지요. 제관직장안에 들어서서 파아란 불꽃이 이는쪽을 살펴보니 근색작업복을 입은 한사람이 아찔하게 높은 사닥다리를 붙잡고 서있었구 용접면을 쓴 다른 한사람은 사닥다리위에 올라서서 대상설비본체용접을 하고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가까이에 다가가보니 그제 글썽 지배인과 당비서였습니다.

씨름을 할 때 그렇게도 승벽이 세던 지배인이었지만 그가 떨어질까봐 비서동무는 온몸으로 사닥다리를 부여잡고있더군요. 나는 비서동무곁으로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비서동무 나를 힐끔쳐다보더군요.

《왜 쉬지 않고 나왔소? 원 사람두 잠이나 꼭 잘거지.》

《아니 이거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의 말을 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작정 사다리로 올랐습니다.

《허허, 마음이 합쳐지면 산도 떠올린다는데 기왕 이렇게 셋이 모였으니 한바탕 해봅시다.》

비서동무는 소탈하게 웃는것이였습니다.

그다음 이야기야 뻔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었을리 있습니다.

대상설비는 이렇게 되어 그후 10월 1일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그날 10시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날말입니다. 대상설비를 조립할 때까지만도 지배인이 조립공들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험검사를 할 땐 보이지 않더군요. 나는 바빠 돌아치다나니 그런줄도 모르고 시험검사를 하라고 지령을 떨어뜨렸었습니다.

잠시후에 《성공이다!》하는 환성이 폭풍처럼 터져올랐습니다.

만일 갓마흔에 첫아들을 봤대도 그렇게까지 기쁘진 않았을겁니다.

나는 어망결에 <지배인동무! 비서동무!> 하고 불렀지요.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부리나케 뛰어다녔지만 두 사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직장장실에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당비서동무가 거기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입가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게 아니겠

습니까. 조용하라는거지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열려진 문새로 사무실안을 살펴봤지요. 글썽 지배인동무가 전화통을 베고 쪽잠을 자고있는체 아니겠습니까. 누가 덮어줬는지 잔등에는 때이르게 근색솜옷이 감싸있더군요. 펍 낮익은것이였습니다.》 축축히 젖어오른 일수의 두눈은 리지적으로 빛났다.

《솔직히 말해서 학력을 두고 말한다면야 내가 비서동무보다 더 많은것을 쌓았다고 볼수 있지요. 그렇지만 인간이 올라서야 할 그 높이를 두고말할때 나는 일생동안 내치 편대도 비서동무를 따라서지 못할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었다. 그러나 분명하게 들리었다.

《처음에 제가 씨름이야기를 했지만 먼 후날에야 나는 비서동무가 그날 일부러 졌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날 비서동무때문에 진 공무직장동무들도 지금은 그에 대해 리해하고 두고두고 이야기 한답니다.》 조용히 울리는 일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마음에 드시는지? 기자동무와 너무도 갑작스레 마주앉아보니 그저 이것저것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직만 이 이야기는 기자동무가 대상설비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수 있었는가고 제기한 질문에 답변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볍게 미소지으며 노을이 비낀 창문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가로수의 부드러운 설레임마저 숨을 죽이려는 듯 누렇게 황이 든 방울나무이파리가 살랑대였다.

놀라운 기적, 큰 성과.

그 기적에는 언제나 참다운 일꾼들이 서있기 마련이다.

《일꾼들!》

새삼스레 새겨보는 너무도 크고 숭엄한 그 부름을 두고 봉긋이 망울지는 버들가지처럼 나의 작은 가슴이 조용히 부풀어올랐다.

나는 처음에 대상설비조립에 대한 기사를 쓰기로 했었지만 그 기사를 뒤로 미루더라도 다른것을 먼저 써야겠다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 바로 그것은 일꾼들에 대한 문제였다.

《이야기바람에 지체시켜 안됐습니다만 이제라도 공장이나 한바퀴 돌아봅시다.》

권일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의 뒤를 따라섰다. 그와 함께 방을 나온 나는 천천히 공장구내로 걸음을 옮기었다.

눈내리는 대안의 구내길에서

장호건

눈송이
흰 눈송이
영광의 땅 대안의 구내길에
햇숨처럼 포근히
내리고 내리는 함박눈송이

아버이수령님 모시였던
스무해전 감격의 그날처럼
끝없는 기쁨 속삭이며
하늘가득 내리는
눈송이, 눈꽃송이...

생각도 깊어져라, 저 눈송이...
그날의 얼어붙은 대동강기슭
찬바람에 외투자락 날리시며
아버이수령님
사색 깊으신 자옥자옥
조용히 새겨가시던 구내길에
꽃보라처럼 내려앉던 그 눈송이런가

제관직장의 작은 휴게실
소박한 당분조회의에도
몸소 참가하시고
그길로 멀리
불빛 환한 로동자구로
눈을 헤쳐가시는 아버지품에
목메여 안기던 그 눈송이런가

아, 소리없이 내려쌓이는 저 눈송이들에
비끼였구나
깊어가는 밤
공장당위원회 창가에 서계시던
승엄하신 그 영상이...

어리였구나, 기대앞에 다정히 허리를 굽히시고
권선공처녀의 이야기도 들어주시던
그 새벽의 뜨거움이...
눈송이, 눈송이
...저 눈송이를 맞으시며

우리 수령님
지퍼주셨구나,
풍파사나운 경제관리의 항로우에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등대불을!

대안땅에 비껴오른 그 빗발따라
스무해
해마다
내리고 내리는 저 눈송이에 목메이며
빛나는 년대들이 수놓아졌구나,
이 땅우에
주체공업의 역센 기둥 일떠세우며,
온 누리에 휘황한 앞길을 밝히여주며...

아, 인류경제사에 새 장을 펼친
위대한 창조의 그날로 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왔어도
이 마음엔 뜨거움이 되어 녹아내리는
그날의 눈송이 흰눈송이

구내길에 내린다
온 나라에 내린다
또다시 흘러간 세월 먼 후날에도
해빛넘치는 락원의 강산에
해마다 내리고 내릴 흰눈은
아아, 그날의 눈송이
그날의 눈송이...

대안이여!

김영남

우러러
우러러도
다 따를수 없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
대안이여 너는 받아안았구나

헤아려
헤아려도
다 헤아릴길 없는
크나큰 그 사랑 그 믿음
대안이여 너는 지녔구나

오, 스무해전
눈보라 훑날리던
12월의 그날
우리 수령님 걸으신
불멸의 자욱자욱이여

개척해야 할 경제관리의 솜눈길에
력사의 첫걸음을 옮기시는
어버이수령님 우러러
끝없이 설레인 대안땅

당위원회의 나지막한 방에
열정에 넘치시여
엮혔던 매듭을 환히 풀어주실 때
지배인도 당위원장도
감격에 젖던 그 새벽은 언제

몸소 당분조회의에도 참석하시여
허물없이 의견을 들어주실 때
목메이는 마음들
스스로 어려움 잊고
진정을 터놓던 그날은 언제

지난날
짓밟혔던 인간의 존엄을
나라의 주인으로 높이 세워주시여
오늘은 이 땅우에
공업강국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

아, 정녕 달라진것은
굴지의 대중기계종합공장
아슬한 저 은빛지붕뿐이라
대형발전기 대형전동기...
세상을 놀래우는 그 제품뿐이라

어버이수령님 품에 태어나
자립의 열쇠를 틀어쥐고
력사의 대통로
공산주의 지름길을 걸어가는
그 주인들을 여기서 나는 보나니

대안이여 너는
우주의 한복판에 높이 솟아
그 이름 그대로 빛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기념비여라
우리 시대의 영원한 기념비여라!

그 마음 다 헤아릴순 없어도

정천례

해빛 쏟아져내리는
휴식날의 교묘한 구내
끝없이 늘어선 기대사이로
홀로 걷고있구나
우리 공장 당비서...

나어린 선반공의 기대앞에선

정성껏 쌓아올린
은빛부속들을 바라보며 웃기도하고
속보판앞에선
공장대학생아바이의 새 창안소식을
소리내여 읽어도보고
지금쯤은
조립공총각과 나란히

유보도를 거닐 운전공처녀를 그려보는듯

서있는 천정기증기를 올려다보다가도
소재는 다 와있는가
살피며 한걸음 또 한걸음

제관직장 드넓은 작업장도
다 돌아보고
알뜰한 연공들의 살림집
휴게실의자에도 흐뭇이 앉아보며
조용히 미소짓는 그 마음

누가 알라
그 마음에 깃든 크나큰 생각
아버이수령님 바라시는 한길로
온 공장을 드림없이 이끌고싶어
쉬는 날에도 쉬임없이
걸음걸음 피여가는 그 뜨거움...

그 걸음이 있어
그 뜨거움이 있어
공장엔 언제나
수천의 숨결소리 잦아들줄 모르누나

래일의 더 큰 열정을 안고

아 당이 맡겨준 로동계급의 한 대오
그 대오의 모든 걸음걸음에
날개를 달아주고
희망을 얹어주고
영광을 안겨주는 당비서의 걸음
언제나 말없이 남먼저 앞서가는
그 보이지 않는 걸음에 받들려
이 땅우엔 끝없이 해어나고있구나
기적도
비약도
숨은 영웅들의 크나큰 창조도...

휴식날의 공장
십리구내를
한가슴에 안으며 걷고 또 걷는
그 마음 다 헤아릴순 없어도
래일의 붉은 도표들이 말해주리라
아버이수령님께 올리는
충성의 보고들이 다 말해주리라
아, 저 멀리 멀어져가는 미더운 모습이어!

그 언제나 별빛으로

정영호

시원스러이 열린 채광장에
도글도글
별무리 내리어 반짝이건만
얼굴 한번 드러낼줄 모르는가
용접면우에 갇숙이 묻고
푸른 섬광을 날려가는 아바이

불보라를 날리고 날려도
다함을 몰라라
아버이수령님
온 나라 로동계급이 대안을 따른다고
뜨거이 손을 잡아주시던 그날
더운 눈물로 얼굴 적시던 아바이

그날에 안겨주시던

불보다 뜨거운
그 사랑이
그 믿음이
가슴에 불길로 솟아
아바이 밤하늘을 태우는가

집채같은 철판들을
척척
하늘가에 이어가며
이 땅우에
소리치며 일떠서는
거창한 발전소들의 숲을 불려...

밤은 깊어 깊어가도
이음새마다

한점의 그늘이라도 비껴세라
다시 또다시 가늠해보며
별처럼 흐릴줄 모르는 아바이 눈빛

산악같이 솟아오르는
대형발전기에
높뛰는 가슴의 숨결을 심어
억년 드림모를 충성의 마음을 심어
용접의 꽃들을 입혀가누나!

위대한 대안의 빛발로
온 나라의 앞장에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높은 뜻
생각할수록 가슴에 차고넘쳐
하루에 열흘을 살고싶어
열흘에 한달을 당기고싶어

이 밤도 용접기 틀어쥐고
농을줄을 모르는가
온 나라가 내세워주고싶은

그 모습이건만
오히려 그 누가 불세라
용접면속에 깊숙이 가리우고
불보라를 날리어간다

우람찬 발전소들이 숲을 이룰
그날에야 용접면을 벗어들고
가슴속깊이 간직해두었던 소원
아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그 진정을 터쳐
한껏 웃음지으리니

아! 채광장에 반짝이던 별무리
한밤이 기울어 스러져도
말없이 진정을 수놓아가는 그 불빛은
저 하늘가에 가득 차오르누나
눈부신 불보라로, 푸른 섬광으로
태양을 받들어 그 언제나
꺼질줄 모르는 충성의 별빛으로 빛나누나

운반공 나는 좋아라

장준식

해빛 눈부신 구내길로
나는 달리네 운반차 몰고
기대와 기대 찾아 쉬임없이
서둘러지는 이 길이 나는 좋아

그 언제나 기쁨에 넘친
권선공처녀들의 웃음도 싣고
바이트에 불꽃 날리는
선반공총각들의 마음도 싣고

달리는 이 길 그 얼마나 좋은가
아버이수령님 우러러
충성으로 불타는
마음과 마음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길

설레이는 가로수도
다가서며 나를 반기고

꽃수건 날리는 싱그러운 바람도
어서 가자 귀전에 속삭이네

어제는 소형전동기 은빛부속 안고
종달새 우짖는 협동벌을 날았고
오늘은 대형발전기 축소재 안고
푸른 언제우로 훨훨 날아가는 이 마음

달리고 달리는 이 구내길은
대안의 숨결이 온 나라에 이어져
무궁한 조국의 래일
크나큰 행복에로 불러주는 길

아, 이 길위에
나의 꿈도 희망도 다 있어
서둘러지는 운반길
나는 좋아 이 길이 좋아

주체의 태양아래 꽃피는 영광의 땅

-대안혁명사적관을 찾아서-

남대식

밤새 함박눈이 많이도 내렸다.

마치 그해 12 월의 력사의 날을 못잊어 찾아오는듯이...

그래서 더욱 상쾌한 아침이다.

공장과 거리에, 산과 들에 새옷을 갈아입힌듯 한결 사람들의 마음도 가벼워진 이 아침, 우리는 또다시 영광의 땅 대안을 찾았다.

봄 여름 가을 철따라 갖가지 꽃들이 곱게 피고 키높이 자란 소나무들이 사철 푸르러 설레이는 높은 언덕에 로동계급속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모시고 대안혁명사적관이 자리잡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의 공업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워주신지 20 뽕이 되는 뜻깊은 날을 며칠 앞두고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은 곁에 앞서 벌써 언덕을 오르고있었다.

우리는 많은 참관자들과 함께 송고한 감정에 휩싸여 대리석층계를 올라 어버이수령님의 동상 앞에 걸음을 멈추었다.

권선토리를 들고나온 권선공처녀며 용접치마도 벗지 못한채 용접면을 들고 달려온 제대군인 제관공, 도면을 맡아든 기술일군과 공장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기수처녀 그리고 로력혁신자와 공장일군들에게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고 한손을 드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어버이수령님!

항상 대안의 로동계급속에 계시며 그들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워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에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를 드린 다음 강사의 안내를 받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지도사적비해설을 듣고 총서관에 들어선 우리는 발전기조립현장에서 로동자들과 담화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커다란 유화앞에서 개괄강의를 듣고관의 호실들을 차례로 참관하였다.

그호실에서 우리는 첫벽면에 모신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나날 해방된 조국의 래일을 그리시며 조국광복회 10 대강령을 작성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과 전시된 자료들을 보며 반영하는 주체조국의 력사적뿌리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하면서 다음호실로 걸음을 옮겼다.

해방의 그해 가을에 대안땅을 찾아온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을 첫 벽면에 모신 2 호실에는 귀중한 자료들이 많다.

해방직후의 그 복잡하고 어려운 나날에 여기 대안땅에 여러차례 몸소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식민지산업의 편파성을 퇴치하자면 전기공장을 창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갈대 우거진 진펄길을 걸으시면서 전기공장 터전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 자재로 첫 전동기와 변압기를 만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또한 어버이수령님께서 전후 어려운 시기에 또 여러차례 찾아오시여 대안전기공장의 이름까지 새로 지어주시면서 이곳 로동계급을 나라의 전기화초병으로 이끌어주신 감동적인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5 마력전동기와 10 크바변압기의 사진을 비롯한 많은 자료들을 감명깊게 볼수 있었다.

강사의 뒤를 따라 우리가 들어선 3 호실의 커다란 정면벽에는 1961 년 12 월 력사적인 대안전기공장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참관자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면 강사의 해설을 주의깊게 들었다.

우리는 강사가 정중히 가리키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판에 모두 눈길을 돌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에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훌륭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가슴깊이 새기며 강사의 해설을 듣느라니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을 기업관리에 훌륭히 구현하시여 이처럼 위대한 사업체계를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려가 더욱 깊이 헤아려져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참으로 웅대한 7 개년계획의 강령적과업수행의 길에 들어섰던 1960 년대초의 우리 나라 경제관리 형편은 어떠하였던가.

선진적인 사회주의적경리 형태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어 경제의 규모는 비할바없이 커지고

부문간 연계가 복잡해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체계와 지도방법은 미처 개편되기 못하였으며 일군들의 능력과 수준도 이에 따라가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없었고 양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효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없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빨리 치달아올라수 없었다.

이것이 어찌 우리 나라 하나의 현실이었겠는가.

이 시기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서 국제적으로도 그 해결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문제였다.

그러나 그 어디에 참작할만한 경제리론도 본받을만한 경험도 아직 없었던것이다.

하기에 이 시기 경제관리에 대한 각이한 억측들이 나왔고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력이 높아지면 발전속도는 빠지고 경제는 제자리걸음을 하게되는것은 필수적현상이라는 기회주의리론이나와 세계 경제발전에 실로 엄청난 후과를 미치고있었던것이다.

바로 이러한 형편을 제때에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61년 11월에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회의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경제관리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과학적인 길을 밝히시고 곧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2월에 대안전기공장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의 길에 몸소 오르시였던것이다.

숫눈길을 헤치시며 이른아침에 대안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먼길의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노동자들의 일터부터 찾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날부터 열흘나마 대안에 계시면서 낡은 기업관리의 모순을 찾아내시고 경제관리의 새길을 닦으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항상 노동자들과 일군들 속에 계시였다. 방금전에는 어느 한 직장장과 프레스결에서 허물없이 공장일을 의논해주시며 생산에서 걸린 문제는 무엇인가고 하시며 그들의 의견을 귀중히 들어주시더니 얼마후에는 절연물직장의 권선공처녀를 만나 가정형편이며 나이, 학력관계를 물어보시며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노동자합숙에 들리시여 합숙원들과 이부자리를 몸소 보아주시며 베개는 조선식으로 등글게 해주라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더니 어느새 49인민반의 어느 한 가정을 찾으시고 노동자들의 생활형편을 친부모의 사랑으로 돌봐주시었

다.

당 및 행정 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며 일군들의 지식정도, 사업지능이며 정치사업체계 등 구체적인 실태를 료해하기도 하시고 그 바쁘신 시간에도 짬을 내시여 다른 기업소와 중앙의 회의도 지도하시며 경제관리에서 나타난 결함을 재확인하시고 그 해결방도를 하나하나 깨우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어느 날에는 아침일찍 큰길에 나오시여 학교에 가는 인민학교의 나 어린 녀학생들을 만나 옷차림새며 학습정형을 따듯이 보살펴주시고 또 체관직장당분초회의를 지도하시며 일터에서 걸린 고리, 노동자들의 아픈 마음을 풀어주시였다.

실로 대안땅에 수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로동계급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참관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귀중한 사적물들과 자료들을 차례로 보며 어버이수령님께서 1961년 력사의 나날에 대안에 남기신 현지지도모형을 더듬어보는데 강사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잊을수 없는 현지지도의 나날 어느 한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공장당위원회 청사에 계시였습니다. 그 방 창문으로는 온밤 밝은 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기간 만나보신 그 많은 노동자들과 일군들의 심정을 하나하나 헤아리시면서 겹쌓인 피로도 잊으시고 삼태성이 기울도록 책상우에 종이를 펴놓으시고 손수 붉은 연필로 이 체계를 하나하나 그리시였습니다.》

드디어 10여일간의 현지지도과정을 총화하는 력사적 모임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의 진리로 대안의 사업체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곳 대안땅에서 경제관리의 숫눈길에 거룩한 첫자욱을 새기시여 력사앞에, 혁명앞에 새길을 명백히 가리켜주시는 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워주신 그 이듬해에는 여러차례에 걸쳐 공장일군들을 찾으시고 새 사업체계가 은을 내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시고 국가적대책도 세워주시였으며 11월에는 또다시 대안전기공장에 찾아오시여 새 체계의 빛발아래 꽃피는 일터와 합숙, 가정을 돌아보시며 분에 넘치는 치하도 해주시였다.

다음날 다시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대안전기공장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해주시고 회의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여 우리의 주체적이며 사회주의적인 경제관리에서 나아갈 지침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15호실까지의 역사적자료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세워주신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 우에서 아래로 날라다 주는 자재공급체계, 노동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주는 후방공급체계,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보장하는 당사업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내용을 되새기며 다음 호실로 갔다.

여기서 우리는 강사로부터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감명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새 체제가 세워진 첫해인 1962년에는 연간계획을 두달이나 앞당겨 끝내고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영광을 지닌 대안의 로동계급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며 힘차게 전진하였다.

우리는 강사가 가리키는 붉은색의 직관물 자료에서도 대안의 전진속도를 똑똑히 헤아려볼 수 있었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끝간데없이 펼쳐진 무지개 비친 영광의 남새밭과 닭공장을 비롯한 믿음직한 후방공급기지, 웅근 하나의 큰 도시를 방불케 하는 그전날 대안로동자구에서 발전한 대안동, 은덕동, 충성동, 새마을동을 비롯한 화려한 고층문화주택거리... 진정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찾아오시여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워주신 영광의 땅 대안의 변모된 새 모습은 참관자들을 끝없이 기쁘게 해주었다.

우리는 이 방에서 강사의 가리킴 따라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남기고 간 감상록 원문과 반향자료들을 눈여겨 살펴보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하나의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위대한 경제관리체계》,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전형》, 《공산주의어로 이끌어가는 사업체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의 위대한 지침》이라고 감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는것이다.

어느 한 국제기구의 대표는 《조선에서 사회주의경제를 어떻게 관리운영하고있는가에 대한 경험은 우리의 교과서로 된다.

진정 사회주의는 조선에서처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외국의 한 벗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조선말을 몇마디 알고있다. 그것은 주체, 천리마, 대안의 사업체계란 말이다.

특히 대안의 사업체계의 거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그렇다. 이러한 위대한 사업체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공업화의 그 어려운 역사적과업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제낄수 있었으며 오늘은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다음 방으로 옮겨간 우리는 세개 호실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사진과 중기계종합공장 건설삽판을 비롯한 사적물을 주의깊게 보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만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지난 5월에 대안을 다시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대안전기공장이 발전적으로 꽃피난 대안중기계종합공장을 기쁘신 마음으로 돌아보시면서 자신께서 터전을 잡아주시고 건설력량을 편성해주시고 또 최선설비를 보장해주시고 때로는 오시여 일군들을 부르시여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여 일떠세워주시고서도 그 모든 성과를 대안의 로동계급과 건설자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신 그 은정을 한가슴 받아안고 우리는 마감호실을 나갔다.

현관을 나서는 우리들을 반가이 맞아주시는듯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고 서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우러르는데 사적비앞에서 강사가 격조높이 읊어주던 시구절이 다시금 떠오른다.

.....

자랑하노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공산주의기업관리체계

이 땅에 뿌리깊이 내려

사회주의공업을 공산주의 언덕으로 이끌어 가는

대안의 사업체계여

세계에 소리높이 자랑하노라

3대혁명의 붉은 기치 드높이

속도전의 폭풍으로 내달리는

혁명의 진군로우에

력사의 이정표로 영원히 빛날

주체의 기업관리체계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여!

.....

씨원히 뻗어간 광장 앞길을 향하여 총계를 내린다.

우리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빛내이며 끝없이 번영해갈 대안의 전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졌다.

구내길을 걸으며

정천영

잊지 못할 그날의 사연을 이야기하듯 송이송이 함박눈이 내린다.

기계소리 은은한 공장구내에 소리없이 내리는 함박눈... 함박눈... 불빛밝은 창가에도 나의 어깨 위에도 흰 꽃송이처럼 내려앉는다.

삼라만상이 고요에 잠든 깊은 밤 뻗어간 구내길을 따라 정든 내 일터로 가는 길이다.

나는 어디선가 비껴가는 용접불빛을 받아 뚜렷이 드러나는 횡단구호에 언뜻 눈길을 준다. 대안사업체계에 대한 구호이다.

지금으로부터 스무해전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눈덮인 이 구내길을 몸소 걸으시지 않으셨던가.

아직은 교대시간이 얼마 남아있다. 나는 내리는 밤눈처럼 사색에 묻히며 걸음을 옮겨놓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셨던 자욱을 따라 사색의 길을 걷는다.

1961년 12월 6일.

그때도 오늘처럼 흰눈이 많이도 내렸다.

아마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른아침 내려덮인 숲눈길에 첫자욱을 찍으시며 이곳을 찾아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대안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날도, 오늘도 보통날 다름없이 평범하게 흘러갔으리라.

이 나라에 연연히 뻗어간 수천수만리 현지지도의 자욱자욱이 다 그리하듯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날도 소문없이 찾아오시여 대안사람들의 가슴을 커다란 감격과 흥분에 휩싸이게 해주셨다.

그러나 나라일이 그토록 바쁜신 수령님께서 어찌하여 그해도 다 저물어가는 그날 발목까지 빠지는 구내길에 깊은 자욱을 끊임없이 찍으셨는지 그 웅심깊으신 뜻을 헤아리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그이께서 하루이틀도 아닌 여러날동안이나 이곳에 머무르시며 공장과 사택마을을 씩없이 돌아보시고 여러차례의 당 및 행정 일군협의회와 당분조회의로 거듭되는 탐구의 새날을 맞으시는 모습을 보며 또 하나의 위대한 전환의 새봄이 마련되고있음을 예감할뿐이었다.

바로 그러한 영광의 나날이 흐르는 가운데 1971년 12월 1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대안전기공장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온 세상에 선포하실 때

에야 사람들은 모든것을 비로소 깨달았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사업체계의 위력은 단결과 협력의 위력이며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의 위력이며 당의 지도가 아래에 깊이 들어가는데서 나오는 위력입니다.**》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거대한 생활력으로 찬연히 빛나는 스무해!

나의 머리에는 스무돌기의 년륜우에 꽃피여난 눈부신 전환의 모습이 비껴온다. 정녕 영광의 대안은 얼마나 자랑찬 전진의 한길을 걸어왔던가.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발자취가 어린 공장의 구내길은 예나 오늘이나 다를바 없건만 실로 모든것이 변하고 새로와졌다.

나는 뽕얀 눈발속에 불빛이 환한 공장사무실창가에 눈길을 보낸다.

분명 저기에서 새로운 아름답 찬 과업을 놓고 지배인도 당비서도 기사장도 자기의 지혜를 털어놓을것이다. 소재직장 당위원장아바이의 경험도 보태여질것이다. 후방일군의 결의도 합쳐질것이다. 그 모든것이 참모회의 이름으로 로동자들의 가슴속에 흘러들어 끝없는 창발성을 불어일으키리라.

나의 눈길은 거창한 제관직장 용접불빛속에 옮겨진다.

밤하늘에 비껴가는 푸른 섬광속에 도면을 펴놓고 걸린 고리를 풀어나가는 책임일군들의 미더운 얼굴들이 보인다.

어찌 그뿐이라.

직장마다에서 생산공정을 맞물리는 지령장의 목소리와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한 직장장의 기쁨에 넘친 보고가 서로 화답하며 나의 귀전에 쟁쟁히 울린다. 새로 설치된 산업텔레비존 중앙조종실에서 모든 직장 중요생산공정흐름을 손금처럼 살펴보며 기술적지도의 확고한 보장을 앞세우는 기술일군들의 눈빛이 별빛처럼 안겨온다.

눈은 하염없이 발목을 덮는다. 스무해전 첫 로동체복을 입고 걸던 그 감격과 흥분이 송이송이 눈송이에 어린들 나의 불을 다감하게 어루만진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숲눈길을 헤치신 그 길을 따라 나의 로동생활도 20년이 흘렀다. 그만큼 나와 눈도 높아졌으련만 어쩐지 나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변모가 나의 사고보다 아득히 높이 솟아있는

듯싶다.

때문에 이 구내길의 감회가 이리도 큰것이 아니겠는가. 그만큼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력이 나의 머리로는 상상할수 없는 기적을 낳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화광이 비껴오르는 주강직장 하늘에 붉은 눈이 쏟아져내렸다.

나의 눈앞, 하늘을 짝 메우며 내리는 눈, 눈은 축복의 꽃보라인듯싶다.

아침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걸으신 길위로 그날의 생산일정수행에 대한 면밀한 타산과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과 신심에 넘쳐 직장들을 찾아가는 지령원들의 드바쁜 걸음들...

지난날 걸린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장, 자재공급원들이 분주히 오가던 구내길로 직장마다 필요한 자재와 반제품을 가득 싣고 쾌속으로 달리는 운반차들의 끊임없는 경적소리...

갖가지 로동보호물자와 탄산수를 가득 실은 공급원아바이와 젊음에 넘친 모습과 김이 물물 피여오르는 우유통을 안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인심

후한 구내식당 아주머니의 얼굴도 보인다.

끼니마다 푸짐한 식탁이 기다리는 구내식당의 구수한 냄새는 또 얼마나 좋은가.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새로운 위훈과 비약이 나래치고 그 누구를 살피도 왕성한 투지와 정열이 차넘친다.

공장과 마을, 이 구내길과 이어진 그 어딜 가나 행복의 노래, 기쁨의 웃음소리 드높은 약동하는 거리, 전진하는 대안!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로 스무해전 그날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몸소 걸으신 좁은 구내길이 오늘은 주체적공업관리 체계의 대통로로 전변되었다.

이 길로 우리의 주체공업과 수천수만의 로동계급들이 공산주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도도히 전진하고있다.

지금 나는 그 길위를 걷는다. 어깨우에 그날의 그 눈을 맞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새길우에 새로운 공업관리체계의 자양으로 꽃피어나는 거창한 조국의 모습을 보며 나는 눈내리는 대안의 구내길을 걷는다.

해발을 안고 간다

리정택

하늘엔 적도의 불별

땅우엔 뜨거운 열풍

논두렁엔 환성을 올리는 벗들이

따라오며 달려오며 손을 흔든다

땅도 내 조국땅이 아니고

사람들도 내 나라 사람들 아니건만

내 지금 모내는기계우에 앉아

아프리카의 땅을 누벼간다

돌아보면 모춤을 섬기는 흑인녀인

일이 흥겨워 하냥 웃기만 하고

뒤따라 푸르러가는 논벌이

꿈만 같이 신비로와

논판에 뛰어들어 모를 쓸어보던 늙은이

멀어져가는 기계를 바라보고

꿈같으리

꿈만 같으리

한뼘 남의 땅에서

허리도 못펴던것이

이처럼 기계우에 앉아 모를 내고있으니

이 나라가 생겨

이 논벌, 이 마을사람들이

오늘같은 경사를 언제 맞았으랴

벗들의 뜨거운 눈물이

이 가슴을 뜨겁게 한다

머나먼 조국, 내 거기서

푸른 봄날, 모내는기계를 처음 몰아갈 때

논머리에 쌓아오신 어버이수령님

기쁘시여 바라보시던 그날의 감격

그날의 그 마을사람들의 걱정이

그대로 이 적도의 나라에 옮겨진것 아니냐

이 논벌도 그 옛날 논벌과 같이

뜯기우고 빼앗기었던 땅이었기에

이 사람들도 내 나라 사람들같이
 마소처럼 시달리며 피땀을 흘렸기에
 아 위대하신 우리 수령님
 어제날의 고역이 영원히 가시여진
 해빛넘친 내조국의 기쁨을 여기에도
 펼쳐주셨나니

그 해빛을 받아
 그 기쁨을 안고

기나긴 세월
 거칠어진 흑인농민들의 마음에도
 새생활의 젊음은 푸르려
 저렇듯 눈마다 봄정기로 빛나는것인가

아, 해빛을 싣고 달린다
 그늘없이 넓어지는 대지
 그늘없이 밝게 웃는 가슴가슴들에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을 안겨주며-

딸을 떠나보내며

김명식

아쉬워서가 아니다
 딸아
 너를 바래우는
 이 어머니가
 걸음을 못땀고 섰음은

꿈도 큰 학우들
 나서자란 거리
 정든 학교를 뒤에 두고
 이 아침
 농촌으로 떠나는 내 딸아

자래우며 열여덟해
 무슨 걱정인들 없었고
 무슨 말인들 안했으랴
 철이 없다 타이름속에
 어엿하다 자랑속에
 너를 키워온 어머니의 이 마음

교단우에 세워볼가
 초소에 세워볼가
 천만가지 생각속에
 잠 못이루던
 어머니의 이 마음

못다 기울인 생각
 못다 기울인 사랑이 없건만
 어머니의 생각
 어머니의 사랑이 끝나는곳에서
 너의 걸음은 시작되는구나

단발머리 키도
 옮기는 걸음도
 마음속 생각도
 하나와 같은 땀들

저 나이에
 총을 메고 천리길
 어머니의 바래움을 받으며
 전선길에 오르던 일이 어제같은데

오늘은 또 내 딸이
 푸른 배낭을 메고
 푸른 꿈이 설레일
 농장벌을 향해 걸어가거니

어머니가 나를
 전선으로 바래왔듯이
 내가 딸을
 농촌으로 떠나보내는
 이 아침의 해빛은
 왜 이리도 눈부신것인가
 눈이 시고 또 시어서
 이슬맺힌 눈으로 하늘땅을 둘러보니

너와 나
 어머니와 딸이
 조국의 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한품속에 자라고있구나.

《해병모 선장》

전세창

1

해수는 바다도 좋지만 금빛노을 불타는 해지는 바다도 좋았다. 만선기 날리는 배들이 포구로 돌아오고있었다.

바다를 다스리는 어로공들의 흐드러진 웃음속에 갈매기들도 춤을 춘다.

짜-쳐절썩, 파도소리도 북장단같이 들려오는 즐거운 저녁이다.

해지는 저녁을 남달리 좋아하는 천해양식작업반장 정해봉은 오늘 어찌된 일인지 잔교옆에 닻을 내린 견인선에서 어두운 얼굴로 바줄을 사리고있었다.

《반장아바이, 오늘 왜 해병모선장이 바다에 뛰어들었나요?》

어로공들은 자기들의 유쾌한 기분속에 아바이를 끌어들이고싶어 이처럼 말을 건네보았지만 그의 입은 여전히 꼭 닫겨있었다. 하긴 천해양식을 책임진 해봉아바이로서는 그럴만도 한 일이 있었다.

정성들여 가꿔 온 참미역, 다시마가 서리맞은 떡잎같이 되고말았던 것이다.

《파도세찬 바다에서 요행수를 바라지 말라. 파악없는 일에 손을 대는것은 모험이다.》

이것은 그가 좌우명처럼 외우는 말이다. 바다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그는 자신이 체험한 그 속 깊은 말을 남달리 귀중히 여기고있었다. 그러게 그의 묵직한 입에서

《아직은 파악이 없는데-》 하는 말이 내뿜릴 때이면 안전한 성과를 거둘수 없는것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바로 그러한 아바이였기에 지금 그의 마음은 더욱 쓰리고 아팠다.

문제는 석파 그사람때문이었다. 그가 추진기마냥 온 작업반을 휘감고 다니지만 앉았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것이었다. 그런데다가 작업반의 《기술학습강사》라고 불리우는 옥수마저 추진기 날개같이 맞붙어 돌아가는바람에 일은 더욱 그렇게 되었다.

석파와 옥수, 그들이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오늘만해도 그랬다. 이렇다할 경험도 없는 석파가 미역, 다시마가 병든 원인을 밝혀보려고 바다로 나갔다. 그러자 옥수도 따라나섰다. 그들은 물속온도를 채어보기 시작했다. 맑은 날씨였으나 립춘절기여서 바다바람은 여간만 차지 않았다. 해가 기우러지면서 파도가 일고 날씨는 더욱 맵찔다. 석파와 옥수는 시간 가는줄을 몰랐다. 그들

이 양식장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였다. 얼어드는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석파가 불러주는 온도를 기록하고있던 옥수가 뜻밖에도 수첩을 물에 떨어뜨렸다. 수첩은 물이 스며들지 않게 담배팩처럼 만든것이어서 미처 손쓸사이없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바로 그 찰나에 수중온도계를 들고있던 석파가 앞뒤를 가려볼 겨를없이 물속에 뛰어들었다.

생각만해도 몸이 오싹해지는 일이었다. 글썽수첩 하나가 뭐가 돼서 바늘끝같은 맵짠 날씨에 생명을 내대다싶이 한단말인가.

정해봉은 오늘 그런 일까지 겪고보니 석파와 옥수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억측하지 말자고 하면서도 어쩐지 그들의 눈치가 다르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작업반장인 자기 말마저 꿈에 너두리처럼 흘러버리고 맞장구치며 돌아가는가싶었다.

때마침 모표없는 해병모를 쓴 석파가 옥수와 함께 잔교우로 걸어오고있었다.

이곳 세소사업소 어로공들은 천해양식작업반의 전마선들을 이끌고 다니는 8마력짜리 소형견인선의 유일한 선원인 그를 두고 즐겨 《해병모선장》이라고들 했다. 하긴 바다로 나갈 때이면 레의없이 해병모를 바다의 상징같이 쓰고 다니는 석파이고보면 그럴만도 한 일이었다.

어로공들은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기라도 한듯 그들을 둘러쌌다.

《여보게 해병모선장, 자네 오늘 옥수동무의 덕분에 옷을 입은채로 빨래를 했다면서?》

《천만에, 내가 오늘 바다물에 뛰어들건 겨울훈련을 해본거라네.》

석파는 룡을 즐기는 어로공들의 시까스름에 반죽중계 웅수하고있었다.

《뭘-? 겨울훈련... 하하하...》

어로공들은 일시에 웃음을 터치였다.

(배포가 유하기를 동이속에 들어앉은 문어갈군.)

정해봉의 입에서는 담배연기가 한숨같이 뿜겨 나왔다.

그는 석파의 말에 귀가 커져서 파악도 없는 먼 바다에 양식장을 퍼놓은 자신을 더없이 후회했다.

그야말로 교훈이었다.

석파는 눈썰미 빠른 옥수의 귀뜸을 듣고서야 견인선으로 머리를 돌리었다.

그는 정해봉의 송곳같은 눈길에 부딪치자 흠칫 놀라는가 싶더니 무릅없이 견인선으로 내려섰다.

《반장아바이, 우린 해지기전에 바다에 한번 더 나갔다 와야겠습니다.》

정해봉은 아무 대답도 안했다. 불끈거리는 마음같아서는

《그래 멀속에 뛰어들구 물온도나 재여본다구 꼴병든 미역, 다시마가 살아날것 같은가.》 하고 오금을 박아주고싶었지만 소래처럼 쓰거운 입에 아무말도 담고싶지 않았다.

그는 움쭉 몸을 솟구어 잔교우로 걸음을 내짚었다. 바로 그 찰나에 견인선으로 내려오던 옥수와 부딪칠번했다.

정해봉은 아차-발을 헛디더 바다속으로 기울어졌다.

때를 같이하여 날파람있는 석파가 그를 부축해주었다.

정해봉은 안도의 숨을 내뿜을 겨를도 없이 벼락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왜 앞뒤도 가려보지 않고 봉- 들떠다니는거야!》

《들떠다니다니요? 우린 양식장의 저녁 물온도가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나온거예요.》

옥수의 당황한 대답이었다.

《저 양식장은 남새밭이 아니라 바다야, 바다!》

정해봉은 자기를 부축한채 어리벙벙해 서있는 석파의 손을 뿌리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다. 그가 도래굽이 선바위곁에 이르렀을 때였다.

석파와 옥수가 탄 견인선이 미끄러지듯 바다로 나가고있었다.

그의 시선은 이끌리듯 견인선을 쫓아갔다.

정해봉의 눈앞에 떠오른것은 석파가 제대된지 얼마 안되어 천해양식을 통이 크게 못한다고 사업소가 들쭉하게 휘저어 놓던 일들이었다...

지난해 여름 참미역, 다시마 씨불임준비가 한창때였다.

해병모를 쓴 석파가 정해봉을 찾아왔다.

《그래, 천해양식작업반에 배치되어왔단말이지, 좋아 중단말이야...》

정해봉은 너무나도 반가와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도 그럴것이 천해양식작업반은 거의 모두가 나 많은 사람들이거나 처녀들뿐이어서 기동감이 될만한 후비를 은근히 물색하던 그였다.

《그래 이름은...》

《중사 신석파!》

《원- 군사청호까지야 뭐... 석파라- 그야말로 바다사람다운 이름이로군.》

정해봉은 석파가 더없이 마음에 들었다. 하면서도 젊은 패기에 큰배, 심해선을 타겠다고 뻔대지 않고 고스란히 천해양식작업반에 온 그가 어텐가 녀성적인데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었다. 키가 큰 편이면서도 다부져보이는 몸집, 그에 어울리는 네모형의 구리빛얼굴에 큼

직한 주먹코, 그 생김생김에 눈만 좀더 컸어도 빠진데 없이 잘 생겼다고 할것이였다. 아쉽게도 눈이 좀 작았다.

(헐치 않은 눈이야. 갈매기가 눈이 커서 고기를 잡나, 저런 눈이 일을 치지.)

정해봉의 짐작이 옳았다.

활달한 성미에 창조적지체가 남달리 기발한 석파의 일숨씨는 정해봉이로 하여금 탄복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이사람 석파, 내 자네를 기동같이 믿고 하는 말이네만 이젠 허리띠를 풀어놓아도 걱정 없을것 같다니. 허...》

정해봉은 석파의 어깨를 한두번만 다독여주지 않았었다.

그럴 때마다 석파는 어쭙은 미소를 지으며 겸손한 자세로 말했었다.

《거야 뭐 아는게 있습니까. 재가 잘못하는 일이있으면 제때에 일깨워주십시오.》

그런 석파를 두고 작업반원들속에서는 별의별 말들이 많았다. 믿어의심치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남달리 새침해하는 처녀들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옥수가 더욱 그랬다.

《저 석파동무는 반장아바이 말이라면 낙지낙시로 고래를 잡는다고 해도 믿을것 같구나... 내가 바다에서 단련된 제대군인이라면 적어도 프랄선을 타지 전마선은 안타겠어.》

옥수로서는 그럴만도 한 일이었다.

석파는 작업반의 《기술학습강사》로 불리우는 옥수한테서 천해양식에 대한 기술강의를 받고있었다. 그는 고등수산전문학교 최우등졸업생인 옥수의 기술지식수준에 탄복한 나머지 그에게 《양식학선생》이라는 말까지 붙여주었었다.

배우는데서는 그렇듯 겸손한 석파가 뜻밖에도 옥수를 비판한 일이 있었다.

《옥수동무, 동문 학교를 졸업한지 벌써 사오년 된다면 자신이 소유한 그 기술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해놓았소. 듣자니 새로운 양식장을 개척하려다가 도루 주저앉았다면서요.》

석파의 그 말은 도화선같이 옥수의 자존심에 불을 달아놓았다.

《나도 동무처럼 큰 소리칠줄은 알아요. 하지만 큰소리친다고 파도치던 바다가 잔잔해지는건 아니예요.》

《그래 그 파도가 두려워서 먼바다로 배머리를 돌리지 못하고 잔잔한 잔교아근에서만 땀몰이친단말이요.》

석파의 짹짹한 눈길에 옥수는 허끝을 깨들뽀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석파는 옥수가 주저앉은 원인을 지못게 캐여물곤했다.

(무엇때문에 참미역, 다시마 양식을 잔교아근의 협소한 연안수역에서만 해야 하는가. 연안밖에서

는 왜 못하는가.

우리는 저 넓은 바다를 농복장같이 꾸려야 한다!)

석파의 주장은 이러했었다.

(허어-석파 저 사람이 눈이 작은 값을 하는군.)

정해봉은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옥수를 대신해서 대답하였었다.

《이사람 석파, 자네 옥수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게로구만.》

《어쨌든 그 실패원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나?》

정해봉은 말끝을 끌며 던지시 석파를 바라보았다.

석파는 펄쩍뛰며 도리를 저었다.

《반장아바이가 저를 기둥처럼 믿고있는데 제가 왜 반장아바이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허...내 그래서 흥금을 터놓고 하는 말이네만 미역, 다시마양식이란 다 리치가 있는건데 옥수를 지내 닥달하지 말라구.》

《옥수동무가 시끄러워하던가요?》

《그래서가 아니라 미역, 다시마 양식은 주로 영양이 높은 이를테면 비옥한 잔교아근에서만 잘 된단말일세.》

석파는 무엇인가 반문하려다 말고 머리만 기웃거리었다.

정해봉은 어차피 석파가 알아들을수 있도록 설명해주어야 했다.

바로 제작년에 석파가 처너지갈다는 저 연안밖에 수역에다가 한 뒤정보가량 시험해보았었다. 그런데 새들새들한 미역줄기가 자라기도전에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찬물줄기가 흘러들면서 미역, 다시마는 미처 손쓸사이없이 《농양병》에 걸리었다.

정해봉은 물론 옥수도 작업반원들도 어지간히 심사숙고했지만 미역, 다시마는 색소가 변하면서 눈에 띄이게 녹아 없어지고있었다.

《허어- 역시 바다에서 안전한 성과를 거두자면 경험과 파악이 있어야 해.》

정해봉은 이런 말을 남기며 양식장을 철수했었다.

《아니, 벼농사에서 한랭전선을 이겨내는데 미역, 다시마라고 이겨내지 못한단말입니까?》

석파는 그래도 납득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원... 벼농사는 땅농사이지만 미역, 다시마는 바다농사야 바다!》

정해봉은 이렇게 말했었다.

그런데 하루는 《바다정찰》을 간다면서 견인선을 타고 나갔던 석파가 뜻밖에도 서너발씩되는 자연 다시마를 싣고 들어왔었다.

《반장아바이, 연안밖의 수역에서 저절로 자란 이 다시마를 좀 보십시오.》

석파는 이러며 연안밖에서도 미역, 다시마가

잘 된다는 자기판의 주장을 고집하기 시작했다.

《뭇라구? - 괜히 작업반계획도 못하면서 국가에 손해만 주려고 그러나, 바위에 붙어자란 한두오리 자연다시마를 밀식한 양식다시마에 비기다니...》

정해봉은 저도모르게 울컥했었다.

그런 일이 있는 얼마후였다.

사회주의증산경쟁을 체결하는 사업소 종업원결기모임때였다.

결의토론들이 끝나고 창발적인 의견들이 있으면 제기하라는 지배인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석파가 불쑥 일어났다.

《우린 지금 협소한 잔교주위에서 생산을 높이자고 해도 자리가 없어 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연안수역은 파도가 휘감아치는곳이여서 해마다 드센 파도가 들이닥칠 때이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저게 그만큼 말해주었는데도...)

정해봉은 저도모르게 눈썹꼬리가 뺏뺏하니 세워졌다.

《우린 그래서 양식장도 마음대로 넓힐수 있고 파도 피해도 없는 넓은 바다로 나가자는겁니다.》

일순간 기침소리 하나없던 회의장은 벌둥지를 쭈서 놓은듯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석파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

《우리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바다를 안고사는 우리 양식공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고 천해양식기술자도 있고 우리 작업반장동지를 비롯한 오랜 경험을 가진 기능공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머리속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석파의 그 말속에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작업반장에 대한 믿음만은 력력히 어려있었다.

정해봉은 두서없는 생각속에 작업반장이 그 어느 다른 사람이거나 한듯 엉겁결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때를 같이하여 회의장의 거의 모든 눈길들이 그에게로 쏠리었다.

《비슷해, 벌써 그랬어야지.》

《바다사람은 저렇게 통이 커야 한다니...》

《천해양식에서 잡도리 단단히 한것 같군.》

정해봉은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 시선들앞에서 저으기 당황해했었다.

그러는 사이에 석파가 자리에 앉고 옥수가 일어섰다. 귀뿌리까지 빨갛하니 달아오른 그의 입에서는 또렷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우리는 제작년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중히 검토해보았습니다. 바로 그 원인은 미역, 다시마 모를 튼튼히 키우지 못하는데다가 찬물줄기가 흘러들 때 해빛조절을 잘해주지 못하는데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조건에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영-? 석파 저 사람이 옥수를 어떻게 닥달해 놓았기에 저렇게까지 용기백배해졌단.)

《작업반장동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해봉은 지배인이 이렇게 물어서야 펄쩍 정신이 들었다. 그는 무슨 말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미처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아직은 파악이 없는데...》 하는 말이 허끝에서 맴돌았지만 작업반원들이 할수 있다고 하는 앞에서 차마 입술을 번질수가 없었다.

《어떻게 있습니까. 바다에서야 말보다도 결과가 중요하지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적당한 대답은 이랬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게 이날 회의에서 천해양식작업반이 창조적열성이 높다는것으로 하여 박수갈채까지 받았다.

천해양식은 농사일과 흡사하여 씨받이도 하고 모도 키우고 모내기한 이후에는 솟아내기도 하고 김도 매주어야 했다.

양식공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나운 파도를 헤쳐가며 하루를 열흘맞잡이로 일손을 제껴나갔다. 그 정성에 떠받들려서인지 11 월초에 모를 튼튼히 키워 모내기한 연안박의 참미역은 새해를 전후하면서 그 자라는 속도가 우후죽순같았다.

바로 이러한 때에 립춘이 잡히면서 갑자기 양식장으로 찬물줄기가 휩쓸어들기 시작했다. 찬물줄기는 때아니게도 잔교아근에까지 영향을 미치었다.

까무스름한 색소를 내기 시작하던 미역, 다시마가 서리맞은 떡잎같이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당황한것은 해봉아바이만이 아니었다.

석과도 작은 눈이 폭 꺼져가지고 바다에서 살다싶이 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열손을 내두른들 속수무책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던차에 오늘 석과가 하얗은 수첩 하나 때문에 그 차디찬 물속에까지 뛰어들었다....

살얼음이 낀 바다기슭의 모래불에 뿌드득뿌드득 무거운 자욱을 찍어가는 정해봉의 가슴은 둘을 삼킨것 같이 답답하기만 했다.

석과와 옥수가 하자는대로 음을 하다가는 무슨일을 어지러지 모르겠다. 이제라도 미역, 다시마를 전문하는 천해양식사업소에 갔다와야 했다. 거기에 가면 그래도 그 무슨 방도가 있을것이었다.

석과와 옥수가 타고나간 견인선은 저 멀리 양식장우에 떠있었다.

2

바다우에 달이 떴다. 쟁반같은 보름달이다. 설레이는 바다도 달빛이 하도 좋아 잠 못드는가싶었다.

정해봉은 바다의 숨결인양 간단없이 들려오는

파도소리마저 듣지 못한듯 휘청휘청 지친 걸음을 옮겨놓고있었다. 미역, 다시마 양식을 전문하는 천해양식사업소에 갔다오는 길이었다. 칠팔십리 길이어서 갈 때에는 자동차를 타고갔지만 돌아오는 길은 지름길이었다.

천해양식사업소의 미역, 다시마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곳 기술일군들도 찬물줄기의 영향으로 미역, 다시마가 색소가 변하면서 녹아없어지는 《농양병》에 걸릴수 있기에 대책을 취하고있는중이라고 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정해봉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그 상태로 며칠만 뒤두면 미역, 다시마를 건져내기는 힘들것이었다.

천해양식사업소에서는 고무폐건 유리폐건 떼라고 생긴것은 모조리 찾아내여 미역, 다시마가 햇빛을 잘 받을수 있게 바짝 끌어올리고있었다.

그러나 정해봉이로써는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천해양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와는 달리 이곳 사업소에는 때가 많지 못했다. 그런데다가 한두 정보도 아닌 그 넓은 양식장을 끌어올리자면 때가 적어도 두세 자동차는 잘 있어야 했다.

갑자기 그 많은 폐를 어디 가서 가져온단말인가.

정해봉은 경각에 달한 자식을 집에 두고온것 같은 마음이어서 그곳 일군들이 쉬고가라는 권고마저 뿌리치고 내쳐 밤길을 걸어오고있는터였다.

그의 머리는 복잡했다. 날씨는 차거워 눈섭에까지 성애가 불렀지만 추운줄도 몰랐다.

오솔길은 퍼그나 험해서 몇번이고 궁둥방아도 찼었다. 그때마다 눈앞에 떠오르는것은 석과였다.

《허어-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한담... 주책머리없이 파악없는 일에 손을 댄 내가 잘못이지.》

정해봉은 자신을 질책하는 그 교훈속에서 단호한 결심을 내리었다.

지금 상태의 참미역은 강냉이농사에서 풋강냉이와도 같은것이었다. 풋강냉이는 그 무게가 가을에 견어들인 잘 익은 강냉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것이다. 물론 말리우는 경우에는 그 실수률이 보잘것없지만... 바로 참미역도 그랬다.

정해봉은 참미역을 풋미역으로 견어들이고 참미역양식장에 설치했던 고무폐를 다시마양식장에 리용할 결심이었다. 다시마라도 살려야 했다.

그는 한해농사를 몽땅 풋강냉이로만 따들이는것 같은 량심의 간질거림이 없지 않았으나 풋미역으로라도 생산수자를 올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작업반생산수자에서도 리익이고 국가적손실도 적어질것이었다.

정해봉의 결심은 확고했다. 새날이 밝으면 온 작업반이 풋미역생산에 달라붙을것이었다. 그의 입에서는 끓는 가마뚜껑을 연듯 연기같은 입김이 안도의 숨같이 뿜겨나왔다.

그가 사업소에 채 못미처 도래굽이 아근에 이

르켰을 때였다.

뜻밖에도 도래굽이 저쪽, 여름에 바다물을 퍼 올리던 양수장 부근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려왔다.

정해봉은 이끌리듯 그쪽을 주시해보았다.

아니나다를가 첫눈에 안겨오는것이 달을 마주하여 서있는 두사람이었다.

(석파와 옥수가?)

정해봉은 보지 못할것을 본 사람같이 눈을 딱 감았다.

작업반장은 속이 한줄만해 다니는데 남다 자는 깊은 밤에 추위도 마다않고 저렇게까지 바다가의 달밤을 즐기고있단말인가.

정해봉의 가슴은 금시 불덩이같은것이 불끈거리었다. 석파도 석파려니와 마음이 대바르기를 대추씨갈고 일손이 여물기를 갈매기입갈다던 옥수가 더 민망스러웠다.

정해봉은 돌부리를 걷어찬 아픔도 느끼지 못한채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기상은 무서웠다. 입만 열면 가슴속에서 끓고있는 본격이 벼락같이 터져나올것만 같았다.

그가 양수장결에 이르러 막 걸음을 멈추려는 때였다.

뜻밖에도 석파와 옥수의 어깨너머에서 작업반 처녀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또렷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석파동무, 낮에 바다에 수상할만한 그런 수첩을 우리들에게도 하나씩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수첩말이요? 하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수첩이 필요하지요.》

석파가 활기에 넘쳐 대답하는 말이었다.

정해봉은 다시한번 그들을 주시해보았다. 그는 비로소 석파와 옥수만이 아닌 작업반의 거의 모든 처녀들이 나와있음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그 무슨 통나무 비슷한것을 두세개씩 묶고있었다.

눈여겨보니 석파가 손을 다쳤는지 옥수가 그의 손을 치매주고있었다.

정해봉은 아님반중에 무슨 일들인가고 한마디 내뿜으려다가 석파가 뜻밖의 말을 하는바람에 섰 뜻 입을 열지 못했다.

《저 보름달이 해병모같지 않소?》 .

(뭐- 해병모?)

정해봉은 엉겁결에 달을 쳐다보았다.

《호... 정말 신통해요.》

처녀들의 웃음어린 대답이었다.

《수첩이야기가 나오니 해병모가 생각나는군요. 내가 제대되던 날 우리 동무들이 나에게 이 수첩을 기념품으로 주면서 <석파동무, 동문 어데 가나 저 달을 해병모로 생각하라구. 그러면 저 달속에 우리 해병들의 얼굴이 보일걸세. 우리 또한

저 달속에서 자네의 얼굴을 찾아보겠네.> 하는 말을 들을 때 어쩔지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저 달을 보니 우리 동무들이 믿음어린 눈길로 나를 지켜보고있는것 같단말이요.》

처녀들은 한동안 아무말없이 달만 쳐다보고있었다.

좌- 처절씩... 그 무슨 속삭임과도 같이 들려오는 파도소리.

《참- 그 말을 듣고보니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큰일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는것 같군요.》

옥수가 탄복하여 마지않는 말이었다.

《그게 바로 조국의 눈이지요. 우리가 깊은 바다속에 있건 그 어느 도래굽이에 있건 조국의 밝은 눈은 항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고 지혜를 티워주고있단말이요.》

《웁아요. 야- 정말 바다가의 달밤은 얼마나 좋아요.》

미역, 다시마는 안중에도 없는지 달밤이 좋다고 호드득거리는 옥수의 그 말에 정해봉의 가슴은 또 한번 부그그 끓어올랐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을 모른다고 병들어가는 양식장을 두고 좋기도 하겠다.)

대관절 석파 저 사람이 뭘 믿고 저처럼 배포가 유한지 모르겠다.

이제 와서 바다속에 통나무담벽을 쌓는다 한들 찬물줄기를 막을수는 없는 일이다.

《으음- 잘한다 잘해...》

정해봉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쓰거운 말마디들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제서야 지척에 와있는 작업반장을 알아본 석파가 작은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움을 금치 못해했다.

《반장아바이! 야- 어데 가셨됐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게요.》

(큰소리칠 때 갈아서는 하늘의 별도 파울것 같더니 이제 와서 반장을 찾아다녀.)

수십리 밤길에 지칠대로 지친 정해봉의 입에서는 불시에 큰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처럼 마음편한 사람이 작업반장은 왜 찾아다녀?》

그바람에 놀란것은 옥수만이 아니었다.

무릅없이 작업반장을 반겨 맞으려던 처녀들이 불에 데인듯 뒤로 물러섰다.

반죽좋은 석파도 눈섭에까지 성애가 불린 해봉아바이가 불길같이 성난걸 보고는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래 자네 눈에는 여기가 뭐 달밤이나 즐기는 잔잔한 호수같이 보이냐, 영?》

《예? ... 아바이두 참- 물장구나 치는 호수라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아바이를 찾아다녔겠습니까

까. 우린 아바이의 오랜 경험에 기초하여 양식장에 저 수지배관을 리용해보자는겁니다.》

《뭘- 수지배관?》

정해봉은 석과의 그 말을 듣고서야 처녀들이 두세대씩 묶어놓은것이 통나무가 아니라 수지배관임을 알아보았다. 했어도 분격한 마음에 리성을 잃다싶이한 그는 석과가 하는 말을 구태여 귀담아들으려하지 않았다.

석과가 콩으로 메주를 쏘다 해도 더는 끈이 들고싶지 않았다. 하물며 강물도 아닌 바다에서 제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묘술가라도 수지배관으로 찬물줄기를 덤힐수는 없을것이였다.

《그래 자네 저 수지배관을 믿구 아닌밤중에 술한 사람들을 휘동해 가지고 다니나 영?》

《예?》

《자네 언제까지 이럴 생각인가... 내 툭툭히 말해두네만 우리 작업반은 독립채산제라는걸 잊지말게.》

《반장아바이, 마음을 늦추시구 우리 말을 좀들어보십시오.》

자신을 수습한 석과가 저으기 안타까와하는 말이였다.

그러나 꽃미역생산을 확고한 결심으로 닦아세운 정해봉이로서는 더 이상 긴 말할 필요가 없었다.

문제는 새날이 밝기전에 그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여 한숨쉬게 하는것이였다. 그래야 아침 일찍부터 꽃미역생산에 집중할수 있다.

《더 긴말 할것없이 어서 집으로 들어들 가라구. 그리구 아침일찍 꽃미역을 생산할수 있는 준비들을 갖춰가지구 나오라구.》

《꽃미역을 생산하다니요?》

석과가 정해봉의 손을 덥석 잡아쥐며 반문했다. 때를 같이하여 처녀들 모두가 눈이 동그아졌다.

《그럴수 없어요. 우린 어떻게 하나 미역, 다시마를 살려야 해요.》

옥수의 알파한 입술은 푸른 달빛으로 해서인지 파르르 떨고있는것 같았다.

《잔말 말고 썩 들어가지 못해!》

파도소리같은 해봉아바이의 그 웨침은 처녀들로 하여금 목을 움츠리지 않을수 없게 했다.

그런데도 석과는 파도속에서도 끄떡없는 선바위마냥 침착한 자세로 서있었다.

《반장아바이, 우리를 믿으십시오. 우린 꼭 해내겠습니다.》

《뭘라구?- 그래 언제는 내가 믿지 않았거나 꼭 해낸다는 말을 안해서 이 지경이 됐나... 영?》

정해봉은 자기 손을 잡고있는 석과의 손을 뉘 뿌리쳤다.

석과는 왜서인지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긴 머리끝까지 성난 지금 상태에서 그 아무리 설득력있는 말을 한다 해도 해봉아바이는 받아 듣지

않을것이였다.

《반장아바이, 생각이 정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우리 저 수지배관들을 옮겨놓고는 인차 들어가겠습니다.》

정해봉은 석과의 그 말을 듣고서야 마을쪽으로 발길을 옮기였다.

그는 자기가 어느 길로 어떻게 집으로 들어왔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혼혼한 방안에 들어서면 노그라질것 같던 그의 몸은 어찌된 일인지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이 송구스럽기만 했다.

담배를 두세대 갈아불었어도 눈에는 좀처럼 졸음이 실리지 않았다.

창문으로 비쳐들던 달빛마저 기울어지고보니 불을 켜지 않은 방안은 더없이 캄캄했다.

남다 자는 깊은 밤에 어둠속에 홀로 앉아 속절없이 담배연기만을 뿜어대는 그의 모습은 더없이 고독해보이였다.

정해봉은 분격했던 마음이 가라앉아서인지 자신도 이상할 정도로 가슴속이 텅 빈것 같은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무엇인가 이름할수 없는 불안이 가슴 한구석에서 기웃거리고있는것 같기도 했다.

머리속은 두서없이 복잡하기만 했다.

도래굴이에서 울려오는 파도소리도 석과의 발자국소리 같고 창문을 스치는 바람소리도 옥수의 흐느낌소리 같았다.

《꽃미역을 걸어들이는거야 어차피 할수 없는 일이지.》

정해봉은 잡념을 털어버리려고 몇번이고 이런 말을 입에 담아보았지만 그때마다 눈앞에 떠오르는것은 석과의 얼굴이였고 귀에 실리는것은 그의 말소리였다. 그는 석과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볼수 없었다.

석과, 정녕 그 사람을 어떻게 리해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요즈음 하루이를 사이에만도 남들 같으면 지쳐서 일어나지도 못했겠는데 것처럼 활기에 넘쳐있는것이 아닌가.

정해봉은 생각이 깊어질수록 보름달이 해병모 같아던 석과의 말소리가 귀를 잡고 놓지 않았다.

3

날이 밝았다. 구름 한점없이 맑게 개였던 하늘은 진눈까비를 쏟아부을것 같이 흐려있었다.

정해봉은 부엌에서 그릇들을 간중거리는 동자질소리를 듣고서야 번쩍 눈을 떴다. 그는 자기가 그 언제 쪽잠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손가락짊에는 불이 꺼진 담배꽂초가 그대로 쥐여져있었다.

《허어- 이거 큰일날번했군.》

정해봉은 이미 불이 꺼진 담배꽂초를 재털이에 던지고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래굴이에서 들려오는 파도소리가 심상치 않

아서였다. 어려서부터 간물에 몸을 적시며 살아온 그는 파도소리만 듣고도 날씨를 알아맞히는 비결을 간직하고있었다. 밖의 날씨는 음산했다. 좋지 않은 징조였다.

《이런 변이라구야, 콧미역을 건어들어야겠는데 날씨마저 고약하게 구는군.》

밖으로 나온 정해봉은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운 하늘을 훑어보고는 바다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큰 파도가 밀려올것 같았다.

그는 저 멀리 고무뽕들이 물오리같이 떠있는 양식장에 눈길이 미치자 보지 못할것을 본 사람같이 눈시울을 치켜올렸다. 양식장우에는 분명 전마선들이 떠있었다.

《응? 아니 저 사람들이...》

정해봉은 황급히 방안으로 들어가 솜동복을 찾아들고는 미처 팔소매를 끼지 못한채 잔교쪽으로 걸음을 다그쳐나갔다.

(간물에 배꼽도 절지 않은 녀석들이 알면 얼마나 안다구 고집이야, 고집이.)

정해봉은 밤새 잠을 이룰수 없게 하던 석파의 표상이 떠오르자 주독이 오른 사람같이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잔교에 들어서자 견인선부터 찾아보았다. 아니나다를까 견인선은 둘째치고 작업반 전마선들까지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저쪽 잔교아근에 대발씩되는 수지판을 실은 전마선 한척이 기우뚱거리고있었다.

정해봉은 앞뒤를 가려볼 겨를도 없이 그리로 달려갔다. 그는 전마선가까이에 이르러서야 수첩을 펼쳐들고 그 무엇인가를 계산하고있는 옥수를 알아보았다.

옥수가 손에 들고있는 수첩은 분명 눈에 익은 석파것이였다.

옥수는 지척에서 울리는 발자국소리를 듣고서야 머리를 들었다.

《어마나, 반장아바이!》

옥수는 불시에 나타난 작업반장을 보자 잘못을 저지른 사람같이 당황해했다.

《반장아바이, 우린 아바이가 가르쳐준대로 수지판으로 뽕을 만들어 양식장을 끌어올렸어요.》

옥수는 해봉아바이가 입을 열기전에 자기 먼저 이런 말을 꺼내놓았다. 그리고는 하회를 기다리듯 작업반장의 눈치를 살피는것이였다.

《내가 뭐 어떻게 했대구?》

뜻밖에도 정해봉의 입에서는 큰소리가 아니라 옥수마저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음성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옥수에게는 그 목소리가 큰소리친것보다 더 크게 들려온 모양이였다.

그러게 초리긴 살눈섭을 붓초리같이 추켜세우

며 손에 든 수첩갈피를 펼쳐보이였다.

《여기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정해봉은 엉겁결에 수첩을 받아들였다.

옥수가 펼쳐준 수첩갈피에는 분명 이렇게 써여있었다.

《과업은 믿음의 표시다! 반장동지가 우리에게 준 특별과업, 가볍고 흔한 수지로 뽕을 만들어 쓸수 있게 연구할것!》

정해봉은 수첩갈피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자기가 석파나 옥수에게 그런 특별과업을 준 생각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언제인가 바다에서 비닐완구뽕이 떠다니는걸 보고

《내 저 비닐뽕을 볼 때마다 생각되는게 있는데... 이사람 석파. 저 흔한 비닐을 가지고 뽕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 그저 바다가 좋다 떠들지만 말구 저런걸 한번 연구해보라구.》

하고 우스개소리 한일밖에 없었다.

그런데 석파가 그것을 특별과업으로 적어놓고 작업반장이 가르쳐준 새로운 방도라고 한다.

(그래 그 무슨 비닐뽕이라고 연구했던말인가.)

작업반장의 표정을 빠금히 엿보고있던 옥수가 생각깊은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반장아바이, 우린 그래서 저 수지판으로 뽕을 만들어 양식장을 끌어올리고있어요.》

《양식장을 끌어올리다니?》

정해봉은 새삼스레 옥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머리카락에 고드름이 달린 옥수는 새벽에 바다에 나온것이 아니라 밤을 지새워 바다에서 일한것이 분명했다.

정해봉은 전마선에 실려있는 수지판에 시선을 주었다.

물이 스며들지 않게 앞뒤를 짝 틀어막은 수지판은 그야말로 멋있는 뽕였다.

《그런데 그 말은 왜 이제야 하느냐?》

정해봉은 저도모르게 불쑥 이런 말을 내뱉으려다가 지난밤 일들이 얼핏 떠올라 가까스로 눌러삼키였다.

지난밤 분위기에 석파나 옥수가 그런 말할 겨를이 있었겠는가. 그리고 자기로서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새겨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것을 알면서도 정해봉은 이렇게 말하였다.

옥수는 작업반장의 심중을 대중할수 없어 얼어드는 손을 비비적거릴뿐 더는 말이 없었다.

정해봉은 눈썹이 날리는걸 보고서야 넋없이 서있는 자신을 찾아보았다.

썩- 처절썩... 큰 멀기가 밀려오려는듯 파도소리는 점점 커지고있었다.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정해봉은 음산한 바다에서 살점을 찌르는듯한

추위도 마다않고 일손을 다그치고있는 석파며 작업반원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자 황급히 낯대를 집어들었다.

《멀기가 밀려드는데 뭘하고 서있어-》

《어마나- 주세요. 제가 노를 젓겠어요.》

옥수는 여전히 바다에 나가려는 작업반장의 얼굴표정을 살피며 손을 내밀었다. 정해봉은 두말없이 그의 손을 가볍게 밀어버리고는 철석철석 노를 저어나갔다.

밀려드는 파도에 전마선은 쉬임없이 오르내리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다는 물거품같은 흰갈기를 날리며 고패치고있었다.

쏟아붓는 눈발속에 수평선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날씨에는 뭇수목 전마선들은 바다에 나가지 않는것이 상례였다.

부지런히 노를 저어가는 정해봉의 마음은 저으기 초조했었다.

석파나 옥수의 말대로 저 수지관이 양식장을 들어올릴만한 때가 되겠는지...

해봉아바이의 무겁게 닫긴 입술은 때때로 경련이 이는것 같았다. 그때마다 지그시 입술을 깨무는 그의 눈빛은 이름할수 없이 착잡했었다.

그는 배를 세우라는 옥수의 말을 듣고서야 주위를 둘러보았다.

전마선은 참미역, 양식장우에 떠있었다.

정해봉의 눈길은 이끌리듯 양식장우에 떠있는 《수지배관떼》에 가서 박히었다.

통이 큰 수지배관 새개를 한데 묶어 바다우에 두둥실 띄워놓는 때는 그야말로 훌륭하였다.

참미역줄기가 무겁게 드리운 바줄을 건어안고 끄떡없이 떠있는 《수지배관떼》는 정해봉이로 하여금 바다물에 손을 잠구어보지 않을수 없게 했다.

그는 손이 얼어드는것도, 물갈기에 팔소매가 찢는것도 느끼지 못한듯 수지관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석파동무- 반장아바이가 수지관을 실고왔어요.》

정해봉은 옥수의 웨침소리를 듣고서야 눈발속에서 희미한 룬팍만이 보이는 석파네들을 알아볼수 있었다.

《누구- 반장아바이가?...》

《반장아바이가 수지관을 실고왔대요.》

그쪽에서 석파와 처녀들이 주고받는 말소리였다.

배를 같이하여 통탕거리는 발동소리와 함께 철석철석 노젓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느결에 석파가 탄 견인선과 함께 작업반 전마선들이 정해봉의 전마선을 둘러쌌다.

《반장아바이, 이 사나운 날씨에 어떻게...》

석파는 작업반처녀들이 오구작작 모여들어 떠드는바람에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아이참- 이 추운 날씨에 옷이 다 젖으셨군요.》

처녀들은 저저마끔 해봉아바이가 타고있는 전마선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래 이 난바다가 차네들에게는 사납지 않고 나한테만 사납단말인가?)

정해봉은 가슴속깊이에서 쨍 얼음장이 터지는것 같은 울림에 선듯 입을 열수가 없었다.

《반장아바이, 아니 그런데 지난밤에 어데 갔었기에 옷이 그렇게 젖어졌습니까.》

석파가 문득 지난밤 일이 떠올라서인지 수지관을 실고온 아바이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며 걱정어린 어조로 묻는 말이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해봉은 빈혈이 온듯 눈을 딱 감았다.

《아니 어데 편찮습니까. 예-?》

석파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듯 아바이를 부촉했다.

그 겨를에 정해봉은 소스라치듯 놀랐다. 자기를 품어안듯 부촉한 석파의 온몸은 말그대로 불덩이같이 달아있었다.

정해봉은 번쩍 눈을 뜨고 석파를 주시해보았다.

천해양식 기술학을 기록한 수첩이 귀중하여 바다속에 뛰여든 석파, 그것은 단순한 수첩이 아니라 그의 지향을 적은것이였다.

자기 한몸 돌보지 않고 또다시 바다로 나간 석파, 그 길에서 새로운 방도를 찾아쥐고 밤을 지새워 언땅을 투저가며 수지관을 파낸 저 손, 갈라터진 그 손에 봉대가 감겨져있다. 그 손을 가지고 이 차디찬 난바다에서 밤을 지새워 양식장을 끌어올렸으니 무죄인들 건디랴.

온몸이 그대로 열에 떠있으면서도 내색조차 하지 않고 도리어 작업반장을 걱정하고있다.

(내가 이 불같은 사람들을 믿지 않고 그 어데로 갔던가.)

자기를 믿어의심치 않은 그들에게 작업반장인 내가 가져다준것은 과연 무엇이였는가.

정해봉은 고들을 나무람하던 지난밤의 일들이 사무치게 되살아올랐다.

(내가 어찌하여 그들을 믿지 못했단말인가.)

해쫄는 바다보다 해지는 바다가 더 좋다고 연안에서 떠나기 저어하던 그의 마음은 폭풍을 만난 바다마냥 끓어번지고있었다.

작업반원들의 뜨거운 체취가 그대로 온몸에 스며드는듯 가슴가득 뜨거운것이 치밀어 오름을 금할수가 없었다.

석파, 옥수, 작업반원들... 그들은 저 수지관으로도 안된다면 천길바다속에라도 들어가 자기 한

몸이 그대로 떼가 되어 양식장을 반들어 올릴 사람들이다.

(정녕 지금까지 내가 파악하지 못한것은 연안 밖의 양식장이 아니라 신념을 간직한 그들의 속 깊은 마음이었다.)

《석과 이사람, 자네 그 몸으로 바다물을 덥히겠어. 바다물을...》

말끝을 맺지 못하는 정해봉의 음성은 떨리었다.

바다를 뒤덮을듯한 눈보라속에서 《수지관폐》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뜨거운 물기가 펴 피어있었다.

우- 우- 시간이 흐를수록 바다는 더 기승을 부린다. 하지만 그 어떤 폭풍에도 작업반원들의 심장에 떠받들려있는 양식장은 끄떡없을것이다.

정해봉은 기우뚱거리는 배우에서 석과의 손을 짹 들어쥐고있었다.

×

도래굽이 기암절벽에 뿌리내려 소담하게 피어난 붉은 진달래가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해돋이를 맞이하는 이른아침이다.

해가 솟는다.

천만진주를 뿌려놓은듯 천태만상으로 빛나는 바다위에 석과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진다.

설레이는 파도위에

찬란히도 아침해 솟는다...

석과의 청종은 목소리에 어울려 처녀들의 맑은 음성이 합창으로 번져진다.

찬란한 네 빛속에서

이 아침이 밝아온다...

석과가 키를 잡고있는 견인선에서 해돋이를 바라보는 정해봉의 가슴은 이쁨할수 없이 부풀어올랐다.

오늘은 천해양식작업반이 바줄이 꺼지게 잘 자란 참미역생산을 시작하는 날이다.

해병모선장이 이끄는 견인선을 따라 처녀들이 타고있는 전마선들은 그대로 노래소리에 떠밀리워가는것만 같았다.

《자- 제격 한배씩 걸어신고 빨리 들어가서 옥수마중을 가져꾸나.》

배들이 양식장에 이르자 해봉아바이가 큰소리로 하는 말이였다.

《호... 반장아바이, 옥수동무가 어느차에 오겠는지 어떻게 알고 마중을 가겠나요.》

《오는 차마다 다 마중해보자꾸나.》

해봉아바이 그 말에 웃음사태가 터졌다.

갈매기들도 즐거워라 춤을 추고있다.

그들이 한창 미역을 걷어올리고있을 때였다.

의외에도 옥수가 전마선에 노를 저어 양식장으로 나왔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 바다에서 솟아났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놀란것은 해봉아바이만이 아니였다. 석과도 처녀들도 금시 눈이 커졌다.

《아이참, 눈보라속에서 공들여 가꿔온 참미역을 생산하는데 저도 한몫 해야 할게 아니예요.》

옥수가 웃으며 하는 말이였다.

석과의 눈은 오늘따라 커진듯 유난히 빛나고있었다.

《옥수동무, 그래 갔던 일은 어떻게 됐소?》

《오늘저녁에 텔레비존에 나올거예요.》

《그게 정말이에요.》

처녀들은 저저마끔 기쁨을 금치못해했다.

《정말 아니구요. 천해양식을 발전시킬데 대한 이번 경험토론회를 텔레비존방송기자가 목화해갔어요.》

《그러니 옥수동무도 토론에 참가했겠소?》

옥수는 석과의 기대어린 눈길을 받으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저는 우리 작업반의 경험과 함께 우리모두의 결의도 이야기했어요. 래년에는 올해보다 세배를 더 생산하겠다구요.》

바다우에는 짜그르르 박수갈채가 일어났다.

《잘했다. 래년엔 이 넓은 바다를 양식장으로 덮자꾸나!》

이렇게 말하는 정해봉의 가슴은 이쁨할수 없이 부풀어올랐다.

《반장아바이, 래년에는 미역, 다시마뿐아니라 천해양식품종도 더많이 늘입시다.》

해빛비끼 석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여올랐다.

《암- 늘어야지, 늘어야 하구말구.》

정해봉은 자신도 모르고 찌릿이 눈시울이 젖어 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오면서 아침이면 해를 맞이했고 저녁이면 달을 맞이했어도 지금같이 저 넓은 바다위에 자신을 비쳐보기는 처음이였다. 해병모같은 보름달에 전우들의 얼굴을 비쳐보듯...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일손을 다그쳐 미역 한배 기쁨 한배 싣고 포구로 들어가자꾸나!》

미구하여 해병모선장이 이끄는 견인선을 따라 작업반의 전마선들이 물갈기를 날리며 파도를 헤쳐가고있었다.

견인선에서는 석과와 옥수가 타고있었다.

그들을 바라보는 정해봉의 얼굴은 한결 젊어진다 밝은 미소가 어려있었다.

작업반의 전마선들을 이끌고 가는 석과야말로 견인선선장이였다.

덕천안개

박세옥

흔히 안개라고 말하면 누구나 버들숲에 묻힌 내가나 꽃향기 그윽한 산모퉁이나 물오리떼 날으는 달밤 호수가에 흐르는 안개를 생각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금기가 뱀 바다가의 안개와 산발들이 준엄한 고산지대의 물기 많은 안개를 그럴것이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연의 조화며 태고의 고요를 방불케 하는 그 신비며 아름다움의 황홀한 정서에 잠기기도 하는것이다. 때문에 산천을 더 아름답고 장엄하고 기이하게 느끼게 하는 자연의 이러한 숨씨를 두고 또 삼라만상의 그 모든 풀잎과 나무잎들에 수정같은 맑은 이슬을 맺히며 소리없이 흐르는 안개를 두고 사람들은 수많은 이야기들과 전설들을 엮었던것이다.

그러나 산천에 늘 안개가 끼는것은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더 신비하고 기이한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은 자기의 숨씨와 재간을 쉽게 내놓는것은 아닌것 같다. 그것은 자기의 힘을 시위하고싶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이 평온함을 보여주고싶을 때 베푸는것 같다.

하지만 덕천에 가면 언제나 안개가 끼여있는것을 볼수 있다. 누구나 새 고장에 가면 새맛을 쉽게 느낀다고 하지만 이렇게 뚜렷하게 느낄수는 없을것이다. 누구나 덕천에 가 첫날밤을 자고나면 그 이튿날 안개낀 아침을 볼것이다. 첫날이어서 대수롭게 지내보낼수 있지만 그 다음날에는 아마 이상히 여길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안개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 자주 오르게 된다.

덕천은 언제나 안개가 끼여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일과를 그렇게 정해놓은듯 그 시간이 규칙적일만큼 같은것이다. 그 현상이 매우 특징적이어서 이곳에 처음 오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이른새벽부터 젖빛같은 뽀얀 안개가 거리에 흐른다. 그런데 10시경부터 걷히기 시작하여 한 30분 지나면 푸른 하늘이 활짝 열린다. 그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언제 안개가 끼였던듯싶게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나는 너무나 뚜렷하고 반복적인 이 특징에 놀라와 덕천에서 한생을 보냈다는 한 로인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그 로인은 나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고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것이 더 놀랍다는듯이 한참 나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그게 덕천안개라우!》

《덕천안개라니요?》

나는 로인의 말을 되반다싶이 하면서 그를 바라볼뿐이였다. 그것은 안개에 지방이름이 붙어있기때문이였다. 사실 나도 이제는 흰머리칼이 보여오는만큼 적지 않게 살아왔다고 말할수 있고 또 직업이 작가이니만큼 적지 않게 돌아다녔지만 이런 말을 처음 듣기때문이였다.

로인은 의아스러워하는 나를 건너다보더니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덕천땅에 안개가 끼는 일이 드물었다는것이다. 한해에 몇번 끼나마나한 그 안개를 팔순이 가까운 내가 어떻게 기억할수가 있겠는가고 했다. 그런데 대동강발전소연제가 일어서고 커다란 호수가 생긴 다음부터 매일 안개가 낀다는것이다. 도시에 안개가 끼니 덕천이 더 새로와보이고 어딘가 더 웅장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맛을 돋구어 준다고 했다. 그리고 몇해전부터는 성에불린 털모자를 눌러쓰던 이고장에서 다시는 그런것을 볼수 없으며 여름에 시원한 맛을 주는 저 푸른 숲은 산간지방에 때이르게 오는 그 추위속에서도 오래도록 푸르러 서있다는것이다. 이것이 안개가 주는것이 아닌가고 말했다. 그래서 덕천사람들은 그 안개를 가리켜 덕천안개라고 한다는것이다.

가슴뜨거운 말이였다.

로인의 그 말에는 우리 시대의 기상이 비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력사의 창조자입니다.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가 창조되며 사회적 변혁과 진보가 이룩됩니다.》

나는 무심히 대하였던 안개낀 덕천하늘을 바라보았다. 남산밑 대동강줄기를 따라 흐른다고도 말할수 없고 덕천분지를 에워싼 산줄기를 따라 울적인다고도 이야기할수 없고 고층아빠트며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설 덕천거리를 따라간다고도 할수없는 안개가 밀려가고있었다.

그 안개는 내가 흔히 보던 그런 안개가 아니였다. 산허리에 마치 왕자처럼 떠를 두른 화려한 안개도 아니며 딛고 오를수 없는 천길벼랑우에서 나떨어지는 폭포가에 수줍게 피어오르는 그런 실안개도 아니며 흰치마저고리를 입고 그 뒤를 기다리는듯 내가의 버들숲에 서있는 그런 안개도

아니며 바다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짙은 안개도, 내리던 비를 거두며 가늘어지는 안개비와 같은 그런것도 아니었다.

어딘가 범접할수 없는 웅장하고 장엄한 감을 주었다.

질고 엷은 색깔의 엉킨 조화라 할가 아니면 흐르는 품이 힘차고 용맹하다고 할가 엄한 기상과 거대한 맛을 주고있었다.

덕천안개라고 부르는 이 안개는 그 색조와 소리와 맛에 있어서 류다르고 별다른것이였다.

나는 대동강발전소를 찾았다. 그런데 어쩐지 나의 마음과 걸음은 제것같지 않았다. 마음은 벌써 대동강발전소에 가있는가 하면 걸음은 생각에 묻혀있었다. 한동안 걸린다는 길을 아마 그 두 배너머 걸린것 같다. 왜냐하면 그 로인이 말한 덕천안개라는 그 말이 나에게 웅근 한 시대를 한 순간에 느끼게 하는 의미심장한 그런것이였고 또 내가 걸어가며 둘러보는 그 안개가 무엇인가 나에게 우리 시대에 대하여 말하고있는듯싶기때문 이였다.

내가 언제밑에 다가갔을 때였다. 안개에 가리워 그 머리가 보이지 않는 아득한 언제우로 구름같은 안개가 넘어오고있었다.

하늘과 땅이 열리던 순간이 이렇지 않던가싶었다.

어디선가 금시 우뢰가 터질듯싶었다.

고대력사가들의 기록이나 작가들의 작품에 묘사된 대륙들을 횡단하며 한세기를 진감하던 거창한 전쟁도 이렇듯 장엄할가싶었다.

나의 넓은 그 무엇에 놀린듯싶었다. 아니 나의 몸에서 떠나버린듯싶었다.

내가 넓은 밭고 우리 시대를 힘껏 떠받들고있는 언제를 바라보고있는데 빛바랜 작업복을 걸친 한 언제건설자는 언제건설의 그 나날을 자랑스럽게 더듬으며 그날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듯 언제를 가리키며 나에게 말하는것이였다.

《이 언제는 우리 수령님께서 세우신것이지요. 우리 언제건설자들은 콘크리트를 다졌을뿐입니다.》

생각에 잠긴듯 한동안 말없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동강발전소건설의 원대한 구상과 몸소 현지에까지 나오시여 터전을 잡아주신 이야기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동이 많은 석회암시대언제건설에서 복잡하게 제기되었던 난 문제들을 주체의 철학적원리로 건설자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풀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들려주는것이였다. 그

러면서 그는 대동강발전소건설이 가지는 정치경제적가치와 의의가 여러가지라고 말하면서 기상학적견지에서만 놓고보아도 이언제를 건설한것으로 하여 덕천지방의 온도가 평균온도보다 훨씬 높아졌기때문에 이 지방이 전보다 더워졌다고 했다. 그렇기때문에 더욱 살기좋은 아름다운 고장이 되었다고 했다.

우리는 어느덧 언제우에 서있었다. 밑에서 올려다볼 때보다 더 장관이였다. 큰 도시의 대도로를 그대로 방불케 하는언제가 대동강좌우안의 산과 산을 련결하고있었다.

우리의 발아래에서는 엷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있었는데 안개와 안개사이로 새로 생긴 넓은 덕천호수가 펼쳐지고있었다. 이제는 예전의 대동강의 흔적을 찾아볼수도 없지만 산도 마찬가지로였다. 호수우에 떠오른 작은 섬들의 그 크기로 보아 그때 그 산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뿐이였다.

걸히는 안개사이로 물새들이 그림처럼 날아가고있었다.

바로 이곳이 덕천안개의 고향인것이다. 실로 위대한것을 낳을수 있는 고향이였다.

그 무엇에 이끌리듯 나는 언제우를 걷고있었다. 그런데 눈길이 모자랐다. 생각이 눈길을 보태준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도 모자라는것 같았다.

인간을 위한 대자연의 변형은 비단 자연뿐 아니라 인간정신도 변화시킨다.

덕천지방의 아이들은 자연시간이나 지리시간에 안개에 대하여 배울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는 달리 자연현상에 의하여 생기던 안개에 대해서만 배우지 않을것이다. 교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의 령도하에 우리 인민의 슬기와 지혜와 힘이 창조한 안개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배워줄것이다.

안개의 의미도, 자연의 의미도 우리가 살고있는 주체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달라지고있다.

모든것이 인간을 위해 주체의 요구대로 변모되고있는것이다.

덕천안개! 얼마나 평범한 말인가. 그러나 이 평범한 입말속에 우리는 얼마나 크나큰 시대의 전변을 느끼고있는것인가.

아아, 덕천안개, 덕천안개 그것은 인간의 두뇌로써는 상상할수 없이 그렇듯 전변되고있는 우리의 주체시대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선물이며 영웅적이며 장엄한 교향곡이며 노래며 춤이며 시인것이다.

덕천에서

인호대에 오르며 외 2편

변홍영

가파로운 벼랑길에
쇠바줄을 잡으시고 오르셨으리
내 딛고 오르는
이 바위틈을 밟으시며 오르셨으리

저 발밑에 피어나는 무지개가
나의 기쁨이 되라고
골안가득 넘치는 맑은 정기
나의 웃음이 되고 노래되라고

홀날리는 물보라에
옷자락을 적시시며 오르셨으리
층계 층계
이끼앓은 돌을 짚고 오르셨으리

계곡을 내려쬐는 통연폭포 산주폭포
내 억센 기상이 되라고
창끝처럼 다투어 솟은 바위들
내 가슴속 곱힘없는 기개 되라고

아, 우리 수령님
묘향산 깊은 골
인호대 높은 절벽가에
크나큰 사랑의 자욱을 남기셨구나

수수천년 수난의 상처를
말끔히 가셔내시듯
묘향산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밝게 웃으시던 건국의 그 봄날은
저 락락장송
그 어느 년륜에 푸르려 새겨있느냐

천만가닥 청신한 물소리

하나의 절묘한 바위에도
인민의 기쁨을 실어보시며
몸소 오르시기를 다시 그 몇차례
수령님 남기신 그 사랑 그 해빛은
어느 봉우리, 어느 경치속에 빛나고있느냐

은하를 드리운 세폭의 폭포수도
설레는 푸른 숲, 천태만상의 바위들도
수령님 해빛속에 제모습을 다듬어
내앞에 신비의 절경을 펼쳤거니

묘향산, 조선의 명산아
너의 아름다움
너의 웅장함
말로도 노래로도 다할길 없다면
오직 하나
이 가슴에 샘솟는것은

아, 수령님 한평생
인민을 위해 찾아주고 빛내여주시는
이런 절경, 이런 조국을 위해서라면
한목숨 바쳐 아쉬움 없고
길이 받들어 변함없을 한마음

아, 이 한마음만은
너의 충암절벽에
이름높은 폭포가에
새겨두고싶구나
비바람에도 지워지지 않고
천년이끼에도 묻히지 않는
내 생의 엄숙한 선서처럼
불타는 이 마음만은-

절벽가의 소나무

천길 만길
아찔한 벼랑가에
네 어이 뿌리를 내렸느냐

그 몇백년
오고가는 비바람속에

청청함을 떨치느냐

천만바위도
서로 다투며
저마다 기묘함을 자랑한다만

깨면 옥구슬
뿌리면 진주로 빛을 뿜을듯
부서지는 폭포수도 나는 좋다만

아, 묘향산의 한그루 소나무여
하비로 절벽가에 푸르른 네 모습
그토록 내 마음 틀어잡음은

내 너처럼
세월의 비바람속에서도

흘러내린 산줄기 깊은 골마다
천하절경 다 펼쳐고
묘향산아
네가 나를 불렀느냐
내가 너를 찾았더나

한굽이 돌아들면
기다린듯 다가서는 기묘한 바위
또 한굽이 돌아서면
우뢰런듯 쏟아지는 장쾌한 폭포수

내 잠시 넋을 잃고 섰다가도
여기로 나를 불러준
우리 당의 사랑에
불현듯 가슴은 뜨거움에 젖는구나

눈길을 들면
떨기떨기 숲속에 핀 두봉화도
기쁨에 우짖는 온갖 새도
못잇을 이야기 속삭이고

일만경치 다 보며 쉬어가라고
터를 잡아준 절벽가엔
사랑의 휴식각 한채
진주이랴 구슬이랴 떨어지는 폭포수우에
날아갈듯 추녀를 높이 엮었구나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드다는
팔담을 눈아래 굽어보며

변치 않는 모습을 간직하고있기때문

천야만야 절벽가에 선대도
내 심장속 깊이
흔들림없는 신념의 뿌리 내리우고

내 너처럼
푸른 기개를 떨치며
한생을 당의 전사로 살고있기때문!

묘향산 등산길

줄다리를 타고 가노라니
발밑엔 소리치는 산개울처럼
내 가슴은 왜 이리도
터질듯한 격정에 차넘치는것이나

해묵은 락엽을 앞서 헤치며
이 길을 걸어간 우리 당
불같은 마음으로
승고한 그 뜻을 새기며
내 작은 발걸음도 따라옴기나니

불수록 황홀하여
다시 또 보아도
새롭게만 안겨오는 아름다움
수천년 세월이 다듬어세운 이 절경

숲속에 이름모를 한떨기 꽃도
맑은 개울가 흔하디흔한 돌도
당의 해빛 어리어
내 가슴에 그토록 빛을 뿜는구나

아, 묘향산아 조선의 자랑아
위대한 그 해빛
너의 천만봉우리들에 비끼여
너는 빛나는구나
제 나라에 살면서도 다는 몰랐던
조국의 아름다움이 되어
내앞에 솟아오르는구나

묘향산의 동고비

류민호

그 이름 그대로 보이는 모든것이 기묘하고 어딜가나 향기 또한 차고넘치는 묘향산!

굽어보면 황홀경이요, 올려다보면 장쾌한 모습, 신비로운 세계에 취해섰노라니 노래처럼 들려오는 산새소리가 내 가슴을 흔드는것이다.

분명 저 새들의 합창소리는 아름다운 자연과 거기에 담긴 깊은 사연을 노래하는 대교향악인듯 싶다.

얼마나 아름다운 산천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 묘향산의 산새소리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묘향산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 근로자들의 즐거운 문화휴양지로 만들어야 하겠습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이 어린 묘향산을 인민의 명승지로 더욱 활짝 꽃피우기 위해 우리 당에서는 묘향산을 잘 꾸리도록 배려해주었다.

이 나날에 우리 당에서는 묘향산에 새들이 많아 새소리가 그치지 않는곳이라고 뜻깊은 가르침을 주었다.

은혜로운 자옥이 어린 묘향산의 새소리를 들으며 답사길에 오르는 내 마음은 뜨거웠다.

얼마나 아름다운 산천인가. 거기에 온갖 꽃들이 사철 피어 향기 또한 넘쳐나는곳, 그칠새 없는 산새소리는 마음속 절로 흘러나오는 나의 노래를 대신해주는듯싶다.

나는 어린시절을 거의 산골에서 자랐고 군사복무의 나날도 산간지대에서 보냈기때문에 산새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자신심을 가지고있었다.

묘향산에는 유명하게 피팔새가 많은것이 첫눈에 알렸고 그 소리도 희귀한 휘파람새며 긴 부리를 한번 비틀면 딱딱한 잣씨도 단번에 까버려서 온 산의 잣을 거의 독차지한다는 까막더구리며... 쉬임없이 날아다니는 그 많은 새들에서 나는 눈길을 좀처럼 땔수가 없었다.

새에 대해서 매우 흥미를 가지는 나를 보더니 우리를 안내하는 이곳의 한 일군은 나에게 문득 동고비라는 새를 아는가고 묻는것이였다.

동고비?! 언제 들은것 같기도 하고 또 생소한 이름같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 본적은 없다.

나는 솔직히 파악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도 웅당 그러하리라고 믿었다는듯이 미소를 띠우며 동고비에 대한 뜻깊은 사연을 들려주는것이였다.

《이곳에 오래 산 사람들도 이 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있었습니다. 기껏해서 묘향산에 그런 새가 있다는 정도로 알고있었지요. 그런데 이 새

가 이번에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사랑속에 그렇게도 유명한 새로 되였습니다.》

이렇게 허두를 땀 그 일군은 그에 깃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감격적으로 들려주는것이였다.

묘향산지대에서 오래 산 사람들도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고 무심히 지나쳐버리던 새, 약초를 캐러, 산나물을 뜯으러 사철 이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알아보지 못하던 새, 그러나 이 동고비는 그 누가 자기를 알아보건 말건 산에 오르는 사람들을 위해 종일토록 우짖으며 길안내를 해왔다는것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그 누구도 이 새의 수고를 알아주는이가 없었다. 그러던것이 얼마전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묘향산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이 동고비를 찾아내여 새의 이름을 몇번이고 불러주며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선전해주어 길동무가 되게 하라고 은정깊은 가르침을 주었다.

길가의 나무 한대, 풀 한포기, 돌 하나라도 그것이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게 하려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세심하고도 뜨거운 사랑속에서만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면서도 이름도 없이 소문도 없이 산속에서 살던 평범한 새도 그토록 만사람의 사랑을 받는 새로 되게 하였던것이다.

동고비란 어떻게 생긴 새일까?

온 숲속에 새소리 그칠새 없는 이 묘향산에 그 무슨 새인들 없으랴만 새가 사람들의 길안내를 한다니 참으로 기이한 새가 아닌가. 나는 앞뒤로 날아에는 하많은 새들가운데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귀중히 찾아준 동고비라는 새를 알아내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다.

그러나 좀처럼 그 새를 알아낼수가 없었다. 이 새가 그 새같고 저 새가 그 새같아 좀처럼 분간할수가 없었다. 이것은 나의 헛수고였다.

이 새는 산에 들어서자마자 인차 알아볼수가 있는 새가 아니며 또 그렇게 될수도 없는 새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 그 새를 알아내리라 마음먹었다. 나타났다가 없어졌다하는 수많은 새들중에서 과연 어느 새일까.

수많은 새들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하건만 오르면 오를수록 하나의 새만은 산입구에서부터 마치 막로정까지 떠나지 않는 새가 있으니 그 새가 바로 동고비가 아닐까 하고 나는 그 새를 놓치지 않고 눈여겨살폈다.

아니나다를까 다른 새들은 한번 날아왔다가는 숲속 멀리로 날아가기도 하고 산밑에서 보이던 새는 높은곳에 오르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건만, 오직 이 새만은 앞을 떠나지 않고 나의 몇걸음

앞을 그냥 날아예며 고운 목청을 돋구는것이였다.

저 새가 아닐까?!

참새보다 약간 크고 배에 흰점이 있는 새, 네가 막 기쁨을 금치 못해하며 그 일군에게 물었더니 맞았다고 하면서 함께 기뻐하는것이였다.

바로 저 새로구나,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묘향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도 그 이름조차 알수 없었을 새.

하나의 산새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을 찾아내여 우리 인민들이 묘향산의 아름다움을 더 잘 알도록 해주려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그 가르침을 생각하며 걸음 옮기는 나의 마음은 뜨거워진다.

오를수록 산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겨오고 오를수록 생각 또한 깊어지는 나의 등산길 걸음 걸음을 앞서 날으며 청쾌게 지저귀는 저 새!

그렇다. 저 동고비새는 단순한 새가 아니며 그 울음소리는 자연이 주는 목소리가 아닌것이다.

여기 조선의 명승지 묘향산에 깃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끝없이 전하여주며 부르고 부르는 노래소리가 아닌가!

잠시 생각에 잠겨있는동안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단원들이 가벼운 걸음으로 따라선다. 그들도 동고비새를 보더니 기쁨을 금치 못하며 얼굴가득 웃음이 피어난다. 그러더니 달려가기도 하고 문득 걸음을 멈추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동고비새도 약속이나 한듯 빨리 날기도 하고 그들과 같이 멈춰서기도 한다. 그것이 신기하여 힘든줄도 모르고 마치 경쟁이나 하듯 달려가기도 하고 또 멈춰

연속방문기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전호에서 계속)

12. 새봄을 안고 산다

채너머 야산기슭의 파란 비닐지붕을 덮은 탁아소옆집이 작가네 집이라고 했다. 닭들이 골골거리며 걸어다니는 달구지길을 따라오면서 세번씩이나 물었으나 다같이 대답했다. 작가 김규엽동무의 집은 이곳 순안협동농장의 어른, 아이들은 물론 이미 세상을 다 살고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통했다. 앞으로 태어날 새세대들에게도 그렇게 통할것이다.

한것은 작가 김규엽동무가 이 집에서 28년을 살았기때문이다. 또 앞으로 영원히 이곳에서 살아야 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늘 로동자, 농민과 접촉하고 로동자, 농민과 결합되며 그들속에서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의 원천을 찾아낼줄 아는, 로동자, 농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적 작가,

서기도 하며 웃고 떠들며 즐거워한다. 행복한 아이들의 뒤를 따르는 나의 걸음도 더 즐거워진다.》

골짜기마다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며 하많은 전설을 안고있는 신비로운 바위며 폭포들, 하비로와 만폭동, 상원동 골안, 정녕 지난날에는 이 아름다운 명승지를 이 땅에 살면서도 다는 몰랐던 조선의 명산 묘향산! 자랑높은 이 명승지를 더 아름답게 꾸려주려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크나큰 사랑은 대를 두고 길이길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있을것이며 땅을 따르는 길에 이 명승의 묘향산은 영원히 아름다운 조국의 모습으로 솟아있으리니 찾아오는 하많은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며 고마운 당의 사랑을 길이길이 전해주게 될 묘향산의 동고비! 이름조차 모르던 이 새 또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가슴속에 하나의 전설과도 같이 전해지리라.

끝없는 생각에 잠겨 명승지를 오르는 나의 앞에는 동고비새가 쉬임없이 지저귀며 날아였다. 하비로의 형제폭포, 상원동의 인호대, 만폭동의 돌층계 등 그 아름다운곳마다 앞서 날으며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부른것이 아닌가.

하기에 나는 속으로 이렇게 웨치고싶었다.

묘향산의 동고비야!

너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그 사랑을 길이 전하며 인민들의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쉬임도 없이 지침도 없이 영원히 날고날아라.

만사람들을 우리 당의 자욱을 따라 이 등산길을 걸어가도록 앞서 날으며, 따르는 그 길이 변함없으라고 노래부르며-

예술인으로 되여야 하겠습니다.》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고 탐구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각지 탄광, 공장, 어촌으로 나가는 작가들과 더불어 김규엽동무가 이 농촌집 수수한 돌토방우에 집을 뚫것이 1959년 8월 어느날이였다.

벌써 60돐 생일이 넘었다. 그가 동네아이들의 머리를 쓸어줄 때면 애들은 작가를 가리켜 인자한 《새봄》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누가 처음 그렇게 지어불렀는지는 모르나 누구에게 묻든 모두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장편소설 《새봄》이 나온 다음부터이라고 했다. 틀림없었다. 그 별호에는 아이들뿐 아니라 소설에서처럼 살아온 순안농장원들의 자기 생활에 대한 자랑과 긍지, 그것을 화폭에 옮긴 작가의 노력에 대한 존경의 진정이 어려있었다.

《새봄》 할아버지!- 이 말은 그의 가슴에 번쩍이는 명예이기도 했다. 그 명예는 높은 각오와 뜨

거운 열정과 무서운 노력으로 영근 결실이였다.

40대의 한창나이에 택암협동조합(당시) 축산반에서 소달구지를 끌던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의 세월은 함께 일하는 농장원들의 가슴에 그의 생활 모습의 이모저모를 진하게 그려주었다.

×

우리는 푸른 이영밀의 락아소마당에서 들에 나간 작가를 기다리며 나이 지긋한 한 프락포르운 전수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1959년 첫겨울이였다. 이날도 일찍부터 김규엽 동무는 두툼한 솜동복을 입고 방한모를 꼭 눌러 쓰고 돼지우리에서 일했다. 북데기를 실어다 돼지우리에 집어넣고 돼지두엄을 실어내어 눈에 띄군했다.

그가 쇠스랑으로 두엄을 떠서 달구지에 실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안경진 젊은 사람이 그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위엄있게 다가와서 한마디 훈시했다.

《동무, 어디서 왔소?... 음, 알만하오. 동무, 일 잘해야 돼. 똑똑히 살아야 돼!》

군에서 온 축산기사였다.

점심시간에 조합원들은 뜨끈한 축산반실에 모여 들었다. 프락포르운전수들은 《선생님부터 드시오.》라며 더운 국을 작가에게 먼저 권했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갔던 그 사람은 오후에 일부러 찾아와 미안하게 되었다고 어쩔바를 몰라했다. 역시 생활이였다. 작가의 머리속에는 생동한 한 인간이 그려졌다. 그 다음은 다른 성격이... 그 다음은 또 다른 성격이... 그와 함께 작가도 흙냄새가 풍기는 실농군이 되었다.

실농군이 되어 장편소설 《새봄》의 그 지대에서 일했고 매개 등장인물들이 하는 일을 맡아했다. 한몸이 세사람으로 될 때도 있어야 했고 다섯사람이 될 때도 있어야 했다. 힘겨운 일이었다. 남들이 한가지 일을 할 때 그는 작업반 선동원이 되어 어두운 밤 우등불가에서 독보를 했고 하루 일의 실참에는 《농산기사》가 되어 선진영농과학기술을 해설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남다 자는 밤에도 책상머리에 앉아 수십페이지의 책을 읽어야 했다.

그뿐이 아니였다. 로인들은 편지를 쓸 일이 생겨도 그를 찾아왔다. 점차 마을의 좌장이 되면서는 상가집에 가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그러나 작가 김규엽동무는 행복했다. 어려움속에 행복이 있었다. 그는 그 과정에 생활을 매 인간들의 사상발전, 생산활동, 가정세태에 이르기까지 립체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체험할수 있었다. 그것이 작가의 행복이였다.

그 행복은 작가에게는 물론 우리 독자들에게도 차례졌다. 그중 하나가 《새봄》의 야장간장면이다. 독자들은 그 생동한 장면을 읽으며 흥분했을 것이다. 작가는 그 한 장면을 위해 반년을 야장간에 바쳤다.

《메질하는것이 사상단련입니다. 하나의 점을 향하여 정신을 최대로 집중해서 때려야 빛나가지 않으니깐요.》

이 말속에는 피라는 노력과 고심의 금강석같은 알맹이가 있었다. 그것을 독자들은 몰라도 그 힘이 독자들을 흥분시킨것이다.

마을사람들은 그가 택암협동조합의 첫 천리마 작업반원이었다는것을 기억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하수혁명방침을 내놓으셨을 때 화불을 켜들고 오봉산기슭을 누비며 끝내 물끓을 하나 찾아낸 일도 기억하고있었다...

×

얼마후 허리가 구부정한 김규엽동무가 울타리 길에 나타나자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찾으며 두팔을 벌리고 달려가 옷자락에 매달렸다. 두 남매를 다 키워 집을 내보냈지만 그에게는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많았다. 이것도 현실침투의 위대한 방침이 안겨준 기쁨이였다.

우리가 정갈한 그의 집 서재에 앉아 오랜 세월 현지생활에서 얻은 교훈들과 《새봄》 창작경위에 대하여 물었으나 작가는 대답을 못했다. 한것은 거기에 너무나도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기때문 이였다.

《사실 장편소설 <새봄>은 제 이름을 달고나간 소설이지만 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서 종자를 주고 생활을 준 작품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창작이 되지 않아 고충을 겪은 작가입니다. 더우기 토지개혁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남조선에서 살았습니다...》

작가의 고향은 남반부였다. 그는 거북등같이 터갈린 땅우에 가느다란 다리를 버티고 서서 북에서 울리는 토지개혁의 농악소리를 얼마나 부러워 가슴을 찼던가. 그런 작가에게 그 갈망이 작가적로동으로 실현되도록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이 야산기슭에 두번째 고향을 정해주었다. 작가는 여기서 고향의 새봄을 맞고 풍만한 가을을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서는 소설을 잘 썼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고 크낙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뿐만아니라 당에서는 친히 소설의 제목까지 바로잡아 《새봄》이라고 달아주었다.

새봄!

새봄은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에 숨결을 주어 부풀게 하고 새 생명이 움트게 하는 소생의 계절이다. 특히 작가 김규엽동무에게는 진정 그런 계절이였다. 창작의 고충속에서 모대기던 작가의 가슴에 다시 찾아온 새봄은 정말 소생의 봄이였다. 그것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서 안겨 주었으니 그 은혜 무엇으로 다 보답하라. 충성심과 의리와 도덕으로 갚아야 할 은정이였다.

그때로부터 작가는 창작의 새봄을 안고산다!

그것이 기뻐서 아이들까지 《새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것이 분명했다. 순안농장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 ×

작가는 지금 장편소설 《대지는 설레인다》의 초고를 펴고있다. 농민영웅 김재원농민을 형상한 작품이다. 당에서는 이 작품창작의 영예로운 과업을 김규엽동무에게 맡겨주었다. 믿음이었다. 《새봄》 때처럼 또다시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바라는 믿음이었다.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작가는 알고있었다.

김규엽동무는 배낭을 지고 재령을 향해 떠났다. 항일유격대식으로 꾸린 배낭이었다. 김재원농민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던 그 언덕을 향하여 취재의 높고 낮은 길을 뚫던 작가는 그만 1950년 주인공이 희생된 그 언덕에 올라서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는 더는 움직일수 없는 자신의 팔과 다리를 원망하며 몸부림쳤다.

(이것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보답하지 못하고 일생을 마쳐야 한단말인가?)

야속했다. 절망적인 생각은 작가를 완전히 혼수 상태에 사정없이 몰아넣었다.

누구보다도 이 소식을 먼저 안 당에서는 이 동무는 《새봄》을 써서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동무인데 건강이 좋지 못함에도 현지에서 창작하다가 뇌혈증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빨리 깨닫이 회복시켜서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사랑의 불사약까지 보내주었다.

그 사랑은 새봄을 맞아 만물이 소생하듯이 심장을 다시 뛰게 했고 피가 다시 흐르게 했다. 작가는 창작의 새봄을 다시 안을수 있었다. 취재를 끝내고 걸어서 돌아올 때 농장원들과 마을어들은 《새봄》 할아버지의 옷자락에 매달려 눈물을 흘렸다. 다함없는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그도 울었다.

작가는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려야 하겠다는 당의 가르치심을 붉은 당원증이 없어져 있는 그 심장속에 깊이 간직했다. 거기서 솟구치는 무한대한 힘으로 창작의 붓을 억세게 틀어잡았다.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보석같이 또박또박 박아쓴 원고지를 들여다보았다. 매 칸칸에 새겨진 글자의 푸른색 잉크는 푸른빛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 ×

그만큼 작가의 결의는 컸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저의 생애의 피력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농민들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력사를 개괄하는 작품을 묶어내겠습니다.》

작가의 다음작품은 오늘의 현실이다. 때문에 그는 집필의 바쁜 속에서 오늘을 체험하고있다. 여전히 오봉산밑의 순안농장 1, 2, 3작업반은 그

의 일터였다.

작가가 마주앉아 땀흘리는 앓은뱅이책상우에는 《로동신문》, 《대중과학》, 《주체농법》이 펼쳐져있었다. 우리는 거기서 작가는 현대인류가 달성한 최신과학의 높이를 모르고서는 한보도 전진할수 없다는 당의 가르치심을 깊이 깨닫고있는 그의 열정을 읽을수 있었다.

책상앞에 걸려있는 월력의 10일, 20일, 30일에는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져있다. 그날은 만사를 제쳐놓고 들로 나갔다. 거기서 3대혁명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사회주의농업근로자들의 새로운 모습을 취재수첩에 적어넣었고 가슴에 그 생활감정을 축적해넣었다. 축적이 중요했다. 축적이 창작과정의 공백을 메워주기때문이다. 감정과 냄새는 축적에서 오기때문이다.

체험은 그뿐이 아니었다.

작가에게는 15평의 토지가 있다. 우리 나라 토지법에 의하여 분여받은 땅이다. 그것은 집앞의 터밭이었다. 작가는 그곳에서도 생활을 체험하고 있었다. 작가 김규엽동무는 이렇게 모든 시간을 죄다 리용했다. 잠시간을 리용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잠이 없는 법이다. 로동시간이 따로 없는 작가에게는 그것이 귀중했다.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봄날의 농군처럼 남달리 부지런한 작가에게는 올해도 풍만한 가을이 왔다. 별의 만풍년과 더불어 재너머 야산기슭의 파란 비닐지붕을 덮은 탁아 소엽집에서 일어나는 혁신은 대단한것이였다.

우리는 여기서 생산된 장편소설 《대지는 설레인다》의 초고를 읽었고 줄당콩맛도 보았다...

깊은 생각에 잠겼던 작가는 우리에게 책상유리 밑의 흰 종이장을 꺼내보였다. 우리는 활달한 필치로 씌여진 글줄을 읽었다. 작가자신이 자기에 주는 격문이었다.

① 현지생활에서 부정적현상에 동화되지 말라.

② 항상 시대정신, 시대감정으로 살라.

③ 현실을 작가적눈으로 들여다보라.

이윽고 우리는 닭들이 골골거리며 걸어다니는 달구지길에 나섰다. 애들속에 에워싸인 《새봄》 할아버지는 재등에까지 따라나와 오래도록 서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드릴 기쁨은 이렇게 마련되고있다! 그것은 멀지 않아 우리 인민의 기쁨으로 될것이다.

위대한것을 창조할수 있는 거대한 힘, 작가 김규엽동무는 그 힘이 태동하는 새봄, 새봄을 안고 산다.

새봄은 언제나 풍요한 가을을 불러올것이다.

본사기자 최봉무

축구지도원

김덕철

호각소리, 공튀김소리, 와-와-하는 함성소리... 전국 구락부생축구경기대회가 진행되고있는 신포경기장은 전에없이 흥성거렸다.

원고개를 넘은 한지호관장과 같이 선수석에 앉아서 경기실황을 주시하고있는 김경식지도원의 얼굴이 명절날처럼 환해졌다.

수세에 빠졌던 자기네 팀이 체육복잔등에 《8》자를 커다랗게 단 중앙공격수 철민의 맹활약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경기주도권을 틀어잡았기때문이었다.

철민은 상대방 방어구역에 깊숙이 배겨있다가 공을 잡기만 하면 무조건 자기 혼자 개별공격을 했는데 속임동작이 좋고 물기가 좋은 그는 자기 방어자 한두명은 식은죽먹기로 빼고 들어가서 차넣기를 했다. 그런데 그가 차넣기 하는 공이 매번 문대를 한뼘 사이 두고 옆으로 빗나가지 않으면 골문가름대에 맞고 튕겨나서 일대 혼전을 벌리는바람에 구경꾼들이 손에 땀을 쥐었다.

《정말 괜찮은데.》

《보통 재간덩이가 아니구만.》

《앞으로 큰 선수가 되겠네.》

철민에 대한 경란의 목소리가 관람석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다.

경식은 저도 모르게 주석단아래 초대석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후비선수들을 선발하러 온 중앙선수단 축구지도원들이 앉아있었다. 그들속에는 전에 경식이와 한팀에서 선수생활을 같이한 한창신지도원도 있었다. 창신을 비롯한 중앙선수단 지도원들은 자기네끼리 무슨 이야기가를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이고있었다.

경식은 그들이 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것 같아서 사뭇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한지호를 돌아다보았다.

그런데 한지호가 앉아있던 자리가 비어있었다. 경식은 재빨리 주위를 살피었다. 그 순간 경식의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그도 그럴것이 한지호가 어느새 후보선수 한명을 심판석으로 데리고 가서 철민이와 교체시키고있었기때문이었다.

경식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눌렀던 용수철이 튕겨날 때처럼 벌떡 일어나서는 심판석으로 급히 달려갔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철민이가 벌써 후보선수와 교체되어 축구장밖으로 나왔던것이다.

한지호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 경식은 흥분을 능치기 위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러나 한지호는 그런 경식에게는 조금도 주의를 돌리지 않고 철민의 땀난 어깨를 손바닥으로 다정하게 두드려주었다.

《수고했소.》

그리고는 철민의 손목을 잡고 선수석으로 데리고 가서 앉힌후 자기도 그결에 따라 앉았다.

경식은 한지호가 철민의 힘을 돋구어서 경기장에 다시 들여보내려는것을 자기가 혹시 잘못 생각한게 아닌가 하여 그 자리에 멍적게 서있다가 선수석으로 도로 가서 앉았다.

철민이가 나온후 장진구락부팀이 다시 속도경기를 진행했으나 상대방이 중간지대를 장악하는 바람에 경기주도권을 빼앗기고말았다.

자기가 교체되어 나온것이 불만스러워 아직도 볼에 땀알을 물고있던 철민이가 영치를 들썩들썩하기 시작했다.

경식은 그런 철민이를 보니 그를 어서 빨리 경기장에 들여보내고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래서 한지호를 쳐다보았는데 경기에 정신이 팔려있는 그는 철민이를 경기장에 들여보낼 생각조차 하는것 같지 않았다.

경식은 지금에야 비로소 한지호가 철민이를 교체시킨것이 그의 힘을 돋구어서 경기장에 들여보내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것을 확신할수 있었다.

경식이와 한지호를 번갈아 쳐다보던 철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축구화앞코승이로 땅바닥을 툭툭 걸어쳤다. 했으나 한지호는 여전히 철민에게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이러다 철민이를 중앙선수단에 보내지 못하기라도 한다면?...)

해벌에 타서 검승한 한지호의 얼굴을 야속스럽게 쳐다보는 경식의 속은 빠직빠직 타들었다.

경식이가 철민이때문에 이처럼 가슴을 태우는 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중앙선수단에서 선수생활을 하던 경식이가 장진체육회관축구구락부 지도원으로 차진하여 온것은 두달전이었다.

《정말 잘 왔네. 난 자네가 우리한테로 온다는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네.》

그날 구락부생들과 같이 역구내에 마중나와있던 한지호는 열차에서 내리는 경식의 손목을 덥석 틀어잡고 힘있게 흔들어대며 진심으로 말했다.

경식은 자기에 대한 옛 체육선생의 변함없는 사랑에 저절로 눈굽이 시큰해졌다.

《저걸 보라구. 저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나. 하긴 국가종합팀에까지 망라되어 이름을 떨치던 체육명수가 자기네 지도원으로 왔는데 왜 기뻐하질 않겠나.》

한지호는 경식의 트렁크와 가방을 들고 저만침앞서 걸어가는 구락부생들을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다.

《트렁크를 들고가는 애가 철민이네. 정말 재간둥이야. 신통히 자네 어릴 때와 같네.》

《그렇습니까?》

경식은 시뭇이 웃으며 철민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철민이도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는 경식이와 눈길이 마주치자 경리해보이는 두눈을 반짝이며 싱긋 웃었다. 그리고는 트렁크를 다른 손에 바꾸어 들고 종중걸음을 쳐갔다.

그날 경식은 집에 가서 폭 쉬라는 한지호의 권고를 마다하고 그와 같이 훈련장으로 나갔다.

축구장에서는 벌써 역에 마중 나왔던 구락부생들이 저마끔 자기 부족점인 물기며 차냉기며 공관활훈련을 열성적으로 하고있었다. 그들의 훈련모습을 빙 둘러보던 경식의 눈길이 철민이한테 가서 못박히었다. 철민은 발과 무릎, 어깨와 머리로 공다루기를 했는데 그는 마치 재주를 부리는 교예사처럼 공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자유로이 다루고있었다. 경식은 중앙선수단 선수들 못지않게 공다루기를 하는 철민의 기술에 감탄했다. 그는 한지호가 어쩌서 철민에 대한 자랑을 그처럼 했는지 리해되었다.

잠시후 한지호가 팀전술훈련을 시켰다. 그는 관장으로 임명된지 여러달이 지났으나 새 축구지도원이 부임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관장사업과 함께 축구지도원사업도 계속했던것이다.

경식은 십여년전이나 다름없는 한지호의 높은 요구성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에 감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경식의 낯색이 인차 흐려졌다.

축구선수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더 귀중한 속도 인내력이 철민에게 부족하다는것을 간파했기때문이었다.

《그래 우리 전술이 어떤가?》

훈련이 끝나자 한지호가 경식이한테로 다가오며 물었다.

《선생님 전술을 바꿔야겠습니다. 지금은 철민에게 공이 지내 많이 집중됩니다. 그러니 속도경기도 못하고 철민에게 나쁜 버릇도 붙었습니다.》

한지호는 그게 무슨 소리냐는듯 등그래진 눈으로 경식을 쳐다보았다.

《철민인 자기 공격만 하지 다른 선수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거나 방어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전과 달라서 현대축구는

그런 선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철민이를 훌륭한 선수로 키우자면 결정적으로 속도인내력을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전술부터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음, 그렇단말이지?...》

한지호가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그 이튿날아침이었다.

한지호는 경식에게 오늘부터 구락부생들의 훈련지도를 맡아서 하라고 했다.

그러나 경식은 자기는 아직 지도원 경험이 없다는것을 방패로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경식이가 그러는데는 일리가 있었다.

어제저녁 경식은 자기를 찾아온 고등중학교 동창생이며 지금 시체육지도위원회에서 지도원사업을 하고있는 허승재한테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허승재의 말에 의하면 한지호가 지금까지 아홉명의 선수를 자기 손으로 키워서 중앙선수단에 보냈는데(그가운데서 세명은 국가종합팀에까지 망라되었다.) 이번에 또 한명을 보내면 문제없이 공훈체육인칭호를 수여받을수 있다는것이였다.

경식은 그 말을 듣고 한지호가 열번째로 중앙선수단에 보내려고 점찍은 선수가 바로 철민이라는것을 인차 깨달았다. 그러자 철민이에 대한 한지호의 관심이 어쩌서 그처럼 높은지 그 까닭도 헤아려졌다.

승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 내 생각엔 동무가 인차 훈련지도를 맡아서 하지 말고 전국구락부생축구경기가 진행되는 7월까지 한지호선생이 그냥 훈련지도를 하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네.》

《승재, 정말 고답네!》

경식은 자기를 믿고 찾아와서 이런 말을 허물없이 해주는 승재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의 손목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사실 승재가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으면 자기는 제자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할번 하지 않았는가?

한지호는 경식이가 끝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그럼 전술체계라도 같이 토론하자고 하면서 그의 앞에 축구작전판을 가져다놓았다. 경식은 그 축구 작전판을 리용하여 지금 축구계에서 제일 우월하다고 인정하는 새 전술체계를 자세히 설명했다. 경식의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난 한지호가 두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날부터 구락부생들에게 그 훈련을 시켰다.

전면공격, 전면방어를 위주로 하는 새 전술체계는 선수들에게 높은 집단주의정신과 함께 최대의 속도와 완강한 투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철민을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속도인내력이 딸려 새

전술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

새 전술과제를 완성하려면 무엇보다먼저 선수들의 속도인내력을 해결하여야 한다는것을 깨달은 한지호는 그 즉시 전술훈련을 중지시키고 속도인내력 배양을 위한 육체훈련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런데 선수들의 속도인내력은 좀처럼 빨리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지호는 속도인내력을 해결하기 위한 육체훈련에 더많은 시간을 배당했을뿐 아니라 선수들에 대한 개별훈련지도도 더욱 강화했다.

그가운데서도 철민에 대한 관심은 각별했다. 한지호는 하루훈련이 끝난후에도 매일같이 철민이를 붙어잡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구한훈련이며 무릎굽혀펴기 그리고 자기가 손수 만든 모래자루를 두다리에 졸라매고 달리게 했다.

경식은 그러는 한지호를 볼 때마다 열번째로 중앙선수단에 보낼 철민이를 더잘 키우려는 한지호의 심정이 헤아려져서 가슴이 후터워지곤했다.

그러나 전국구락부생축구경기대회가 점점 눈앞에 다가오자 경식은 불안해지는 마음을 견잡을수가 없었다. 전술훈련에 모를 박지 않고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이번 경기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것은 물론 철민이를 중앙선수단에 보내지 못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긋게 갈마들어서였다.

(내가 잘못했어. 7월경기가 끝나고 철민이를 중앙선수단에 보낸 다음에 전술을 바꾸자고 했을걸...)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날 한지호는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모여온 구락부생들에게 새 전술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종합전술훈련을 시키고있었다.

그사이 어느 정도 속도인내력을 배양한 선수들이 한지호의 호각신호에 따라 자기 이동위치로 민첩하게 흐르면서 공격을 개시했다. 공격조직자로서 팀의 참모부역할을 수행하는것은 물론 상대방방면에 위협을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돌입도 하고 상대방방어수들을 자기한테로 유인하여 다른 선수들이 안전하게 공격할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었다.

그런데 그렇게 맹활약을 하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혈떡거리며 잘 뛰지 못했다. 몸만 잔뜩 앞으로 쏠려서 편다기보다 차라리 어기적거린다고 해야 할 철민의 모습은 보기에도 숨가쁠 지경이었다.

치차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던 선수들의 이동이 철민에게 공이 련락되자 기계에 고장이 생겼을때처럼 덜컥 떴어버렸다. 철민이가 제때에 그 공을 잡아서 련락하지 못했기때문이었다.

《다시!》

축구장가운데 두다리를 버티고 선 한지호가 쏙

붙처럼 이글거리는 두눈으로 선수들을 굽어보며 반복구령을 쳤다.

그러자 선수들은 처음부터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했으나 철민이한테 공이 련락되자 또다시 이동이 덜컥 떴었다.

선수들이 모두 멈춰서서 철민이와 한지호를 불안하게 주시했다.

철민이가 애원하듯 한지호의 얼굴을 뵈히 쳐다보았다. 마음속 동요를 일으켜서인지 잠시 입을 꼭 다물고 서있던 한지호가 철민의 그 애원하는 듯한 시선을 밀어젖히듯 엄하게 소리쳤다.

《다시!》

그러나 철민은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듯 움직일 념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성미가 급한 좌측날개가 한마디 했다.

《철민아 빨리하자!》

그러지 않아도 신경이 팽팽하게 조인 악기줄처럼 예민해있던 철민은 그 말을 듣자 눈섭을 한번 찡긋하더니 자기앞에 있는 공을 신경질적으로 팡! 차던졌다.

남덩이같은 무거운 공기가 축구장에 널려있는 아이들의 어깨를 짝 짓눌렀다.

한지호의 얼굴근육이 가볍게 떨렸다.

《철민동무, 그게 무슨놈의 본때요? 우리에겐 그런 선수가 필요없소!》

한지호가 성난 목소리로 소리치고는 숨이 차서 혈씩거리였다. 암반같은 그의 앞가슴이 세차게 오르내렸다.

공을 차던지고 그 자리에 말뚝처럼 서있던 철민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책 돌파서서 달려갔다.

운동장 한쪽에서 구락부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에게 공다루기 훈련을 시키다 말고 그 광경을 긴장하게 바라보던 경식이가 급히 철민이를 뒤쫓아갔다.

경식은 자기 손을 세차게 뿌리치는 철민을 겨우 달래여 훈련장으로 도로 데리고왔으나 그 일로 하여 전에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것을 어찌하는수가 없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철민이를 중앙선수단에 보내는데 반드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위구와 우려가 머리속을 짝 지배해서 그렸는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무슨 마련을 봐야겠어.)

그날저녁 한지호를 찾아가던 경식은 이번 경기만은 새 전술체계대로 하지 말고 그전에 하던 전술대로 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그러자 한지호는 허허 웃으며 지도원동무답지 않은 말을 한다고 그의 말을 대변에 일축해버렸다. 그통에 경식은 더 말을 하지 못하고말았다.

하지만 속으로 그는 한지호도 실지 경기때는

자기와 같은 림장을 취하려니 생각했다. 그래야 경기에서도 이기고 철민이도 중앙선수단으로 보내게 될것이 아닌가!

하나 경식은 오산했었다.

한지호는 오늘 자기네 팀이 수세에 빠졌을 때 경식이 그처럼 전술을 바꾸자고 간청을 해도 그걸 들어주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철민이가 새 전술체계대로 경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를 경기장에서 빼내기까지 했던것이다...

《선생님,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철민이를 빨리 돌려보냅시다.》

손에 들고있는 지도원용초침시계와 한지호를 초조하게 바라보던 경식이 더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한지호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경식을 잠시 바라보더니 머리를 설레설레 가로저었다.

경식은 그만 마음속의 탕개가 풀리는것을 느꼈으나 그는 인차 자기를 다잡고 다시한번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선생님, 그렇지만 경기에서야 이겨야 할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철민이도...》

경식은 계속해서 철민이도 중앙선수단에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려다가 그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지호는 경식의 마음속을 환히 꿰뚫어 보기라도 하는듯 이렇게 말했다.

《물론 경기에서 이겨야 하오. 그러나 눈앞의 경기에서 이기겠다고 미래의 보다 큰것을 보지 않아서는 안되오.

지도원동무, 한결음의 양보가 열결음의 전진을 방해한다는것을 알아야 하오.》

한지호의 태도는 단호했다.

자기 형으로서 어떻게 한지호의 마음을 돌려 세울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경식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떨구고말았다.

결국 경기는 0대0으로 비겼다.

그러나 추첨에서 장진구락부팀이 아쉽게 지는 바람에 련맹전에 참가할 자격을 잃어버렸다. 이번 경기는 조별 승자련맹전이었던것이다.

경기가 끝나자 한지호는 선수들과 같이 숙소로 돌아갔으나 경식은 도저히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어서 자기 혼자 경기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다가로 걸어갔다.

백사장기슭으로 밀려오는 파도가 멍석처럼 덜덜 말리우며 흰거품을 일으키였고 저기 깊은 바다에서는 높아진 파도봉우리에 물갈기가 일고있었다.

바다가 모래둔덕우에 서서 수평선쪽을 바라보고 있는 경식의 얼굴은 평온해보였으나 그의 속은 바다처럼 뒤설레이고있었다. 아니 어디에 대고 하소할수 없는 답답한 가슴을 저 뒤설레는 바

다에 마구 풀어헤치고싶은 경식이기도 했다.

정말 생각할수록 분했다. 자기네 팀이 련맹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것도 분하거니와 철민의 일이 더 분했다.

글쎄 경기중에 자기 기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교체당하기까지 한 그를 어느 지도원이 좋다고 선발해가자고 하겠는가? 일은 정말 랑패였다!

경식의 눈앞에 불현듯 허승재의 얼굴이 선히 떠올랐다. 자기를 찾아와서 한지호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그처럼 신신당부하던 그를 이제 무슨 낮으로 만난단말인가?

경식은 또다시 한지호에게 전술을 바꾸자고 했던 자기자신을 원망했다.

자기가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 애당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게 아닌가?!

경식은 자기 마음을 통 알아주지 않는 한지호에 대한 야속스러움을 금할수가 없어서 자기 혼자 속으로 푸념도 해보았으나 마음은 여전히 가뻐지 못하고 더욱더 무거워지지만 했다.

(이젠 어쩌면 종단말인가? 그래 철민이를 이젠 영 중앙선수단에 보낼수 없단말인가?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철민이를 꼭 중앙선수단으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멍청히 서있을가? 빨리 대책을 취할 생각은 안하고...)

그 순간 경식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다. 한창 신지도원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자는 생각이 떠오른것이였다.

(웁다. 창신이를 찾아가서 사정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창신이가 내 부탁을 거절하지야 않겠지.)

경식은 더 다른 생각을 해볼 사이도 없이 한창신이 들어있는 숙소로 단숨에 달려갔다.

마침 창신이가 자기 방에 와있었다.

몸집이 다부지게 생긴 한창신은 이틀전에 경식이 찾아왔을 때나 다름없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러나 경식의 가슴은 느닷없이 두근거려졌다.

《그래 경기구경을 했나?》

경식은 창신이가 권하는 《금수대》한대를 뽑아들며 마치 경기장에서 그를 보지 못하기라도 한것처럼 물었다.

《응, 했어.》

창신은 라이타를 켜서 경식이한테 내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팀이 어떤단가?》

담배연기를 한모금 길게 들이빨았다가 천천히 내보내고난 경식이 다시 물었다.

《괜찮아. 우선 전술이 좋고 또 전술을 수행하

는 선수들의 속도와 투지도 마음에 들네. 하긴 누가 지도를 했다구. 하하하...》

창신이가 크게 소리를 내며 유쾌하게 웃자 경식어도 덩달아서 따라웃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할 말은 잊지 않고있었다.

《여, 그건 동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훈련지도를 하지 않았네.》

《그럼 누가 했나?》

《우리 관장동지가 했네.》

그러나 창신은 자못 놀라운 눈길로 경식을 쳐다보았다.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경식은 그런 창신을 웃음어린 얼굴로 지켜보다가 자기 속심을 털어놓았다.

《그건 그렇고 우리 팀에서 선발해가고싶은 선수는 없나?》

《글쎄...》

창신은 이제 좀 생각해보아야겠다는듯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경식은 창신의 입에서 누구 이름이 불리워질가 하여 속이 한줄만해졌다. 그는 숨을 죽이고 창신의 얼굴을 긴장하게 지켜보았다.

그런데 창신은 어째서인지 인차 입을 열지 않았다.

《왜 8번이 마음에 없나?》

경식이가 기다리다못해 자기가 먼저 입을 열었다.

《8번말인가? 나도 처음엔 체질도 좋고 공다루기도 잘해서 생각이 좀 있었는데 경기하는걸 보니 별로...》

창신은 경식을 서운하게 하고싶지 않아서인지 뒤말을 채 마무리하지 않았다.

경식은 그만 맥이 탁 풀리었다.

하나 그는 인차 자기를 다잡고 철민이를 옹호했다.

《물론 오늘 경기는 잘하지 못했네. 그러나 철민인 정말 재간있는 선수네. 난 그가 앞으로 공화국의 훌륭한 공격수로 자라나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네.》

경식은 창신이가 자기 말을 믿지 않을가봐 겁나는듯 빠른 말씨로 말하며 그의 기색을 련신 살폈다.

《그게 정말이나?》

창신이가 자못 신중한 표정을 짓고 물었다.

《정말 아니면 내가 무엇때문에 거짓말을 하겠나. 철민은 반드시 훌륭한 선수로 될수 있는 아이네. 그러니 그동무가 이번에 철민이를 꼭 선발해가라구.》

경식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생각같아서는 내가 한해 더 데리고있으면서 부족점을 완전히 퇴치시켜서 보내고싶지만 중요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니 양해하라구.》

그리고는 철민이를 이번에 중앙선수단으로 꼭 보내야 할 사연을 자세히 말하고나서 이렇게 발을 달았다.

《우리 관장동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그는 지금까지 십여년간을 중앙선수단도 아닌 이름없는 구역체육구락부에서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왔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어찌겠나. 그러니 내 대신 동무가 책임지고 철민이를 선발해다가 꼭 훌륭한 선수로 키워달라구.》

《알겠네. 그렇다면 나도 반대가 없네.》

경식의 이야기에 감동된 창신이가 쾌히 동의했다.

《창신이 정말 고맙네.》

경식은 너무 기뻐서 창신의 손목을 덥석 틀어잡고 마구 흔들어들었다.

밖으로 나온 경식은 더없는 기쁨과 행복감으로 하여 하늘로 막 날아오를것 같았다. 이제 한지호한테도 제자로서의 도리를 지키게 되고 허승재앞에도 떳떳이 나서게 되었으니 어찌 기쁨이 솟구쳐오르지 않으랴!

경식의 얼굴처럼 하늘도 맑고 해빛도 밝았다. 경식의 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선생님, 뵈습니다.》

희색이 만면해서 한지호의 방으로 들어간 경식은 밀도끝도 없이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한지호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환희에 젖어있는 경식의 얼굴을 의아스레 쳐다보았다.

《선생님, 철민이가 중앙선수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한지호가 여전히 경식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침착하게 물었다.

《네, 한창신지도원이 자기네 선수단으로 선발해가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기분에 들뜬 경식은 한지호의 얼굴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보지 못하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한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안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다.

그제야 비로서 심상치 않은 예감을 느낀 경식은 정색하고 한지호의 거동을 살피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방안을 계속 거닐던 한지호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서더니 경식을 돌아다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래 지도원동문 철민이가 중앙선수단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오?》

《…………》

경식은 한지호가 묻는 속심을 알수 없어서 인차 대답을 하지 못했다.

《왜 대답이 없소? 어서 말해보오.》

한지호의 목소리는 저력있게 울리었다.

《저… 속도와 인내력이 아직 좀 부족하긴 해도 갈수 있다고 봅니다.》

《갈수 있단말이지? … 물론 갈수야 있지. 그렇지만 선수를 키워서 조국앞에 내세워야 하는 우리 체육지도원들은 절대로 자기 량심을 속여서는 안되오. 어디 한번 말해보오. 그래 한창신지도원이 먼저 철민이를 선발해가겠다고 했소? 아니면 지도원동무가 찾아가서 부탁했소?》

《…………》

경식은 한지호가 너무나도 정통을 찌르는바람에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그는 자기를 엄하게 쏘아보는 한지호를 마주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한쪽으로 얼굴을 돌리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얼굴이 화끈해졌다. 하지만 인차 철민이를 중앙선수단에 보내는것이 어디 나를 위해선가 하는 생각이 들자 저도모르게 반발심이 생겨나는것을 어찌는수가 없었다. 했으나 경식은 제자로서의 도의를 잊지 않고 공손히 말했다.

《선생님, 그건 제가 먼저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그렇지만 철민이를 이번에 중앙선수단으로 보내야 선생님도…》

경식은 한지호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말꼬리를 사리고는 그의 기색을 재빨리 살피었다.

《나를 위해서란말이지?》

한지호는 생각깊은 눈길로 경식의 얼굴을 잠시 쳐다보더니 말을 계속했다.

《지도원동무,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소. 그러나 지도원동문 지금 잘못 생각하고있소. 지도원동문

가사

나를 위해 자기 량심까지 속이면서 철민이를 중앙선수단으로 보내자고 하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소? 생각해보오. 조국앞에 떳떳한 선수를 내세우지 못한 내가 그래 철민이를 중앙선수단에 보내고 공훈체육인칭호나 수여받는다고 마음이 편할것 같소? 아니요. 그렇지 않소. 지도원동무, 우리 체육지도원들은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후비선수들을 위해 밀거름이 되어야지. 그들을 밀거름으로 자기가 그우에 솟아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되오.》

한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그 말은 그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지고 경식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려댔다.

경식은 지금에야 비로소 한지호가 오늘 경기에서 무엇때문에 자기가 것처럼 전술을 바꾸자고 하는데 끝내 바꾸지 않았는지 그리고 철민이를 어째서 경기장에 도로 들여보내지 않았는지 석연히 깨달을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껏 것처럼 야속스럽고 민망스럽기만 하던 한지호가 얼마나 돋보이는지 몰랐다.

한지호야말로 자신의 명예나 공명은 조금도 바람이 없이 오로지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고있는 애국자였다.

그런데 자기는 어떤가?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후비선수들을 위해 밀거름이 되어줄 생각보다도 그 어떤 도리를 생각하며 자기 체면부터 세우려고 했으니 이보다 더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 어데 또 있단말인가.

경식은 자기자신에 대한 자책이 크면 클수록 한지호에 대한 존경과 부러움이 더욱더 커지는것을 어찌는수가 없었다.

《선생님!…》

그는 어제날의 그때처럼 한지호를 이렇게 부르고는 고개를 숙이었다.

밖에서는 호각소리가 울리었다.

출발신호처럼 맵짠 소리였다.

황금벌천리

홍진희

기름진 옥야천리 넓은 벌 어디
천석군 부럼없는 곡창은 여기
아 서해라 내 고향의 간석지 천리
주체농사 꽃피는 황금벌 천리

청춘들 잠못들던 천막은 어디
풍년새 나래치는 지평선 저기

아 대대로 버림받던 간석지 천리
10 대전망 빛내이는 행복의 천리

갈숲을 헤쳐주신 진펄은 어디
금나락 물결치는 수평선 저기
아 수령님 사랑넌 천리 간석지 천리
공산주의 노래 높은 락원의 천리

종다리

조재홍

허리에 구름을 휘감고 고원우에 우뚝 솟은 산 중턱으로 하얀 버스 한대가 미끄러져내리고있었다.

버스는 마치 숨박꼭질이나 하듯 한창 잎이 피기 시작한 이팝나무, 붓나무, 마가목, 분비나무 숲이며 몽실몽실한 돌배꽃, 매지꽃 무더기 그리고 아직 은빛안개가 가득한 골짜기에 깜빡 숨었다간 살며시 나타나곤하였다.

버스안에는 웃음소리, 노래소리로 가득찼다. 승객들이 오락회를 벌린것이었다. 아이도, 할머니도, 안경끈 점잖은 손님도 합창을 하고 독창을 불렀다. 출문에서부터 뒤로 두번째의자에 앉은 한 처녀만은 그 모든것에 관계 없는듯 빠금히 열어놓은 차창밖을 내다보며 명상에 잠겨있었다. 둥글납작한 그의 얼굴에서 눈동자가 물기머금은 머루알처럼 유난히 반짝거려였다.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 처녀를 흘겨보던 오락회의장인 차장이 마침내 기회를 얻어 독창을 하라고 벌을 주었다.

《아마나!》

옥실은 깜짝 놀라서 앞에 앉은 양털자켓트등뒤에 얼굴을 숨겼다.

《앤… 종달새라고 빠기던게 오늘은 별랑다야. 농장망신 시키지 말구 어서 일어서!》

자켓트는 옥실을 뿌리치느라고 동실한 어깨를 털었다.

옥실은 몸둘바를 모르며 얼굴이 빨개져 일어섰다.

《거 있잖니, 땡크병하고 같이 지은…<나는야 고원의 종다리>하는거.》

자켓트가 머리를 젖히고 슬쩍 튕겨주었다.

《땡크병》이란 군대때 땡크를 몬 농장프락토르 운전수 인규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그는 재작년 여름 도소재지에 있는 과학연구소 연구사에게 시집을 간 오애주와 기술학교를 같이 다닌 사람이였다. 그는 써클에도 남다른 소질이 있었다.

그가 제대되어 올 때 옥실은 공상가라고 한창 소문이 나고있었다. 엉뚱한 생각을 곧잘 해냈으나 실천할수 없었던것이다. 인규가 아니었다면 그는 정말 공상가가 되고말뻔하였다. 인규가 오자 그의 《공상》은 하나하나 현실로 옮겨지기 시작하였다. 옥실이가 제일 가슴을 앓던 양기르기를 공업화할데 대한 문제도 이렇게 풀려나갔다.

농장에서는 그들 두사람을 보배라고 떠받들었다. 일에 성수난 옥실은 노래까지 지었다. 물론 곡을 붙여서 완성한것은 인규였지만 옥실은 그 노래를 어디서나 지정곡처럼 불렀다.

어느덧 옥실에게는 인규가 허물이 없어지고 돈

보이게 되었다. 그제야 옥실은 자기가 인규에 대해서 사업한계를 넘어선 따뜻한 감정을 품고있다는것을 알았다. 옥실은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도시에 와서 같이 살자는 애주의 간절한 권고를 받고있는터였다. 어쩐지 인규를 대하기가 서먹해졌다. 인규도 그런 눈치를 챘듯싶었다. 어제저녁엔 토론준비를 도와주다가 근심되는것이 있는가고 물었다. 옥실은 따끔한 대답을 할수없어 어물어물 자리를 피해버렸다.

그 바람에 농장의 축산전망에 관한 내용은 채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크게 걱정될것은 없었다. 도소재지에 옥실에게 일을 배워주고 분조를 넘겨준 그 오애주가 있는것이였다.

옥실은 지금도 열정에 넘친 인규의 부리부리한 눈이 자기를 지켜보는것 같아서 얼른 손을 들어 굽실굽실한 머리를 쓸어넘겼다. 그리고는 그 머리아픈 환영들을 털어버리려는듯 생각나는데로 노래를 시작했다. 그통에 그만 한음 낮게 떼고말았다.

불빛 정다운 거리

록음 우거진 공원

예가 나는 좋아라…

노래는 가장 낮고 서정적인 대목에 가서 영 찾아들어버렸다. 옥실은 창피해서 주저앉아 얼굴을 싸쥐었다. 차장은 그거 보라는듯 울퉁한 눈을 썰썰 짙었다. 하지만 한껏 흥이 돋았던 길손들은 그것도 좋다고 너그럽게 웃어주었다.

《목소린 들에 사는 종달새 비슷한데 어울리지 않는 노래를 부르다나니 그렇게 됐구만.》

묵묵히 운전대를 놀리던 운전사가 아쉬운듯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옥실은 더욱 당황해났다. 하필 왜 그 노랫 불렀을가. 하지만 그는 이 순간 어느 노래도 제대로 부를수 없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때 그를 도와준것은 자켓트였다.

《에구, 운전사아주버니두, 그건 실수웨다. 신문 못봤수? 일 잘하구 노래 잘 부른다구 저 창문유리보다 더 크게 난걸. 축산기수에다 양분조장에다 진짜 종다리인 저 애예요, 이번에두 군대표루 뽑혀서 도축산일군회의에 토론하러 간답니다.》

자켓트는 누가 자기 말을 가로챌가봐 겁이라도 나는듯 숨쉴새도 없이 한바탕 쏟아놓았다. 그 말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길손들이 《온-》 《저런-》 하고 머리를 끄덕이며 감탄을 했다. 차장의 울퉁한 눈도 부드럽게 빛났다. 운전사는 한결 마

음이 누그러져서 입을 열었다.

《그렇군, 토론할 생각이 가득한데 불의습격을 받았으니 그럴수밖에... 좋아, 종달새! 올 때도 내가 태워다주겠어. 응?》

운전사는 앞에 가로붙은 길쭉한 거울을 옥실이 쪽에 올려놓고 눈을 크게 떠보았다. 옥실은 차마 그 눈을 떼뻔히 마주볼수 없었다.

길가에 드리운 구름꽃송이며 하들하들한 이빨 나무가지가 차창을 스치면서 훈훈한 향기와 알싸한 햇송진 냄새를 풍기었다. 오락회도 끝이 나서 승객들은 끼리끼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쪽 뒤구석에서만은 아직 근심을 모르는 햇처녀들이 무엇이 좋아선지 히히덕거리었다. 운전사가 차에 있는 라디오를 틀어놓았다. 어느 극장 배우들이 부르는 노래가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옥실은 갈마드는 무거운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가볍게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자 토론을 잘하라고 당부하던 농장사람들과 군의 간부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옥실은 일시에 긴장되었다. 가슴이 뛰놀았다. 제가 한 일이긴 하지만 한다 하는 술한 사람들앞에서 조리있게 토론한다는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대로 판생각을 하고 앉아있을새가 없었다.

옥실은 발걸에 놓은 자그마한 여행용가방안에서 토론원고를 꺼내여 펼치었다. 그속에서 손바닥만한 사진 한장이 무릎위에 떨어졌다. 옥실은 얼른 집어서 토론원고함에 끼워들고 남몰래 들여다보았다.

오애주가 꽃피는 봄날 공원에서 청동사슴등에 포동포동한 아들애를 앉히고 남편과 나란히 붙잡고 서서 찍은것이였다. 온갖 행복을 독차지한것같은 모습이였다. 옥실은 그 행복이 자기의 가슴에 그대로 담속 안기는듯싶어서 도톰한 입가에 방그시 미소를 피웠다. 문득 귀가에는 애주의 편지구질이 쟁쟁하게 울려왔다.

《별게 있니? 너자란 시집을 잘 가야 한단다. 도시생활을 관현악에 맞춘 합창에 비긴다면 촌은 반주없는 독창이나 다름없는거야. 고집을 부리지 말고 오너라. 과학자아빠트에서 동무삼아 같이 살자. 그 사람은 우리 현이 아버지와 한 부서에 있는데 벌써부터 소문을 낸 전도유망한 연구사란다. 도시사람이 될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것을 잊지말아라...》

편지와 함께 사색에 잠긴듯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선이 굵직굵직하게 생긴 멧쟁이 연구사의 사진이 왔었다. 그때부터 옥실의 조용하던 가슴은 바람맞은 숲처럼 설레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한 도급기관에서 일하는 삼촌이 애주에게 끌려가 그 연구사를 만나보고나서 잔말 말고 가을엔 결혼식을 하자고 기별을 보내왔다. 연구사도 옥실의 사진을 보고나서 애주나 삼촌같은분들이 나선 일인데 무슨 의견이 있겠는가고 했다는것이다.

이제 맞선만 보면 일은 다 되는 셈이였다.

예나 지금이나 고마운 애주였다. 양사양공이 된다고 틈없이 뛰던 그때에도 그는 옥실을 얼마나 따끈히 이끌어주었던가! 실로 종달새와 같이 자고 깨며 안개꽃피는 무연한 들판으로 양떼를 몰고 노래를 부르며 다니었다. 그 일본새를 배워서 옥실이기도 고원의 종다리로 불리게 되었고 이번엔 토론을 하는 군대표로까지 뽑히었다.

그 애주가 지금은 도시에서 관현악반주를 받으며 노래를 부를것이었다.

옥실은 토론원고와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아침이슬처럼 더더욱 맑고 아름다와진 목소리로 즐겁게 노래부르는 애주의 그 모습을 어서 보고싶었다.

빠스는 석비레를 다진 도로우로 가볍게 춤추며 달리였다.

×

꽃다리로로 곱게 장식을 한 과학자아빠트는 경절나무, 황철나무 우거진 공원못가에 있었다. 옥실은 두번째현관 3층으로 올라가 《위생모범가정》이라고 쓴 흰종이가 꼭 붙은 출입문을 툭툭 두드렸다. 잠시 기다리자 인적기가 나더니 문이 열리었다. 문간에는 요즘 이곳에서 류행인 미색아닐론세타를 입은 애주가 나타났다. 머리를 반지르하게 빗어넘기고 닭알형의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해서 전보다 몸이 나보이였다. 연한 기미가 있는 당실한 코만 아니면 얼핏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애이고, 우리 종다리가 왔고나!》

애주는 얼굴이 확 피어나서 옥실의 가방을 얹 아들며 맞아들였다. 그의 몸에서는 향수덩어리처럼 진한 향기가 풍기었다. 그치 좋아서 따라들어가던 옥실은 멈칫 멎어섰다. 거울알처럼 반들거리는 노란 장관에 깨긋한 창문이며 한창 꽃이 활짝 피어난 화분들이 그대로 어리여 춤을 춘다. 그 한복판에 갓난애인듯한 현이가 요람속에 묻혀 잠자고있었다. 디디면 장관이 그대로 흔들리며 부서질것만같았다. 그러고보니 애주의 통통한 발에는 배꽃같이 하얀 덧버선이 꼭 붙은듯 신겨져 있었다.

《아니, 왜 그러니?》

애주가 의아해서 돌아다본다.

《어머어마해서 촌뜨기가 어디 들어가겠어요? 호호...》

옥실은 긴양말바람인 자기의 발을 내려다보며 열적게 웃었다.

《요건, 너도 이제 그렇게 돼, 자-어서 들어와!》

애주는 때릴듯 주먹을 쳐들었다가 웃으면서 손을 잡아끌었다. 옥실은 조심히 들어가 치마폭으로 무릎을 가리며 현이곁에 앉았다.

(언닌 어찌면 이렇게 손부리가 여물었을까.)

그는 새삼스레 방바닥이며 꽃포단을 만져보았다. 자긴 그럴것 같지 않았다.

갑자기 현이가 배안의 놀음을 하느라고 오동통한 입을 토끼처럼 호호호물하더니 방그레 꽃처럼 피어났다.

《아이, 요걸 어찌나!》

옥실은 얼른 허리를 굽히고 그러안으며 그의 얼굴에 살짝 볼을 대었다. 상긋한 젖냄새가 말큰 나면서 부드러운 촉감이 사르르 가슴을 녹인다. 옥실은 온갖 시름이 다 없어지는것 같아서 눈을 꼭 감았다. 그러자 애주가 좋아서 호호 웃었다.

《아이참, 어찌니, 그 사람이 출장을 갔는데...》

애주가 갑자기 울상을 지으며 옥실의 얼굴을 건너다보았다.

《언니두, 회의에 왔는데 뭐.》

옥실은 허리를 펴며 곧이곧대로 대답했다. 그리고는 이것저것 주물며 헛손질을 했다. 은근히 미련을 가지고 오긴 했으나 정작 그 말이 나오자 갑자기 어색해졌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연구사라는 그에게 제발로 찾아온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그보다도 당장엔 래일모레 토론할 근심이 머리속에 가득했다. 한데 웬일인지 애주는 이번엔 농장일과 사람들에게 대해선 한마디도 묻지 않는다. 전엔 만나면 그 이야기에 시간가는 줄을 몰랐는데... 그의 이런 어정쩡한 기분을 제멋대로 해석한 애주가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애, 내가 네 속을 모를라구? 걱정말어. 전화를 걸어서 오게 하라구 현이 아버지에게 말하겠어.》

《그만두세요. 괜히 일하는 사람들...》

옥실은 저절로 얼굴이 달아올라서 눈을 내리깔았다.

《일없대두. 현이 아버지가 부서책임자로 됐거든 그렇지? 현이야!》

애주는 현이의 입술을 꼭 빨았다.

《그래요? 그럼 축하해서 이결루 특식용 해자시랴요.》

옥실은 가방에서 비닐보통이를 꺼내여 애주앞에 쑥 내밀었다.

《뭘 울적마다...》

애주는 살짝 흘겨보며 받아들고 주물러보았다.

《완두콩이니?》

《아니, 머루당콩!》

《애두 완두콩이나 가져오지? 당콩은 전번에 보낸것두 그대로 있는데...》

애주는 어깨를 사르르 떨구며 보통이를 뒤에 돌려놓았다.

《언니 머루당콩을 좋아하지 않아요.》

옥실은 놀라서 물었다.

《그것도 한때지, 식성이 변했어, 현이 아버지가 완두콩을 좋아하니깐?》

애주는 그렇지 않느냐는듯 마주보았다.

《네-그래요.》

옥실은 괜히 옷설을 주물렀다. 어쩌면 아저씨한테 저리도 극진할가싶었다. 그걸 진작 알지 못한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그는 어색해서 어쩔바를 모르다가 말머리를 돌리었다.

《참 직장일은 재미나요?》

《그럼, 이게 내 직장이니깐?》

옥실은 턱으로 집안을 휘 둘러보면서 서늘하게 웃었다.

《네에?》

옥실은 깜짝 놀라서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렇게 봐서 그런지 화장은 질게 했어도 농장에서처럼 발랄한 모습은 간데없었다. 그때엔 그가 농장의 종달새로 도일보의 물론 중앙급 신문들에까지 소개되었다. 그러던 그가 일손을 놓다니...너무나도 뜻밖이었다.

《몇군데 나가봤지만 손에 맞지 않는 일은 정말 못하겠더라. 그럴줄 알았더라면 회계나 양복을 배웠을걸. 처녀때두 하늘이 높은줄을 알았어야 했어.》

애주는 한숨을 호 내쉬더니 얼떠름해진 옥실이가 들으라는듯 말을 이었다. 옥실은 야릇한 반발심을느끼었다. 그때 그들은 자기를 생각지 않았다.

아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대로 고원땅에 양떼가 뒤덮이게 하여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그 한마음으로 배우고 일을 했었다. 인규는 그것을 우리시대사람들의 신념이며 량심이라고 말했다 환경이 변했다고 그 귀중한것을 저버린다는것은 말이 되지않았다.

《그렇다고 집이나 지키면 되나요?》

옥실은 눈살이 찡찡해져서 따지듯 물었다.

《역시 천진하구나. 자존심이라는것도 있질 않니? 애 이 시내에 대학을 졸업하구두 집에서 <안 지배인>노릇을 하는 녀자들이 한둘인줄 아니?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하거나 남보다 못하게 사는 건 아니거든. 봐라, 텔레비도 놓은걸.》

애주는 축산기수인 자기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듯 나무라면서 도릿한 턱으로 방안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농장분조휴게실에 있는것과 똑같은 텔레비존수상기 《평양》이 놓여있었다. 옥실은 어쩐지 그것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대학이나 고등기술학교를 다니였는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누구에게나 베풀어주시는 은혜니 웅당 받아두어야 하기때문이란 말인가. 아니면 단순히 시집을 《잘》 가기 위해 서란말인가. 하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집을 가서 주저앉는 뻔뻔스런 녀자들도 있었다.

《그 귀중한 졸업장들을 께짜안에 넣어두고 정말 밥이 넘어갈가?》

옥실은 억이 막혀서 중얼거리었다.

《호호… 네가 그럴줄을 알았다. 나도 첼엔 막 테질이 나가더라. 하지만 애기를 낳구 시간이 가니까 습관이 되더구나. 집안을 거두구 뜨개질을 하는 일에 두 말이다.》

애주는 남편의것인듯 아직 뜨개바늘이 그대로 끼워져있는 아닐론안파와 배구공만한 실토리를 내보이었다.

옥실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어쩐지 웃음이 나가지 않았다. 이것이 어쩔수 없는 진실이나 아닌지도 몰랐다. 다름아닌 애주가 오죽하면 이렇게 되었겠는가, 원예기사인 삼촌어머니도 가내반일을 하고있다. 옥실이 자기도 그들이나 다름없는 녀자였다. 녀자란 남편을 따라가기 마련이고 조건이 그러면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닐까?

(혹시 내가 아직 처녀여서 저런 깊은 심중을 모르는지도 몰라, 에이 그만두자.)

옥실은 깊어질수록 머리가 아파지는 그 생각을 더 하고싶지 않았다. 그는 움쭉 일어서서 하얀 데스톤천에 목란꽃을 수놓은 텔레비존씩우개를 매만졌다. 애주는 옥실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려는듯 뜨개질감을 잡아당겼다. 그바람에 실토리가 데그르 굴러가더니 벽을 받으면서 실이 몇겹 풀어져 형클어졌다.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는 옥실의 가슴은 번잡하기만 하였다. 그는 그 모든것을 견어버리려는듯 실토리를 들고 형클어진 실을 끌라 다시 감으면서 애주곁에 와앉았다. 그리고는 이전처럼 살뜰한 말을 꺼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야기가 잘되지 않았다. 모든것이 아직 생활경험이 적은 자기 탓인듯싶었다. 옥실은 할수 없이 일어섰다.

《네가 그렇게 가면 난 어쩌니.》

애주가 서운한듯 울상을 저었다.

《또 울게. 삼촌한테 인살 해야지.》

옥실은 토론방조를 받는다던것도 감감히 잊어버리고 밖으로 나왔다.

불빛이 환한 거리로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며 걸어간다. 공원너머엔 무엇을 건설하는지 퍼런 용접불빛이 실새없이 번쩍거리면서 아빠트들이며 가로수들을 하얗게 드러내군한다. 지금쯤 밤새소리, 개울물소리 정답고 하늘엔 별이 총총하고 들에선 싱그러운 풀냄새, 구수한 흙내 풍길 고향과는 달리 장엄한 기상이었다.

옥실은 그 모든것이 아름답차서 입술을 감쌀며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있었다.

×

옥실은 끝내 난관에 부딪혔다. 토론에 한해 정도가 아니라 10대전망목표에 근거한 보다 대담하게 폭넓은 결의가 있어야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던것이다. 토론은 래일아침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눈앞이 아득해진 옥실은 토론원고를 앞에 놓고 고심했으나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생각은 뻔해

도 《공상가》인 그로서 혼자서는 그것을 담보할수 없었다. 동무들과 같이 있을 때는 막히는것이 없던 그였다. 옥실은 그제야 자기가 지금껏 그들의 덕을 입으며 살았다는것을 저리게 느끼었다. 떠나기전날밤 자기가 서둘러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도 인규와 이 문제까지 합의를 보았을지 모른다. 그 생각이 들자 옥실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져서 황급히 일어섰다. 그의 눈앞에는 애주의 흰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자 그와 있었던 일들이 되살아나면서 가슴이 산란해졌다.

(아니, 그게 그의 전부일수는 없어.)

옥실은 황급히 도리머리를 했다. 사실 양사양 관리에 누구보다도 능하고 경험이 많은 그를 믿고 그날밤 인규앞에서 서슴없이 물러난것이였다. 안도의 숨이 나갔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과학자 아빠트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옥실이 집안에 들어서자 마주나오던 애주는 방가운데 멎어섰다. 그의 손에는 비행기유리로 만든 펜대가 쥐여져있었다. 어쩐지 그의 얼굴은 침울해보였다. 화장도 하지 않았다. 거울알같은 장판에는 딸랭이, 오토기, 인형 따위들이 되는대로 널려있었다.

(아니?!)

옥실이 영문을 알수 없어서 서있는데 현이가 벌렁벌렁 기여와 애주의 다리에 매달렸다.

《에그, 어쩌나 드세찬지, 엘 좀 데리고 놀아라. 두시간만…》

애주는 팔목에 찬 콩알만한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현이를 들어서 옥실의 가슴에 덥씩 안겨주었다. 그리고는 미안한듯 어슬픈 미소를 지어보이고 웃방으로 올라갔다.

벌써 오후 여섯시다. 옥실은 야릇한 실망을 느끼면서 현이를 안은채 슬며시 따라가 보았다.

애주는 커다란 랑수책상앞에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앉아서 무엇인가 정신없이 들여다보고있었다. 옥실이 다가가자 그는 지친듯한 눈을 들었다.

《이걸 좀 봐라. 통 알수가 없구나.》

애주는 책상우에서 종이장을 집어주었다. 옥실은 열결에 그것을 받아들었다.

새하얀 16절지용지에는 길다란 화학방정식들이 쓰여있고 그것을 설명한듯 가로세로 쓰고 굵고 또 길고 짧은 글줄들과 선들이 가득차 있었다. 그누군가의 고심어린 탐구의 산물이였다. 옥실은 정신을 가다듬고 뜯어보았으나 얼핏 리해가 가지 않았다.

《모르겠는데… 누구의?》

옥실은 종이장을 돌려주며 묻는 시선을 쳐들었다.

《오, 현이아버지의 학위논문이야. 필사를 해줬

더니 연구소에 나갔다 와선 망신만 했다고 성을 내면서 또 까맣게 만들어놓질 않겠니. 기계적으로 했으니까 별수 없지.»

애주는 정말 맥이 난다는듯 의자등받이에 팔을 걸치었다.

《저녁에 들어오면 물어보고 쓰라요.》

《허이구, 그사람이 퇴근을 해? 실험실에 비품처럼 들어앉아서 해가 뜨는지 지는지도 모른다. 처음엔 나를 데려다놓고 빨간 능금알 대하듯했지만 지금은 선참의만큼도 안여기거던. 이것두 9시까지 무조건 써내오라는데 뜻을 모르니 문장조차 맞출수 없구나.》

애주는 가느다란 한숨을 호 내쉬었다. 눈에는 서글픔이 어렸다.

《원 언니두, 타발질은...》

옥실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살짝 가로보았다.

《그러지 않게 됐니? 아이, 저걸 어째...》

애주가 잡자기 발딱 일어섰다. 현이가 말썽많은 그 종이장을 어느 틈에 와락 그러쥐고 입에 가져갔던것이다. 애주가 빼앗으려 들자 현이는 도리머리를 하면서 더 꼭 틀어쥐었다. 그바람에 종이장이 쭉 찢어지고말았다. 애주는 성이 나서 현이를 무섭게 쏘아보았다. 현이는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었다.

《애보고는 왜 그래요. 오, 용타, 울지마.》

옥실은 현이를 꼭 끌어안았다. 자기가 한대 얻어맞은것처럼 머리가 멍했다. 그는 눈을 홑뜨며 애주를 새삼스레 다시 보았다. 애주는 토끼처럼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울상이 되어 구겨든 종이장을 편다. 양떼를 몰고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 기둥들이 휩쓸려다니는 들판으로 다닐 때에는 종다리라 불리던 그였다. 그 고원의 종다리가 화려하고 아늑한 방안에 조롱속에 갇힌 새처럼 맥을 놓고 앉아있는 모양이란 가련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아저씨가 만일 축산일꾼이나 연구사였다면 그들은 기술과 경험을 서로 나누며 얼마나 보람있게 살며 일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부지중 들었다. 순간 옥실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가 생활에 애착을 가지고 노력했다면 부문은 달라도 기수인데 왜 남편의 논문을 필사야 제대로 못해주겠는가. 그러면 남편의 사업이 그에게는 관계가 없다는 말인가!

옥실은 애주에 대한 자기의 믿음이 통채로 흔들거리는것을 느끼었다. 하지만 손에 인이 박힌 그몸에 뻔 그 생활이야 가지고있겠지 하는 기대만은 버릴수 없었다.

《언니, 래일 토론할 원곤데 좀》

옥실은 토론원고를 애주앞에 슬그머니 내놓았다. 애주는 토론원고를 한참 뒤적거리더니 부러운 눈매로 옥실을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어깨를

떨구며 토론원고를 밀어놓았다.

《내가 거기 머릴 쓸새 있니?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네? 그걸 잊어요?》

옥실의 입은 저도모르게 벌어졌다. 눈앞이 흔들거리는것 같았다. 아무리 봐도 애주는 고원에 있을때 그렇게 높이 보던 그 애주가 아니었다. 그 생각에 머루당콩, 뜨개실, 자기 만족에 잠겼던 그의 얼굴, 남편에 대한 투정... 이런 일들이 지긋게 감겨들었다. 그렇다, 그는 사회와 집단보다도 자기를 더 생각하고있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산다는 신념을 잊어버리었다. 그래서 생긴 남에 대한 의존심이고 투정질이였다. 옥실은 오싹-소름이 끼치었다.

《언니 지금 뭘 위해서 살아요?》

옥실은 반발하듯 물었다.

《애, 새삼스레 그건 무슨 소리냐? 내겐 가정이 있지 않니.》

애주는 옥실이쪽으로 슬며시 돌아와앉았다.

《가정? 아니예요, 언니에게 그건 변화한 도시에서 살기 위한 위장물 같아요.》

옥실은 완강히 주장을 했다.

《야, 너 정신이 나가지 않았니? 그말을 다시한번 해봐라!》

애주는 몸을 일으키며 옥실의 팔을 거머쥐었다. 피기가 가셔진 그의 알팍한 입술은 파르르 떨리었다.

《언니가 그래두 난 말을 해야겠어요. 고원이 좁다하게 노래부르며 다니던 언니 어디로 갔어요? 때와 환경이 변하면 자기의 노래도 쉼버리는 새는 종달새가 아니라 칠면조예요, 칠면조!》

옥실은 저절로 격해져서 눈물이 솟아올랐다.

《오, 지금은 아무 감투나 뒤집어씌우기 쉽지? 하지만 너도 이제 그런 감투를 쓰게 된다는걸 잊지 말아라.》

애주는 파리에진 입가에 어설픈 웃음을 지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맥없이 옥실을 건너다보았다.

《.....》

옥실은 그만 말문이 막혔다. 사실 자기도 과학자아빠트에서 동무삼아 함께 살자는 애주의 편지에 순간이나마 공감했던것이 아닌가!

《걱정말아요. 그러나 난 결코 언니처럼은 살지 않겠어요. 그러다간 사람들에게서, 사회에서 버림을 받아요.》

옥실은 애주에겐지 자신에겐지 모르게 부르짖었다.

《야, 난들 속이 편한줄 아니? 그래 네 생각엔 나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것 같으냐?》

한참이나 입술을 감뻘며 앉아있던 애주가 결심

한듯 물었다. 폭 늙은것 같은 그의 눈엔 물기가 그렇게 피었다.

《!.....》

옥실은 그 눈길을 피하고말았다. 그에게도 이렇다 할 확고한 결심이 없었던것이다. 이 순간 애주에게 것처럼 큰 기대를 걸고있었던 자신을 발견하자 그는 더욱 당황해졌다. 그는 어떻게 현이를 내려놓고 토론원고를 불안은채 밖으로 달려나왔는지 알지 못했다.

시원한 공기를 들이키자 정신이 들었다. 그러나 가슴에 얹힌 배반당한듯 야릇한 감정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다. 이제 그가 바라볼수 있는것은 같이 들판으로 양을 몰고 다니던 동무들밖에 없었다. 그 생각이 들자 그들이 눈물이 날만큼 그리워졌다.

옥실은 체신소로 달려갔다. 그는 접수원처녀에게 독촉을 해대며 시외전화를 신청했다. 전화가 걸속되자 경비원아바이가 나왔다. 그는 이것저것 묻더니 인규와 바뀌주겠노라고 했다.

(그가 어떻게 해결가?)

옥실은 느닷없이 가슴이 두근거리었다. 그는 입술을 감쌀며 수화기를 매만졌다.

《옥실동무요?》

한참 웅성웅성하더니 인규의 절절한 목소리가 곁에서처럼 들려왔다.

《아이, 안녕하세요?》

옥실은 너무 반가와서 눈을 슴벅거리며 수화기를 귀에 짝 댔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농장의 축산전망에 대해서도 토론해야겠기에...》

옥실은 저도모르게 말꼬리가 흐려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전망에 대해서? 동무가 말이요?》

옥실이가 전화를 걸게 된 사연을 들은 인규는 잠시 생각하는듯하더니 《그렇소? 반갑소... 그러지 않아도 동무가 떠난 뒤에 동무들과 토론이 있소...》 인규의 음성은 활기를 띤듯싶었다. 그는 방목지를 새롭게 꾸리는 문제, 사료문제, 품종개량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조리있게 말해주었다. 옥실은 원주필을 꺼내들고 한자라도 농칠세라 부지런히 받아 적었다. 눈앞이 확 열리었다.

《그럼 토론을 잘하요.》

인규가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했다. 옥실은 그 말이 별로 가슴에 쿵 댕쳐와서 눈을 슴벅거리다가 다시듯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그는 날개가 돋친듯 가볍게 밖으로 나왔다. 시원하게 트인 농장쪽하늘가에는 총총한 별무리를 거느리고 은대야같은 둥근달이 떠있었다.

홍분에 젖은 옥실은 생각에 잠긴 애주가 자기

에게로 다가오지는 못하고 어스크레한 가로수 그늘밑에서 서성거리고있다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

해가 뜨자 거리는 온통 금빛으로 물들었다.

시원하게 뻗은 포장도로옆에 늘어선 아빠트들이 번쩍거리고 룩각형보도 볼록코를 산뜻하게 깎다님길에서는 아지랑이가 아물거리기 시작하였다.

옥실은 해빛무늬가 아롱거리는 가로수밑으로 천천히 걸었다. 그는 턱을 약간 쳐들고 빛나는 눈으로 한창 출근길에 바쁜 사람들을 여유있게 바라보았다. 모든것이 정답고 즐거웠다. 만일 여기가 종달새 우짖고 양떼 흐르는 푸른 들판이라면 노래라도 한마디 부르고싶었다. 얼마나 격동되었던지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 대해 말하라면 한마디도 할것같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단에 나섰는데 그중해서도 옥실의 토론이 제일 인기가 있었다. 휴식시간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도면을 그려달라, 경험을 이야기해달라 지못게 요청하였다. 기자들이 와서 록음을 하고 사진도 찍었다.

옥실은 그 가슴뿌듯한 순간들을 되새겨보면서 거리를 걸어갔다. 그의 눈앞에는 양떼 흐르는 고원이 펼쳐지고 지금처럼 포전길에 은빛해살이 퍼지던 어느날 아침에 있는 일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 인규와 옥실은 단번에 수십마리의 새끼양을 인공적으로 젖을 먹여 키울수있는 기계를 만들고있었다. 이력저력 본체는 되었으나 농장의 설비로 젖꼭지들을 어미양것처럼 작용할수 있게 만들어 낼수 없었다.

《안되겠소. 내 군농기계공장에 신키가 만들어 오지.》

거듭 실패하고 또 한밤을 밝힌 인규가 머리를 들었다. 그는 넘려말라는듯 히죽이 웃어보이고는 트랙토르를 몰고 떠났다.

벌써 아침해가 솟아올랐다. 해살이 온 들판에 퍼지자 풀잎에, 나무잎에 맺힌 수억만의 이슬방울들이 은구슬처럼 반짝거리었다. 그 사이사이로 연한 땅김이 하늘하늘 피어오르고 여기저기에 하얀 안개꽃이 피었다. 그우로 마치 떠가듯 새빨간 《천리마》가 통통거리며 달려간다.

만일 처녀들이 아침밥을 내왔다고 떠들지만 않았던들 옥실은 그 황홀한 세계에 홀딱 정신을 뺏기고말뻔했다. 그때 그는 또한 인규가 아침을 먹지않고 80리길을 떠났다는것을 깨달았다. 트랙토르는 은구슬, 안개꽃, 은빛해살이 아롱거리는 들저쪽으로 가물가물 사라져간다.

옥실은 밥보자기를 부둥켜안고 뒤마당으로 달려갔다. 눈이 검고 뒤페가 가다든 《파마》가 반갑다는듯 길다란 대가리를 주억거리었다. 옥실은

말의 불을 몇번 다독여주고는 기름기가 번지르한 잔등에 뛰어올라 채찍을 었었다. 말은 오홍-하고 한번 소리를 지르더니 네굽을 안고 달리기 시작하였다. 옥실은 바싹 허리를 굽히고 목이 짧은 파란사출장화를 신은 자그마한 발로 말배때기를 그냥 찼다.

은구슬들이 커졌다 작아졌다 엇갈리면서 춤을 추고 안개꽃이며 들우로 구울던 땅김이 명주필처럼 말발목에 휘감기였다. 휘, 휘익 싱그러운 바람이 귀뿌리를 스치면서 휘파람소리를 낸다. 술 많은 머리에 꼭 졸라쓴 빨간 머리수건끝이 뒤머리를 간지럽히며 팔팔 날린다. 저마끔 널려 풀을 뜯던 양들이 우르르 따라오다가 길가에 멎어서서 턱을 쳐들고 매애, 매애에-운다.

길옆 수풀속에서 꿩들이 놀라 날아갔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구경하려는듯 미출하게 자라오른 마가목나무꼭대기로 기여오르던 다람쥐한마리가 기장쌀알같은 눈을 딱 부릅뜨고 프락포르 총각과 말란 처녀의 경기를 내려다보았다. 옥실은 끝내 프락포르를 따라앞서고야말았다. 프락פור트는 말을 떠받기라도 할가봐 흠칫 놀라며 멎어섰다.

옥실은 밥보자기를 인규앞에 내밀었다.

《아니, 이게 뭐요?》

인규는 눈이 둥그래졌다.

《아침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이건 동무것이 아니요?》

《저야 가서 먹지요.》

《고맙소!》

인규는 두손으로 밥보자기를 받았다. 그는 한참 눈을 습벅습벅하더니 생각나듯 호주머니에서 네절로 접은 흰종이를 꺼내었다.

《가사를 좀 고쳤소. 마음에 들겠는지…》

옥실이가 쓴 양몰이공처녀의 노래였다. 그는 반가와서 펴보았다. 며칠전에 봐달라고 준것인데 벌써 곡까지 깨끗이 붙여놓았다.

《수고했어요!》

옥실은 기뻐서 인사를 했다.

《별소릴 다… 가만, 저걸 보오!》

인규가 문득 하늘을 가리켰다. 손을 잠그면 팔랑게 물이 들것처럼 맑고 장쾌한 하늘에 종달새 한마리가 아득히 높이 떠서 팔랑거리며 설새없이 떠들어대고있었다.

《난 저 새가 제일 좋소. 제 근본을 잇는 법이 없거던. 그러니까 늘 저렇게 한가지 노래를 부른단말이요. 이번엔 종다리에 대해서 써보오.》

인규는 기다리겠다는듯 머리를 한번 끄덕여보고는 프락포르에 올라앉았다. 프락פור트는 탕탕대지를 구르며 명주필을 펴놓은듯 곧추 뻗은 길

로 거침없이 달려갔다. 옥실은 프락포르가 길과 함께 저멀리 숲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있었다… 무엇때문에 이 변화한 거리에서 문득 그 생각이 되새겨지는지 그는 알수 없었다.

《난 저 새가 제일 좋소. 제 근본을 잇는 법이 없거던. 그러니까 언제나 한가지 노래를 부른단말이요.》

인규의 그 말은 새삼스러운 뜻으로 거듭 귀가에서 울리었다.

옥실은 눈을 꼭 감았다. 정말 종다리는 격에 맞지않게 두가지 노래를 부르는 법이 없었다. 자기가 사는 들에 대한 그 한 노래밖에 몰랐다. 하기에 늘 즐거웠고 언제나 희망에 넘쳤다. 옥실이라도 그랬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들을 가꾸기 위하여 축산기수라는 한가지 《노래》를 배웠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마음껏 그 《노래》를 불렀다. 그때는 희망찬 래일에 대한 즐거움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며 보람이었다. 그런데 옥실은 순간이나마 생명보다 귀중한 그것을 버리고 자기를 떠나서 그 무슨 물거품같은 《사랑》을 벌려고하였다. 그런 처녀들은 애주처럼 자기 생활에 대한 주장도 신념도 없이 허둥거리기마련이다.

(아니, 나는 그렇게 살수 없어! 일시적인 유혹에 빠져 그 노래를 버릴수 없어!)

옥실은 자기에게 달라붙었던 《벌레》를 단번에 다 털어버리려는듯 완강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제야 그는 종달새에 대한 노래를 쓰라고 하던 인규의 말의 참뜻을 새삼스럽게 느끼었다. 그러자 종달새 우짖고 양떼가 굴실굴실 흐르는 푸른 고원이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웅심깊은 인규며 웃기 잘하는 처녀들이며 인정넘치는 아바이와 애주머니들의 얼굴이 커다랗게 떠올랐다.

가자, 행복의 노래, 사랑의 노래 넘치는 푸른 들로!

옥실은 주먹을 꼭 쥐고 종종걸음을 쳤다. 가슴속에서는 종달새에 대한 노래가락이 구절구절 흘러들었다.

빠스정류소에는 벌써 시외빠스들이 나와있었다.

《어, 종다리, 여길 오라구, 여기!》

누군가가 반갑게 소리쳤다. 돌아서 보니 저쪽에서 똥똥보운전사가 빠스문을 활짝 열어놓고 손짓을 하고있었다. 반가와서 달려가던 옥실은 멍칫 멎어섰다. 버드나무밑에 누가 서있었다. 외판실버들 그늘밑에 오도카니 서있는것은 애주였다. 옥실은 그의 앞으로 달려갔다. 밤새 별로 해쓱해진것 같은 애주의 볼에는 숨털이 보르르 살아났다. 이 순간 옥실은 그 애주가 보잘것없이 작고 아득히 눈아래 내려다보이는것을 느끼었다.

《난… 네가 다시 안울줄을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잠시 머뭇거리던 애주가 눈을 내리깐채 힘겹게 말을 뱉었다. 그 목소리는 어딘지모르게 처량하였다.

《미안해요. 빨리 갈 생각만 하다가니 그만…》

옥실은 진정으로 사과했다. 그리고는 말을 이었다.

《그 사람에겐 자기에게 어울리는 녀자를 택하라고 하세요.》

애주는 알릴듯말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나두… 밤새껏 생각해봤다. 옳다! 네가… 내가 그만 들켰잖어.》

애주는 무엇인가 잠시 생각하더니 용단을 내린듯 간청했다.

《가거든 사람들에게 내 말을 하지 말아줘. 당분간만…》

《알겠어요. 언니, 내가 너무했지요? 하지만 이번엔 난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겠다는 그 신념, 그 양심을 저버린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할수도, 행복할수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았어요. 언니 자기로 돌아가자요. 난 들종다리가 되구 언닌 도시종다리가 되구… 그래서 영원히 함께 충성의 노래를 부르자요!》

옥실은 애주의 동그란 어깨를 꼭 그러안으며 속삭이였다.

《응, 고마와, 어서 타!》

애주는 옥실의 등을 밀었다. 그의 커진듯한 눈에는 맑은 이슬이 맺혀있었다.

빠스안에는 손님들이 가득 타고있었다. 옥실이 가다가가자 운전사는 문앞에서 나무토막같은 팔을 차단봉처럼 쳐들었다. 그리고는 손님들에게 다 들으라는듯 트집을 걸었다.

《가만! 회의에서 토론을 했잖다, 도일보와 도방송에도 났잖다 한턱 내야지.》

《노래를 내지요…》

옥실은 저절로 즐거워져서 웃으며 룡을 받았다.

가사

압록강이 굽이도는 산마루에서
장군님 따라 바라보니 고향이 안겨오네
백살구꽃 만발한 정다운 그 언덕
아, 가고싶네

눈물속에 두만강을 건느던 날엔
언제면 다시 돌아가랴 멀고도 멀던곳

《여러분, 들었지요?》

손님들이 웃으며 대답하자 운전사는 제일 앞자리에서 총각을 뒤로 쫓고 옥실을 앉혔다. 그리고는 말없이 빠스를 몰았다. 시내를 벗어나고 농촌마을을 지나서 숲이 우거진 평길에 들어서자 운전사는 눈이 울롱한 차장에게 코살을 찡긋해보였다. 차장은 알겠다는듯 호호 웃더니 엉거주춤 일어서서 이슬골의 종달새가 노래를 부르겠노라 소개했다.

옥실은 손님들쪽으로 반쯤 돌아앉았다. 그는 잔 기침으로 목을 약간 다듬은 다음 스스럼없이 노래를 뱉었다.

하늘엔 두둥실 흰구름 뜨고
푸르른 들판엔 양떼 흐르네
나래편 종다리야 빠가지 말아
고원의 종다리가 여기 있단다
랄랄랄 즐겨워라
나는야 명량한 양물이공쳐너

1절이 끝나자 빠스가 터질듯 요란한 박수가 터졌다. 성급한 축들은 참지 못해서 《재청-》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지 않아도 옥실은 그 노래를 자꾸만 부르고싶은 심정이였다. 그가 쓴 가사를 다름아닌 인규가 다듬고 곡을 붙인 그 노래였다.

하늘의 흰구름 사라져도
고원의 흰구름 늘어가네
너는야 하늘의 종다리
나는야 고원의 종다리
랄랄랄 흥겨워라
다같이 기쁨을 노래부르자
………

빠스는 노래를 싣고 웃음을 싣고 춤추듯 가볍게 달리였다. 구름을 허리에 휘감은 아흔아홉굽이 평길도 단숨에 날아넘었다. 종달새 우짖는 푸른 고원이 반기며 둥실둥실 마주 달려왔다.

그리운 고향 산천아

김정호

장군님을 모시고 고향을 그리니
아, 눈앞인가

사랑하는 어머니 조국산천아
기다려다오 해빛넘친 해방의 그날을
장군님을 따르는 오직 한길에 아, 밝아오리

수 표

김관일

상쾌한 아침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게 아아한 건설장에 수물처럼 일떠선 육중한 철물골조들과 각종 배관들이며 트라스와 철탑들은 밤새 내린 흰눈에 수북이 덮여 지금은 자기의 우람찬 위용을 동화적인 부드러움으로 바꿔버렸다. 그 건설장과 조금 떨어져 안침진곳에 조용히 자리잡은 어느 한 집의 골짜기에서는 흰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앞의 트랙에서는 자동차가 부르릉거리고있다.

어디를 둘러보나 온통 눈, 눈천지였고 그 아름다운 백설우에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내려 가끔 바람이 불어칠 때마다 뽀얗게 날리는 눈가루들이 미세한 유리조각들처럼 신비하게 반짝거린다.

집안에서 배낭을 불룩하게 꾸러가지고 나오던 귀섭은 청신한 아침공기에 취한듯 고개를 한껏 젖히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지 이제 겨우 1년반이나 되나마나 한, 귀밀에 숨털이 보르르한 귀섭의 얼굴에는 어느덧 흥조가 피어오르며 웃음기가 남실거렸다.

귀섭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모든것이 그저 즐겁기만 했다. 그도 그럴것이 오늘은 근 한해동안에 걸쳐 강철구조물들의 용접을 끝내고 이곳 이동작업지에서 철수하는 날인것이다.

그는 마치도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한, 또 느낄수도 없는 그야말로 멋진 기쁨을 유독 자기 혼자만이 특전으로 누린것 같은 그런 심정이였다.

벌써 그는 집안에서 자동차적재함으로, 또 자동차적재함에서 집안으로 분주히 드나들며 안절부절을 못하였다. 이번에도 불룩한 배낭을 자동차적재함에 던지고보니 무엇인가 또 미흡한 점이 있는것 같아 집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방안에서는 아직도 신병서가 울방자를 틀고앉아 셈평 좋게 면도를 하고있었다.

《야참, 아직도 멀었어요?》

《자 이런, 그렇게 보챌다구 빨리 떠나는데 아니야.》

《그럼요》

《인계문건에 수표를 해야 떠나지. 몇번이나 일러줘야 알겠어?》

《수-표라구요?!...》

그제서야 귀섭은 아까부터 신병서가 몇번이나

꼭집어 일러준 사실- 즉 용접구조물의 인계문건에 수표를 해야 한다는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물어본 경망한 자기를 탓하며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렇지만 이동작업이라고는 이번이 처음인 귀섭에게는 그 수표라는 말의 표상이 머리속에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그건 아마도 간부사업을 하는 위풍있은 사람들이 사무실에 척 앉아 보기만해도 어마어마한 서류들과 비준문건들에 결재를 하는 그런 수표를 말할가?...

하나 그것은 자기들에게는 너무도 분수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건설장에 있는 깍쟁이같은 창고장 아바이가 용접봉을 얼마 출고했음, 얼마 반환했음하는 따위의 확인서에 수표하는 까다로운 규정 같은것말인가. 만일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학교때 장난꾸러기였던 자기가(물론 지금은 여전한 용접공이지만)식수사업을 나갔다가는 그 《소년단림》의 어구에 놓여있는 블록요다 손칼로 보란듯이 자기 이름을 새겨넣던, 그것도 이름 세글자의 마지막 획만은 획 휘둘러서 멋을 부리는것을 잊지 않던 그런 수표일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보았으나 종시 아리송하였다. 했으나 귀섭은 뜻내기용접공인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자기도 그런 수표쯤은 알고도 남는다는듯 짐짓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병서를 바라보았다. 그새 면도를 끝낸 병서는 안전면도들을 풀며 모자채양처럼 주뿔하니 일어선 앞머리카락을 버릇처럼 쓸어내렸다. 그러나 워낙 그의 성미를 닮은듯 총이 센 앞머리카락은 좀처럼 수그러들줄 모르고 더욱 뻗두룩하게 일어설뿐이였다.

그러한 신병서의 《모자채양》을 가리켜 건설장의 사람들은 《고집불통의 상징》이라는 악의없는 별명을 붙여놓았다.

원래 머리총이 센 사람치고 고집없는 사람은 없다지만 병서의 《고집》은 고집중에서도 여간한 고집불통이 아니라는것이였다.

용접고급기능공인 병서는 때때로 용접의 변형과 응력계산문제에 대하여 사람들과 곧잘 다투곤 했으며 그때마다 처음 주장한 자기의 《고집》을 조

금도 철회하는법이 없이 끝까지 내우기군하였다.

그런데 병서의 《고집》도 전혀 이유없는것이 아니었으니 그것은 론쟁끝에는 결국 그의 《고집》이 언제나 정당했다는것이 실천적으로 증명되군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대양 알곳게도 정확한 실천적리론으로 튼튼히 안받침된 그의 턱없는 《고집불통》앞에 나중에는 수그러들지 않을수가 없어 이마를 열적게 문지르며 이렇게 중얼거리군했다.

《하긴 병서야말로 진짠 진짜용접공이여. 그의 <고집>도 신념이 있는 고집이거던…》

하긴 그뿐만이라면 좀 좋으랴.

《고집불통》이 아니고서도 그에게는 본위주의자라거나, 도덕적으로 불손하다거나 하는 따위의 달갑지 않은 별명들이 여러가지나 붙어있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무리 바쁜 경황에도 남에게 방조를 받는 법이 없었고 또한 옳지 못한것을 보면 자기보다 못사람인 경우에도 맞대놓고 직성을 터트리군했던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아무리 바쁜 용접과제가 제기되어도 남의 방조가 없이 자기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해낸다는데 있었으며 언제나 자기의 용접품에 대해서는 남의 기술이 아닌 자기의 기술로써 책임적으로 담보한다는데 있었다.

그리고 못사람이나 지휘관들과 간혹 다투면서도 그것은 언제나 용접문제에 한할뿐 생활적으로는 무점 좋고 서글서글한 그의 사람됨이 그저그만이어서 그런 때면 누구도 그의 《불손한 도덕품성》에 대하여 상기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그처럼 험상궂은 문구로 가득찬 그의 별명들은 결국 진짜용접공이란 응당 그래야 한다는것으로 설명되군하였다.

그리하여 건설장의 사람들은 용접리론상 론의거리가 제기되면 항상 그 해명을 위해 《고집불통》의 조언을 바라군했고 책임적인 용접을 요할때면 《본위주의자》를 불렀으며 또한 오락회때면 언제나 《불손한 사람》을 청하군 하였다.

온 건설장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신병서를 귀섭은 내심 존경하였고 부럽게 여기었다. 그는 병서의 능숙한 용접습씨만이 아닌 용접공으로서의 그의 배짱이라든가 일거일동까지도 그를 닮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 하여 오늘에는 어지간한 용접쯤은 자립적으로 해제낄수 있는 기능을 소유하게 된것이다.

…조용하던 건설장에 갑작스레 어디서 들이닥쳤는지 알수 없는 강한 바람이 휩쓸며 눈가루를 세차게 날리기 시작하였다. 병서는 미간을 찌프리며 창박을 내다보았다.

《심상치가 않은걸… 귀섭이, 중기계직장엘 좀 갔다오라구. 최아바이가 아직까지 안오는걸 봐선 무슨 일이 생긴거야.

무슨 인계가 이렇게 오렐수가 있나?…》

박을 내다보며 걱정스럽게 뇌이는 병서의 말이였다.

세명의 단출한 이동작업성원들의 유일한 책임자격인 최현오는 중기계직장의 용접품을 인계해 주러 나갔는데 여적 들어오지 않는것이다. 어제 오전부터 시작한 인계사업은 대체로 어제 다 끝내고 오늘은 중기계직장의 용접품만 인계하면 되겠는데 무슨 시간이 이리도 오래 걸리는지 알수 없었다. 자동차가 앞마당에서 부르릉거리며 대기하고있는데 아직도 안나타나다니…

얼마간 시간이 흘러서였다.

병서가 마당에 나와 옷웃을 벗어붙이고 세면을 하고있는데 뒤쪽에서 누군가 다급히 달려오는 발자국소리와 함께 숨넘어갈듯한 웨침이 들려왔다. 귀섭이였다.

중기계직장에 달려갔던 그가 먼발치에서부터 뭐라고 손시늉을 하며 급하게 달려오는품이 어딘가 심상치가 않았다.

《병서동지- 사…사고났어요!》

《사고라니?!…》

자동차기관실뚜껑을 열어젖히고 점화전에 불꽃을 딱딱 일으키던 운전사도, 병서도 얼머름하여 다우쳐몰었다. 그런데도 귀섭은 그냥 가슴을 부들켜쥐고 숨을 헐떡거리기만할뿐 앞뒤가 없는 말마디를 내뱉는것이였다.

《글쎄… 저기 중기계직장에서… 트라스가… 그래서… 최아바이랑 검사과장이랑… 지금 막…》

《트라스가? … 트라스가 어쨌다는거야?》

《글쎄 막… 야단이라니까요…》

《제길, 어떻게 된일인지 좀 차근차근 말해야 알게 아니야. 운전사동무, 한번 가보지요.》

병서는 옷웃을 대강 걸치며 급히 자동차운전칸에 올라탔다. 자동차는 흠칫 동체를 떨며 방향을 돌려 중기계직장쪽으로 달렸다.

×

랭랭하고 싸늘한 공기가 드리운 중기계직장의 트라스꼭대기에는 몇몇 검사원들이 올라가 트라

스의 길이와 수직길이를 재며 극히 실무적인 표정으로 책에 무엇인가 적어넣고있었고 트라스의 용접부를 유심히 관찰하기도 하였다. 그밑에서는 최현오와 며칠전 공장을 인계받기 위하여 내려온 검사과장이 땅바닥에 도면을 펼치고는 심각한 낮빛으로 도면과 트라스를 번갈아 바라보고있었고 그 주위에는 술한 사람들이 모여서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다만 현장검증에 필요한 후랏슈가 달린 특수사진기가 없을뿐 용접부를 유심히 관찰하는 검사원들의 실무적이며 예민한 표정이라든가 트라스의 평방면적당 하중을 계산하느라 도면에서 수치를 뽑고있는, 거울진 체격을 가진 검사과장의 무게있는 거동은 반탐일꾼들의 그것과 조금도 다를바 없었다.

신병서는 비좁게 운집한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그들앞에 다가섰다.

《무슨 일입니까?》

불쑥 던지는 병서의 말에 도면에 눈길을 주고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고개를 쳐들었다. 지금까지 그들사이에 피아노선마냥 켜기여진 팽팽한 침묵을 불쑥 깨뜨린 그 거침은 목소리의 임자를 사람들은 놀라운 눈길로 훑어보았다.

《동무가 이 트라스를 용접했소?》

거울진 체격의 검사과장이 묻는 말이었다. 그러는 그의 눈에는 마치 감마촬영기의 엑스광선과도 같은 날카로운것이 깃들어있었다.

《내가 했을수도 있지요. 어느 트라스말입니까?》

병서는 검사과장의 시선을 태연히 받으며 웅수하였다.

《저 7호트라스 하현제말이요.》

병서는 고개를 들어 트라스를 바라보았다. 7호트라스라면 바깥쪽으로 맨끝의 투라스이다. 그러나 밑에서 바라보기에는 별다른것이 눈에 띄우지 않았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병서의 의아쩍어하는 질문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듯 입을 꼭 다물고있는 그들의 태도에는 대답없는 침묵으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하려는 기색이 완전한듯했다.

더우기 엷음엷음한 주름살이 이마에 가로 건너간 최현오의 얼굴에는 짙은 의문이 어려있었다. 귀밑머리가 희숙해지도록 견습공시절부터 병서에게 용접을 가르쳐온 최현오는 지금 입에 빗장이라도 지른듯 어지간히 노여운듯한 표정으로 말없

이 그를 바라보고있는것이였다.

잠시후에 검사과장이 말하였다.

《도면에 의하면 트라스상체의 무게를 저 하현제의 천정용접으로 담보하게 되어있소. 천정용접으로!...그런데 한번 보오. 도대체 용접이 무슨 꼴인가!...》

검사과장의 활촉같은 집요한 눈초리가 최현오를 거쳐 신병서... 그리고 귀섭에게로 향해졌다.

사람들의 뒤전에 물러서서 검사과장의 눈길을 받은 귀섭은 흠칫 놀라며 낮빛이 해쓱하게 질렸다. 웅덩그렁하게 개방된 중기계직장안으로 휘휘 불어치는 감때사나운 눈바람이 후령후령한 그의 작업복웃자락을 뚫꼭처럼 한껏 불구며 사정없이 마구 걷어차는바람에 귀섭은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고 서있었다. 새파랗게 질린 그의 두입술사이에서는 아래웃이를 덜덜덜 쪼아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지금 귀섭에게는 난생처음으로 당하는 이 모든것이 너무도 어마어마하고 심각한것이여서 그저 아래도리가 후들후들 떨릴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자기들이 한해동안 매일과 같이 일해온 결과가 이처럼 심각한 책임을 요하는 일이라고는 생각지 못한 그였다.

비맞은 수탉처럼 초췌해진 귀섭의 물골을 마뜩잖게 흘겨보고난 병서는 사다리를 타고 트라스꼭대기로 올라갔다.

트라스하현제의 중심편결부에 검사원들이 백묵으로 표기한 하부내통의 천정을 유심히 살펴보던 병서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천정용접부의 어느한 부분에 쇠물이 모재의 량쪽에 균등하게 용착되지 못한것이였다.

도대체 그 용접을 누가 했는가?

최현오는 주로 고도작업보다는 밑에서 일하였기에 그것이 최현오의 솜씨일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귀섭이가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너무도 훌륭한 용접이였고 또한 자기가 했다고 보기엔 어딘가 마음을 꼭 놓고 한듯한 그런 용접이였다.

한참동안 찬찬히 살펴나가던 병서는 그것이 바로 다름아닌 자기의 용접임을 알아차렸다. 근자형식의 결을 지으며 물결쳐나간 용접쇠물- 그것이 자기의것이 아닌 남의것일수는 없었다.

얼마후 트라스에서 내려온 병서는 묻는듯한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에 받으며 묵묵히 현장안을 거닐었다.

오랜 기억을 더듬는듯한 병서의 얼굴에는 차츰

착잡한 감정이 엮혀들었다.

그것은 점차로 지긋은 하나의 생각을 추구하는 듯하였고 마침내는 움직일수 없는 확고한 의지로 굳어져갔다.

《그래 저 용접을 누가 했소?》

가만 내쳐두면 그렇게 하루종일이라도 거닐지 모를 병서에게 검사과장은 더 참지 못하고 따져 물었다. 사람들앞으로 돌아선 병서는 담담한 목소리로 선언하듯 말하였다.

《7호트라스는 내가 용접했습니다.》

검사과장의 눈초리가 날카로와졌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말소리 …

《동무가?... 한다하는 고급기능공인 동무가 저렇게밖엔 용접 못한다말이요!》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지요. 내가 저렇게 용접했을적엔 필경 거기엔 그 어떤 다른 보강대책이 취해졌을겁니다. 난 감마촬영기의 결과를 봤으니까.》

《변명하려 들지 마시오!》

《육안으로도 알리는데 감마촬영해볼 여지나 있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견 량심이 없단말이요. 량심이! ...》

《뭐-요?! ...》

순간 잠자코 있던 병서가 불시에 고개를 꺾 돌리며 쏘아보았다. 불꽃을 튀기는듯한 그의 눈썹에 기가 질려 방금 말한 사람이 목을 찢끔 움츠리기까지 했다.

《말을 아끼시오! 량심이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입에 올리는게 아니지요.》

사람들로부터 무례하다고 하는 비난은 병서의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문제의 그 용접을 자기가 했음을 자인하는 이 순간에도 그의 얼굴에는 자기에 대한 의혹이란 털끝만치도 찾아 볼수 없었다. 오히려 자기에 대한 당당한 믿음과 담보가 그의 얼굴에 어려있었다.

《귀찮이, 가서 함마를 가져오게!》

《예?! ...》

귀섭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겁을 머금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어서! ...》

《?! ...》

못사람들의 의문어린 시선속에 귀섭이가 갓난아이 머리만큼 큰 함마를 가져오자 병서는 아무말없이 함마자루를 움켜쥐고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자기손으로 직접 용접부의 견고성을 확인해보려는것이다!

《그건 위험하오!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지 마시오!》

검사과장이 다급히 그의 등뒤에 대고 소리쳤으나 어느새 그는 트라스의 중심편결부에 이르렀다.

발을 붙이기도 어려운 아찔한 허공이었다.

귀섭은 오한을 만난 사람처럼 속이 후두둑 떨렸다.

만일 병서가 함마로 그 용접부를 갈겨서 용접부가 깨지는 경우-그때에는 물론 그들처럼 얽힌 강보와 사대들로 철저히 보강된 트라스전체의 안전성을 위협할수는 없었지만 그우에 올라선 사람이 위험할수 있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였다.

사람들모두가 그것이 터무니없는 모험이라는것을 알고있었지만 병서를 만류할념을 못하였다. 그들은 너나없이 병서의 완강한 고집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가 부르릉거리며 출발준비를 서둘렀다.

검사과장의 수표가 끝나자 인계문건을 받아온 신병서가 거침없는 동작으로 자기의 옷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내들었다.

도장에 인접을 듬뿍 묻혀 인계문건의 수표란에 누르려던 병서의 손이 무춤 굳어졌다.

최현오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던것이다.

《가만, 도장을 집어넣게. 그런 수표는 누구나다 할수 있는거야... 운전사, 발동을 죽이라우...》
인계문건을 내어민 통계원처녀의 눈이 금시에 울통해졌고 인계문건의 수표란에 쏠렸던 사람들의 의아쩍은 시선들이 최현오에게로 옮겨졌다. 그리고 신병서의 눈썹매운 얼굴에도 번갈아 옮겨졌다.

틀림없이 담력있고 배짱이 드센 그가 이런 경우 가만 있을리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병서는...

그는 갑자기 호된 타격에 얻어맞기라도 한듯 훌쩍 어깨를 떨더니 아무말없이 도장을 옷주머니에 도로 집어넣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묵묵히 걸음을 옮기였다.

귀섭은 어정정한 눈매로 한풀 꺾인 사람처럼 축쳐진 그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것처럼 고집이센 병서였건만 그는 최현오의 앞에서만은 이상하게도 어려워했고 최현오의 말을 몹시 심중히 대하군하는것을 종종 목격하군하였던것이다.

...삼경이 훨씬 지난 밤이였다.

귀섭은 아무리해도 잠들수가 없었다. 오늘 하루동안에 있는 그 모든 일이 그의 머리에 생생히 펼쳐지며 무엇인가 자기로서도 알수 없는 커다란 의문이 떠올랐다. 그것이 무엇일까?...

자기가 한 용접에 대하여 몇몇이 담보해나설줄 아는 병서의 결단성있는 행동, 그것은 모험이 아니었다.

적어도 병서로서는 모험이 아니었을것이다.

자기의 용접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것처럼 강하였기에 그리고 자기의 솔직한 량심을 추호도의심치 않는 진실한 사람만이 그렇게 행동할수 있는것이 아닌가.

그를 바라보며 알릴듯말듯한 미소를 짓던 최현오... 그가 중얼거리던 말...

그렇게도 자기를 내심 자랑스럽게 여기던 신병서가 어쩌서 갑자기 수표를 못했을까?... 최현오의 앞에서 움쩍도 못하고 돌아서던 신병서의 축쳐진 어깨...

무엇인가 모순이 있는것 같았다.

자기의 옆에 누운 신병서도 아마 잠들지 못하고있는듯했다. 그가 몸시도 뒤척거리며 모지름을 쓰는것이 감촉되었다.

다치면 쟁그렇하고 부서질듯한 차거운 초생달이 방안에 어설픈 그림자를 던지고있을뿐 방안은 피폐한 어둠과 정적속에 잠겨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렴풋이 잠에 들었던 귀섭은 눈을 떴다. 뒤척거리며 모대기던 신병서가 무엇에 놀란 사람처럼 화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난것이였다. 어둠속을 더듬질하며 신발을 찾아신는 그를 자는줄로만 알았던 최현오의 석싹한 목소리가 멈춰세웠다.

《어딜 가나? ...》

《현장에 좀 나가보려고요. 이제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하부내통의 안쪽면을 확실히 내가 용접했습니다. 원래 도면에는 용접하기 곤란하여 안쪽용접은 밝히지도 않았지요. 그 안쪽이 너무 깊어서 내가 용접봉 두대를 련결해서 그리고 거울을 놓고 그 반사되는 빛을 보면서 용접했을겁니다... 도면에 지적되지 않은 안쪽부분에도 용접을 했기에 바깥용접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았지요. 생각납니다. 이제야... 확실히 그 부분은 장담할수 있습니다. 도면의 요구보다 몇배나 더 든든하지요. 나가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병서의 목소리로 미루어 그가 몸시도 흥분했다는것이 알렸다. 그러나 최현오쪽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드윅-》 하는 성냥긋는 소리와 함께 불현듯 귀섭의 내려감은 눈시울에 어둠이 걸히고 희미한 빛이 잠깐 어렸다가 사라진다. 뒤이어 풍겨오는 담배연기의 특유한 냄새...

《고작 생각했다는게 그건가? 확인해보나마날세. 안쪽면엔 용접을 했어...》

《예?!... 아바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자네가 망치질할 때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알리더군. 강판이 예상외로 되얌지게 반발하더라말일세... 그래서 생각했지. <음, 저 웅크린 녀석이 안쪽면에도 용접을 했군.> 하구...》

《원, 아바이두, 그럼 진작 말씀하실게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보게 병서, 귀섭이가 잠들었는가 한번 보게.》

조금후에 자기에게로 엉금엉금 다가와 바라보는 병서의 숨결이 귀섭의 얼굴에 느껴졌다. 귀섭은 목구멍으로 뜨거운것을 삼키며 죽은듯이 누워있었다.

《잠들었군요... 얘기하십시오. 아바이.》

최현오쪽에서 잠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자넨 아까 귀섭의 눈앞에서 떨리지도 않던가? 쪼리 지도 않던가말이네.》

이제 아마 세월이 흐르노라면 자네가 용접한 그 트라스겔면에 생긴 흠집은 귀섭이뿐아니라 그 뒤의 세대들의 눈동자앞에서두 영원히 남아있게 될것세. 물론 자네의 용접이 든든하기야 하겠지. 그러나 여기엔 든든하구 안하구가 문제가 아니야...》

《?!...》

《저 귀섭이를 보게. 귀섭인 자네에게서 모든걸 배우려 하구 있네. 자네에게서 욕심스레 일숨씨를 배우고있구 또 앞으로는 그다음 세대들 역시 것처럼 귀섭에게서 일본새를 배울거네. 그런데 만약 자네가 후대들의 눈동자앞에 조금이라도 티를 남긴다면 그건 단지 한세대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난 그게 더 무서워... 그 트라스가 든든하구 안하구보다 그게 더 무섭단말이네...》

진정한 용접공이라면 자기의 량심에뿐아니라 후대들의 눈동자앞에서두 책임을 져야 해. 후대들의 눈동자앞에서두...》

《.....》

《담배를 피우게. 누가 보는 사람두 없는데 뭐라나...》

자넨 나더러 이젠 일손을 놓으라구 하네만...

또 나두 이젠 나이가 나이니만치 자네들처럼 크게 일을 치르지 못한다는것두 알아... 하지만 아직은 일손을 못놓겠어. 똑똑히 대를 물리기전엔...

《!! ...》

지지리도 오랜 침묵이 흐른 끝에 병서의 나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알겠수다, 아바이! ...》

뒤이어 문이 여닫기는 소리가 나더니 모든것이 잠잠해졌다.

귀섭은 이불을 잡아당겨 머리끝까지 폭 뒤집어 쓰며 이불깃을 짓씹었다. 그러지 않으면 울음이 터져나올것만 같아 겁이 더럭 났던것이다.

...얼마후 귀섭은 옷을 입고 밖을 나섰다.

이른새벽의 밖은 아직도 어슴푸레하였고 대기는 무척도 쌀쌀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은 마냥 후덥기만 하였다.

중기계직장의 현장안에 이르니 트라스꼭대기에서 현란한 용접불꽃들이 쏟아져내리며 쿵크리트 바닥에 부딪쳐서는 탁탁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무수한 불살들을 그린다. 마치도 꽃보라와 같이, 아니 축포처럼...

《왜 나왔어? 자지 앉구...》

밀에서 용접기의 전기조절손잡이를 돌리고있던 최현오가 석싹한 목소리로 묻는 말이었다.

《전... 전 ... 다 들었어요...》

《너석두... 사내라는게 그렇게 귀가 얇어선 못써...》

귀섭은 병서가 용접을 하고있는 트라스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용접면을 집어들고 말없이 병서가 용접하는것을 바라보았다.

왜 그런지 오늘은 그의 손목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 오랜 용접경험을 가지고있는 병서에게서 이태껏 한번도 본적없는 이상한 움직임이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귀섭에게는 언제인가 신병서가 하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신병서는 귀섭이 나이적에 최현오의 역센 손탁에서 용접을 배웠었다. 최현오는 그때 기업소적으로 가장 기능이 높은 고급용접공이었으며 또 병서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용접공의 드림없는 랑심을 배웠었다.

그런데 것처럼 훌륭한 고급용접공인 최현오에게도 가끔 가다 이상한 일이 있었으니 어떤 때는 자기가 용접한것이 믿어지지 않아 재벌용접을 하곤하였던것이다. 그것도 누구도 몰래 혼자 하곤 하였다.

감마촬영에서 틀림없이 합격된 용접부를 다시 용접하는것이 하도 이상하여 병서가 어느날 슬그머니 용접면을 쓰고 그의 용접을 바라보았는데 용접면너머 최현오의 손이 알릴듯말듯 가늘게 떨리고있는것을 볼수 있었다.

용접고급기능공들에게 있어서 미세하게 손을 떠는 현상이란 사실 놀라운것이 아닐수 없었다! ...

《한마디로 어찌보면 좀 피뻘한 사람이기도해.》하고 그때 말하던 신병서가 지금은 그자신을 손을 떨고있는것이였다.

귀섭은 눈여겨 살폈다. 모재우에 쇠물을 녹여 슬라크를 밀어내고 그앞에 착실하게 쇠물을 쌓아나가는, 아니 자기의 사상을 새겨가는 그의 손목 움직임...

그것이 용접면의 유리를 통해 커다랗게 확대되어 보이는가 하면 불시에 눈앞이 흐려져 그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그것은 자기가 한 용접이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였다.

그것은... 그것은 후대들앞에 선 무거운 책임감, 그때문이라...

새날이 흰히 밝아서 그는 용접을 끝내였다.

어느새 밀에는 어제처럼 사람들이 웅기중기 모여서 자기네들을 올려다본다.

어제처럼 인계문건을 가지고 왔던 통계원처녀의 예쁘장한 얼굴도 보인다.

그리고 어제처럼 도장을 꺼내 수표란에 수표하러던 병서의 손이 무춤 굳어졌다...

《귀섭이, 어때? 먼저 수표하랴구...》

귀섭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가 어떻게 먼저...》

《어서 하래두! ...》

신병서의 눈찌가 맵찔졌다. 이쯤되면 귀섭은 그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리라것을 잘 안다.

그러나 간밤에 병서의 그 《고집》에 깃든 비밀을 알게 된 귀섭은 속이 뭉쿨하여 인계문건을 싣뜻 받아들지 못하였다.

이것은 철부지때 《소년단립》의 어구에 놓인 불로크에다 손칼로 멋을 부리며 자기의 이름을 새겨넣던 그런 수표가 아니였다. 얼마 출고했음, 얼마 반환했음 하는따위의 수표는 더구나 아니였다.

세대와 세대간의 수표인것이다.

귀섭은 자기를 바라보는 최현오의 응심깊은 표정과 신병서의 고집어린 눈빛에서 그 어떤 움직

일수 없는 뜻을 읽었다. 게다가 통계원처녀까지 의미있게 방싯 웃으며 눈짓하지 않는가, 어서 수표하라고...

그러나 어쩐지 손이 떨리었다.

그는 자기들이 용접한 그 모든것을 생각해보았다...

아버이수령님과 당을 받드는 심장속의 무게를 가늠하듯 귀섭은 저으기 심중한 거동으로 수표를 하였다. 그 다음에는 신병서와 그리고 최현오도 ...

미구에 자동차가 부르릉거리었다.

그들은 차에 올랐다.

《이번에는 정식 출발인가요?》

운전사가 가속답판을 밟으며 쾌활하게 물었다.

《진짜 출발이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게.》

《그건 왜요?》

《후사경으로 저뒤를 한번 보게나. 방해하지는 말고...》

최현오는 고개짓으로 적재함쪽을 가리켰다. 적재함 뒤쪽에서 귀섭이와 통계원처녀가 무엇인가 다정히 속삭이고있는 모습이 후사경의 동그란 거울속에 비쳐들었다.

바람결에 그들이 속삭이는 정겨운 목소리가 도간도간 들려온다.

《이제 가면 다시는 안오겠지요?》

모름지기 귀섭이또래나 똬음직한 통계원처녀가 퍼그나 상냥하게 묻는 목소리였다.

《그래요. 그대신 우린 늘 새라새로운 건설장으로 다니며 강철구조물들을 일떠세워 우리의 후대들에게 넘겨주곤하지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

처녀의 놀라움에 겨운 말이였다. 이제 겨우 사가사

회생활의 문턱에 발을 디딘 그들이 벌써부터 후대들에 대하여 론하는것이 제나름으로 우스웠던지 피씩 웃으려던 운전사는 최현오가 짐짓 엄한 얼굴로 쉬잇- 하는바람에 그만 웃음을 그치였다.

《정말 동무네 사람들은 어쩔 그리도 무게있고 의젓할까!...》

혼자소리하듯 나직이 속살거리는 처녀의 말...

그 말에 더욱 의젓해지려 애쓰는듯한 귀섭의 목소리...

《용접공이니까요.》

《용접공이라구요?!...》

《.....》

《그런데 동문 이제 수표할 때 보니까 용접공당지 않게 손을 떨더군요?...》

웬일인지 귀섭이가 갑자기 대답이 궁해져 말을 갑자른다. 한참만에야 귀섭은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막... 떨렸지요. 후대들앞에 남기는 로동계급의 수표가 그렇게 무게있는것인 줄은 나로서도 놀라웠으니까요. 우리 사람들의 수표는 뭔가 상상할수도, 헤아릴수도 없는 그렇게 크고... 무게있는... 그리고 어... 뭐랄까?... 굉장하게... 수태...》

귀섭은 문득 표현할 말을 고를수 없어 안타까웠던지 말을 끊었다.

후사경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땀내기들의 서투르고 어색한 말마디를 듣고있던 운전사는 이번에는 더 참을수 없었던지 주먹을 입가에 가져다대고는 킬킬거렸다.

그러나 최현오와 신병서는 조금도 웃지 않고 생각깊은 눈매로 차창밖의 어느 한점만을 줄곧 바라보고있었다...

병사는 다시 알았네

전동우

나서자란 고향집 멀리 떠나서
병사는 그리움을 처음 알았네
뛰놀던 푸른 들 한줌의 그 흙이
목숨보다 귀중한줄 다시 알았네

달도 없는 깊은 밤 초소에 서면
고향마을 불빛이 어리어왔네
어머니 서계시던 다박술 그 언덕이

둘도 없는 조국인줄 다시 알았네
머나먼 행군길 가면 갈수록
병사의 가슴은 불타올랐네
아버지 걸어갔던 혈전의 길을 이어
누가 가야 하는가를 다시 알았네

아, 청춘이란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를
총을 멘 병사는 다시 알았네

중편소설 《청춘은 빛나라》와 작품의 창작적개성문제

장영

주체적문예사상의 휘황한 빛발아래 혁명적문학 예술의 대전성기가 마련된 지난 70년대는 사상에 술적으로 우수한 중편소설들이 많이 창작된것으로도 특징지어지고있다. 다양한 주제령역에 걸치는 그 작품들가운데는 작가의 개성이 느껴지는 특색있는 중편소설들도 적지 않다. 중편소설 《청춘은 빛나라》(리화)도 그러한 작품들중의 하나이다.

그러면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중편소설 《청춘은 빛나라》가 어찌하여 독자들속에서 그토록 널리 읽히우는 특색있는 작품으로 되고있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29페이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 이것은 문학예술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이다.

그런데 문학예술작품의 이 사상예술성은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언제나 일반적형태로 발현되는것이 아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모든 예술은 비반복적이어야 하며 자기의 독특한 얼굴을 나타내야 한다. 예술작품이 자기의 고유한 얼굴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예술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비반복적인 개성적특성, 이것은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의 존재양식이며 그 작품으로 하여금 그 작품으로 되게 하고 다른 작품과 구별되게 하는 고유한 속성이다. 얼굴이 없는 사람이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비반복적인 개성적특성이 없는 성과작이란 생각할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중편소설 《청춘은 빛나라》의 사상예술적성파를 론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작품이 새롭게 보여준 개성적특성이 무엇인가를 찾아야할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작품에는 반드시 창작가가 개성적으로, 독창적으로 발견하고 심어놓은 종자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아름답고 참신한 형상의 꽃이 피어나야 한다고 밝혀주고있다.

우리 당이 밝혀준바와 같이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작가가 생활속에서 골라잡은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종자가 있어야 한다. 형상의 요소가 뿌리내릴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인 종자에 작가의 새로운 의도와

탐구가 느껴지지 않고 거기에서 그 작가 아닌 다른 사람은 줄수 없는 생신한 맛이 풍기지 않을 때 그 작품에서 개성적특성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우리들이 중편소설 《청춘은 빛나라》를 읽고 시대정신의 높이를 새롭게 감득하게 되는것도 이 작품에 심어진 종자의 참신성에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개인의 명예보다도 시대앞에 지닌 의무를 더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문제는 이 소설이 아닌 다른 작품들에서도 많이 취급되어왔다. 따라서 이 소설이 4년간에 걸쳐 작성한 해양계산법에 관한 학위논문을 그대로 제출하여 학위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학위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일현상까지를 정확히 계산해낼수 있는 새로운 해양계산법을 완성하는데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국한시켜 형상을 봤더라면 철학적 무게와 심오성을 지금처럼은 보장하지 못하였을것이다.

중편소설 《청춘은 빛나라》가 우리들에게 강한 인상을 던져주는것은 개인의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더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회적문제를 제기한데 있는것이 아니라 과학자는 후세사람들앞에도 부끄럽지 않게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시대적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인간문제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심어놓은 데 있다.

이것은 비단 과학연구사업에 몸바친 과학자들의 생활태도로 되여야 할뿐아니라 우리 시대 인간들 누구나가 심장깊이 간직하여야 할 생활신념으로 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다시말하여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맡겨진 시대적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후세사람들앞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여기에 이 작품이 제기한 문제성의 보편적의의, 종자의 철학적무게와 참신성이 있는것이다.

중편소설 《청춘은 빛나라》는 이와 같이 인간을 자연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과정에서 제기되는 인간문제를 작품의 종자로 참신하게 제기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형상적으로 꽃피우기 위한 구성과 엮음새 조직에서도 일련의 개성적특성을 보여주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구성과 엮음새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생활과 인간관계를 전열적인 예술적 화폭으로 재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의 하나이다. 구성과 엮음새를 어떻게 조직하고 전개하는가 하는데 따라 생활의 합법칙적과정이 진실하게 반영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결정되는것은 물론 사건과 인간성격의 유기적인 연관과 발전이 개성적으로 흥미있게 형성되는가 무미건조하게 라렬되는가 하는것이 좌우되게 된다. 따라서 구성과 읽음새 조직은 작가의 개성적특성이 가장 많이 발현되는 분야라고 말할수 있다.

이 소설이 특색있는 작품으로 되고있는 까닭도 바로 구성과 읽음새 조직에서의 특성과 많이 관련된다.

소설은 세계의 주인인 인간이 자연력의 횡포앞에 무기력할수 없다는 주체의 신념을 지닌 주인공 강영진이 해일현상까지도 정확히 계산해낼수 있는 새로운 해양계산법을 완성하는 과정을 기본 사건선으로 놓고 이 지향선과 어긋나는 행동선들을 반선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학위론문을 함께 준비하다가 도중에 물러나는 송설규와의 갈등은 이 작품에서 가장 심각한 인간관계로 된다.

그렇지만 소설은 영진과 설규와의 갈등선을 읽음새의 기본내용으로 끌고간것이 아니라 이 갈등선을 밑바닥에 깔아놓고 영진의 지향세계를 긍정하면서도 그의 정신적높이에 오르지 못한 해연과의 애정선을 기본으로 끌고갔다.

송설규와의 갈등선이 사상적대립관계의 견지에서는 가장 심각한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후에 깔아놓고 해연과의 심리적갈등선을 정면에 끌어내온것은 이 작품의 종자의 요구에 맞게 강영진의 높은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는데서 아주 적절한 읽음새조직이었다고 본다.

송설규는 원래부터 자기의 명예를 위한 일이라면 신의도 저버릴,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량심상 가책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과렴치한 인간이다.

《지구는 둥글다. 생활도 합리적으로 환경에 맞추어 해나가는게 편리할것이 아닌가》-이것이 설규의 생활관인것이다.

환경에 따라 변하기 쉬운 이런 인간에게 과연 그런 생활관이 잘못되었다고 한두마디 충고를 준다고 해서 그가 자기를 쉽게 뉘우칠수 있을것인가? 이런 인간과 그것이 옳으나 그르냐를 따지는것은 너무나도 천박할뿐아니라 그런 논쟁을 벌리는 자체가 유치한 일이다. 이런 인간에게는 생활발전의 합법칙적결과를 통하여 자신을 부끄럽게돌이켜보도록 하는것이 상책인것이다!

강영진이 바로 그렇게 행동하고있다. 간석지전망설계를 확정짓는데 필요한 해양자료를 해결한다는 구실밑에 편리한장을 남기고 달섬에서 떠나가버린 설규를 원망은 하면서도 그를 찾아가 실측사업을 계속하자고 애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단 한번의 권로를 해보고는 그가 응하지 않자 갈테면 가라! 난 혼자서라도 달섬에 남아 해양계산법

을 기어코 완성하고야말테다! 하고 비장한 결심을 다지는 영진이다.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비록 영에는 뒤로 미루더라도 조국앞에 지닌 시대적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영진의 이 강毅한 의지야말로 얼마나 숭고한것인가.

설규와의 관계에서 영진의 정신적미를 탐구할수 있는것은 이것이 전부이다. 설규와의 관계를 더 전개시켰다 하더라도 이 이상의 정신적미를 밝혀내지는 못하였을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소설은 영진과 설규와의 갈등관계를 이처럼 첨예하게 끌고가서는 그를 배후에 깔아놓고 이번에는 단신으로 새 해양계산법을 완성하려고 나선 영진의 사상감정을 강하게 건드릴수 있는 해연과의 애정선을 정면으로 파고들었던것이다.

해연과의 애정선, 이것은 영진의 사상정신적지향세계를 보다 깊이있게 파고들수 있는 극적정황들을 무수히 배출시키는 읽음새선이다.

해연은 한때 영진과 우연히 만난 바다가에서, 그리고 달섬에 건너간 영진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자기는 바다를 무척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다.

조국의 바다를 무한히 사랑한다는 처녀의 그 고백으로 하여 영진은 해연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었던것이며 그가 자기와 일생을 같이 할 반려자로 될수 있으리라고 믿었던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와의 애정이 깊어졌을 때 해연이가 《무엇때문에 여기를 꼭 떠나야만 해요. 동무의 그 투지와 재능을 가지고라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보람있게 일할수 있지 않아요.》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달섬으로 떠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게 되자 지금까지 기대했던 그런 처녀가 아니라는것을 알고 영진은 무척 괴로와하는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허무한것임을 깨닫게 될 때, 그 믿음이 배반당했음을 알게 될 때, 그런 때의 괴로움은 고상한 인간일수록 더욱 심각한 법이다.

소설은 바로 여기에서 이 작품의 극성을 찾았다.

하기에 영진은 해연이 자기를 뉘우치고 달섬으로 건너왔을 때 이날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으면서도 너무나도 뜻밖에 찾아온 행복을 도저히 한가슴에 받아안을수가 없어 오히려 그로하여금량심을 지키기 위한 도덕적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과학탐구의 험난한 길을 삶의 영원한 만족으로 느낄만큼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였는가를 묻게 되는것이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읽으면서 조국의 래일을 지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몸바친 한 젊은 과학자의 생활신념과 굳센 의지를 보게 되며 그토록 귀중한 애정까지도 오로지 과학탐구의 길에서

만 찾으려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알게 된다.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주인공의 사상정신적지향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보이기 위한 극성을 애정선에서 찾고 그 애정선을 통하여 심오한 사회적 문제성을 밝혀내고있는것이 이 작품의 엷음새조직에서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소설은 이처럼 종자가 심어진 애정선을 엷음새의 주선으로 끌고가면서도 그것을 외궤으로 단순화하지 않았다. 로교수인 심운성의 생활선과 정택부부의 생활선을 안받침함으로써 작품의 구성을 립체적으로 부각시킨 특성도 보여준다.

여기서 특히 심운성의 생활선은 작품의 종자를 꽃피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논다. 즉 송설규와는 달리 심운성은 영진의 과학연구사업을 깊이 이해할뿐아니라 계절적인 관철점으로 앓는 늙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러한 주저도 없이 영진의 사업을 돕는 일에 선풃 나서기까지 하는 성실한 로학자이다. 그는 또한 자기의 딸 심해연이 영진을 사랑하면서도 그의 정신적높이에 이르지 못한것을 보고서는 딸을 엄하게 꾸짖으며 《그런 사람을 사랑하자면 너도 바다를 사랑할줄 알아야 해 그렇지 않구야 그런 완강한 사람의 짝이 될수 있겠니?》라고 일깨워준다.

이런 의미에서 운성과 영진의 정신적높이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들은 다 우리 당에 의하여 키워진 성실한 혁명적지식인의 전형들인것이다.

다만 그들사이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 나라 해양학에서는 아직도 권위를 가지고있는 심운성이 젊은 시절에 엄두도 내지 못하였던 해양계산법을 영진이는 청춘시절에 완성하려고 하는것뿐이다.

그 정신적높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에서는 차이가 있는 두 세대의 성실한 과학자를 등장시키고 그들의 극적관계를 파고든것은 이 작품의 종자를 형상적으로 꽃피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영진이가 운성교수를 찾아가 해양실측자료를 더 연구하려는 의향을 말하면서 자기의 학위론문을 보류시켜줄것을 제기했을 때 그의 고결한 행동을 두고 생각하는 운성교수의 심리세계는 참으로 의미심중하게 들린다.

《인간이란 오늘에 살면서도 그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오늘의 생활이 후회되지 않게 래일을 창조하며 살아야 빛나게 살수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난날에 해결하지 못한 그것으로 하여 오늘 새세대앞에 무거운 부담을 주게 된다는 자책, 운성교수의 이 뉘우침은 소설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청춘시절을 어떻게 사는것이 가장 빛나게 사는것으로 되는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을 수행하는 오늘의 력사적시점에 선 인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시대적의무앞에서 과연 어떤 립장과 태도를 취해야 할것

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사색케 한다.

소설은 이처럼 부차적인물들의 생활선에도 종자의 철학적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독특한 구성형식을 취하였지만 엷음새의 주선인 영진과 해연의 애정선을 단순화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펼쳐진 간석지건설전망계획을 과학기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과학토론회에서 설규의 그릇된 생활관이 비판되고 영진의 진지한 과학탐구태도가 긍정되는 장면에 력점을 찍은 다음 간석지건설의 설계초안에 필요한 해양자료로서는 물론 그 어떤 자연재해로부터도 우리 인민들과 조국을 예견성 있게 보호하는데서 귀중한 과학적인 새 해양계산법을 완성하기 위한 해일실측자료를 얻어내는 장면을 작품의 절정으로 설정하고 그 계기에서 해연의 개변과정을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극적교조감을 야기시키고있다.

특히 난파선의 파편이 해양관측탑을 꺼꾸러뜨리자 위기일발의 그 시각 서슴없이 파도속으로 뛰여든 영진의 뒤를 따라 해연이도 바다에 뛰어들어 자기 희생성으로써 최대해일고를 관측하는 장면은 참으로 우리들을 숭엄한 세계에로 이끌어간다. 더구나 해연이가 지난날 수영선수였다는것을 전제로 깔아놓았기때문에 그의 영웅적행동은 아무런 무리가 없이 생활적으로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

중편소설 《청춘은 빛나라》는 이렇듯 등장인물들의 배치와 그들의 련관 및 발전에서 일련의 개성적특성을 보여주고있을뿐아니라 그 성격을 개성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도 옳게 관철하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예술적형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서있는것만큼 인간성격의 개성화는 작품의 개성적특성을 살리기위한 기본분야의 하나로 된다. 새롭고 독창적인 종자도 결국은 개성적인 인간성격에 대한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꽃피어나는것이다.

이 소설에 심어진 종자의 참신성도 주인공 강영진의 개성적인 성격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물론 강영진의 외형적인 생김새는 너무나도 평범하다.

언제나 외출복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고 작업복이라고 해도 무방할 검은색의 단긴형양복을 수수하게 입고다니는 그, 뼈마디가 굵직하고 튼튼한 체구에 군살한점 없는 날카로운 얼굴이 특징이랄가, 아무튼 고집스럽고 완강한 성미라는 인상을 주는 또렷한 입모습을 제외하면 그에게서 과연 눈에 띄이는 특징이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영진은 남다른 성격적특징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그의 외형에 있는것이 아니라 내면세계에, 정신적높이에 있다.

4년동안이나 애써 준비한 학위논문이 아직 부족점이 있다는것을 알았을 때 그 발표를 서슴없이 거절하는 깨끗한 량심과 결단성, 스스로 인적 없는 달섬에 건너가 18년 7개월만에야 한번씩 나타나는 해일의 장동주기현상을 관측하려고 모진 애를 쓰는 불굴의 의지와 뜨거운 열정, 해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고할수 있는 과학적인 새 해양계산법을 완성하기전에는 설사 무인도에서 일생을 마치는 한이 있다 해도 돌아서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자기 희생정신, 이 얼마나 주체시대의 전형적인 성격적특징을 체현한 개성인가.

소설은 영진이가 이처럼 과학연구사업에서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자신을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그의 심장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인간옹호의 뜨거운 열정이 불타고있기때문이라는것도 잘 보여주고있다. 달섬에 건너간 그가 상한 복작노루의 다리를 고쳐놓아주는 장면이라든가, 돛대바위에 나가 랑수표 앞에서 수위를 관측하고 돌아오다가 낮모를 사람들이 달섬에 올라 나무를 찍는것을 보고 타일러주는 장면만을 상기하는것으로써도 조국에 대한 그의 남다른 사랑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수 있다. 그는 또한 함께 일하는 무전수 리정택의 안해 최문숙이 달섬으로 건너와 남편과 함께 생활하도록 힘써주기도 하고 자신의 고민으로 하여 정택부부가 근심에 싸여있는것을 보고는 의지의 힘으로 개인의 감정을 누르기에 애쓰기도 한다.

이렇듯 강영진은 강철의 의지로 생활의 높은 목표를 향해 굽힘없이 돌진하면서도 다정다감하고 애정에 시달릴줄도 아는 산 인간으로, 《오늘에 참답게 살줄 아는 성실한 사람》으로 개성화되었다.

영진과 대조되는 인물로서의 송설규의 성격도 개성적이다. 지나치다 할 정도로 몸차림에 세심한 주의를 돌리며 언제나 사치를 즐기는 그, 성이 날수록 새물거리며 부드럽게 말하는 그 외형적특징은 그만두고라도 《끓어오르기도 잘하지만 잣아들기도 잘하》는 《비등점이 낮은》 그 성미야말로 얼마나 개성적인가.

연구성과가 눈앞에 보일 때는 열정을 쏟아부다가도 성공의 앞길이 모연해지면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달아나버리는것이 그의 성격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조파시험》으로 해양계산법을 인정받으려고 조급하게 애를 쓰는 등 태양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밖에 운성부부의 성격도 개성적으로 잘 그려졌다. 오직 과학사업에만 모든 정열을 다 바치면서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운성교수와 탐구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딸의 장래문제로 하여 고민하는 안해 순임의 성격은 얼마나 생동한가.

또한 안해를 사랑하기때문에 그의 행복을 지켜주려고 그를 달섬으로 부르지 않으려는 순박한 무전수 리정택의 성격과 활기있고 평리하고 락천적인 최문숙의 성격도 아주 개성적으로 대조된다.

소설은 이와 같은 등장인물들의 성격적특징을 생동하게 묘사함에 있어서 그 대사의 철학성에 커다란 주의를 돌리고있다.

주인공 강영진의 대사가운데서 한두가지 상기하자.

《…후세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느니 오늘 나라의 돈과 식량을 탕진한 죄로 징벌을 받는것이 몇 천배 량심적이라고 생각하네.》(영진이 설규에게 학위론문을 철회하자면서 하는 말)

《당신은 마땅히 법적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구 섬의 나무를 마구 찍는 사람은 믿을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곳에서는 그 어떤 범죄도 서슴지 않을겁니다.》(영진이 달섬의 나무를 찍는 낯선 사나이를 꾸짖는 말)

《마치나도 동무는 지금 그 어떤 깨끗한 량심을 지키기 위해 섬에 남기로 한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도덕적의무에 대한 자각도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업에 한몫을 송두리채 바치자면 진정 그것이 영원한 만족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입니다. 결코 조급하게 결심을 내리지 마십시오. 나는 동무를 위해 이렇게 권고하고싶습니다.》(해연이 달섬에 남겠다고 했을 때 영진이 하는말)

이런 뜻이 깊은 대사들은 다른 인물들에게서도 허다히 찾아볼수 있다.

《…너는 인간의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고사하고 조국땅 한끝에서 애쓰고있는 청년을 모욕하고 배반했다. 이게 사람의 도리냐? 참되게 살지 못하는 인간은 산 인간이 아니라 죽은 목숨이나 갈단말이다.》(운성이 동요하는것을 꾸짖으며 하는 말)

《나는 공명심에 사로잡혀 푼수에 없는 학적을 받자는게 아닐세. 그 누구나 받을수 있는 그런것을 마땅히 향유하자는거란말이네.》(자기의 편견적인 공명심을 변명하면서 영진에게 하는 설규의 말)

소설은 등장인물들의 대사에서 철학성을 보장하고있을뿐아니라 지문들에도 심오한 철학적내용을 많이 부여하고있다.

《우리는 진리가 태양처럼 빛나는 시대에 살고 있느니만큼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게 사는것만이 생활의 목표로 되여야 한다…》

《꽃은 피여야 아름답고 숲은 무성해야 장엄하지만 인간은 참된 로력으로 빛나는것이 아닌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는것은 거짓이다.》

.....

심지어 자연을 묘사한 문장들에서조차 이런 교훈적인 의미가 번뜩이고있다.

《저 나무들도 봄 여름에는 모두 한빛으로 푸르렀을것이다. 그러나 가을이 깊어가자 나무마다 제 본색을 남김없이 드러내고있다. 록음의 계절에 류달리 윤기흐르던 은행나무, 찰피나무는 가을에도 이채로운 황금빛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다. 하나 한 여름에는 우아하고 풍성한 잎새를 실레이며 도고하게 머리를 쳐들고있던 플라타나스는 하루밤 세차게 불어치는 북풍에 잎새를 모조리 떨리우고 췌 하니 서있다. 그렇지만 잎이 무성한 철엔 어느 틈바귀에 박혀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저 단풍나무는 그 얼마나 온몸을 정열적으로 불태우며 마지막순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가.

사람들도 평온한 생활속에서는 좀체로 자기의 진면모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될 어려운 정황에 부닥치면 자기의 본색을 날날이 드러내고마는것이 아닌가.》

이 소설에는 철학적내용이 담긴 이런 좋은 문장들이 수없이 많다.

이와 반면에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려고 교태를 부린 그런 험란한 문장이란 별로 없다. 모든 표현들은 솔직하고 정확하고 사색적이면서도 시각적이다.

영진이 운성과 함께 서해전선 천수백리길을 편답하고 달섬에 이르렀을 때의 섬풍경을 그린 장

면을 들어보자.

《콩 - 관측선은 달섬의 모래불에 코를 박았다. 물역에 하얗게 내렸던 갈매기들이 큰 일이나 난 듯이 소란하게 울어댔다. 다만 거만한 왓새만이 배부른 모래불을 천천히 거닐었다. 선원들은 배에서 뛰어내려 버리줄을 구죽바위에 걸기 바쁘게 갈매기알을 줏느라고 돌바위에 뒀방 절을 한다.》

관측선이 섬에 닿자 갈매기들은 놀라서 날지만 왓새는 배포유하게 천천히 거니는데 배에서 내린 선원들이 돌바위잡의 갈매기알을 줏느라고 뒀방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광경이 얼마나 방불하게 그려졌는가.

사치스럽지는 않으면서도 대상을 정확히 그려 보이고 지성적인 색채를 강하게 풍기는 여기에 이 소설의 문체적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독자들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하여 끝없이 사색하게 되고 과연 참답게 살줄 아는 성실한 인간이란 어떻게 사는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철학적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은 중편소설 《청춘은 빛나라》가 거둔 이 모든 사상예술적성과들은 전적으로 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방침을 관철한 결과 이룩된것이다.

우리는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현실의 요구에 맞는 주체의 문학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로광부

김영근

막장의 한 교대에
세발파를 해제낀 저녁
내 즐거워 떠들썩
꽃보라 날리는 갯구를 나설 때

발과연기 떠도는 갯도속
내 떨어놓은 쇠돌벽앞에서
하나하나 남포구멍 헤아려보며
발걸음 못떼던 아버지

더 깊이 뚫지 못한
아들의 정대 끝자리들이
가슴에 마쳐와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구실을 못다한 자책에 잠겨

그날밤
내 마음의 빈틈을 두고
당원들 회의에서
고개숙여 말했더라

...그 애는 내가 키웠소!

아, 그 마음, 그 진정이 뜨거워
오늘은 하나의 남포구멍에도
내 깨끗한 마음을 다지며
쇠돌벽을 밀어가는 이 가슴 넓어졌거니

년간계획 끝마친
그 아침
남모르게 흘린 땀
온 광산의 기쁨되어, 자랑이 되어
영예의 게시판에
کم직이 내 이름 나붙었을때엔

부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앞에서
나의 아버지
웃음 어린 얼굴로
조용히 말했네

...그 애는 당의 품에서 자랐소!

박지원의 시 《총석정의 해돋이》는 해돋이는 동해의 모습을 통하여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다.

시 《총석정의 해돋이》는 작가자신의 사상적제한성으로 하여 자연에 대한 찬미와 세태적인것을 노래한데 그치고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지 못한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편집부는 독자들의 리해를 돕기 위하여 어려운문구들을 약간 풀었다.

(편집부)

총석정의 해돋이

박지원

나그네들 한밤중에도
부르거니 대답하거니
-먼데서 닭이 우나베
-아직은 우지 않으리

먼데서 울었다는 닭
어디서 울었을겐가
가느단 피리소린양
마음속에 그럴사했다

마을의 개 한마리
짖다가 그쳐 버리니
어제도 피피하던지
몸 오싹, चु기나 한듯

바로 이때 그 무슨 소리
앵하고 귀를 스친다
다시 한번 들으려 할제
처마밑의 닭이 해친다

여기서 총석정까지
십리를 못넘는 거리
툭 터진 바다앞에서
해돋이 구경을 가자

하늘인지, 아니 바단지
끝없이 맞닿은 속에
물결이 언덕을 쳐서
우르릉 벽력이 인다

혹시나 시커먼 바람
바다를 휩쓸어 불면
산마루 뿌리채 뽑혀
돌벼락을 내리지 않나

곤과 고래 드잡이 치다가
룩지로 튀어나올듯
바다기운 동하게 되어

대붕새 날아오를듯

한가지 근심되는건
이 밤이 아니 썰세라
오늘날 이후의 혼돈
누구라 고증해 낼가

아마도 물말은 귀신
과격히 완력을 써서
땅밑에 해를 가두고
얼음으로 뒤덮은게라

아마도 하늘을 켜 축
하 오래 돌고 돌아서
서북쪽 기울어들고
해 돌던 줄 끊어진게라

세발가진 금까마귀가
너무 재게 날으기때문
누구라 끈을 가져다
한 발을 동여매었나

해신의 옷자락에서
어둑히 물방울 똑똑
너신의 쪽진 머리는
추위에 부대껴 까칠

큰고기 함부로 뛰어
말같이 돌아다니는데
퍼런 갈기 빨간 지느럼
어찌 그리 험수룩할가

천지가 개벽된 처음
본 사람 누구란말가
미칠듯 소리지르며
등불을 켜려한다
혜성이 꼬리 뻗치고
심성이 드리웠을 제

나무우의 우는 부엉이
그 더욱 밍살스럽다

어느덧 수면 한쪽엔
적은 자국 부스럼인양
굽혔구나! 룡의 발톱에
독이 들어 오죽 아프랴

차차로 그 빛이 퍼져
흰하니 만리밖까지
장끼의 가슴팍인양
질은 빛 테를 이룬다

아득한 하늘과 땅이
어제로 경계가 생겨
한줄의 벌건 금으로
두 층이 뚜렷해진다

크나큰 염색집들이
눈앞에 나타나는군
천필의 순색 비단을
단번에 물들여내는군

산호가 지 찍어내여
숫으로 피운게 누구
부상의 뿔나무 지퍼
불길이 더 이글이글

염제는 불을 부느라
입아귀 비뚤어지리
축융은 부채질하다
바른 팔 느른해지리

가장 긴 새우 수염이야
맨 먼저 그슬렸을게다
굴껍질 두껍다해도
제 벌써 익었을게다

구름조각, 안개뭉치
모조리 동으로 몰켜
너도 나도 상서로운 체
저마다 재간 피우고

이제 곧 조희반으려
옥좌를 차려왔는데
수놓은 옷과 병풍뿐
그 자리 아직 비였다

셋별이 뜬 앞에서
눈섭달 마주 비치며
낫거니 못하거니를
오히려 시새우는듯

붉은 기운 넓어지면서
오색을 이루었나니
먼 물결 바라보는곳
제 선참 맑아져 있다

바다위의 술한 피물이
어디로 다 도망치고
해를 모셔 수레모는
한 신이 홀로남은듯

둥근지 룡만사천년
오늘따라 네모난듯

바다물 만길 깊거니
어떻게 길어 올렸나
하늘에 층계없다면
어떻게 올라왔을가

가을철 과일나무에
한 덩이 붉게 달렸다
채색한 공 밭길에 채여
공중에 반쯤 솟았다

저 뒤를 따르는 파보는
숨이 차서 헐레벌떡
그 앞을 인도하는 룡들
제가 전체 우쭐우쭐

하늘가 암담해지고
갑자기 찌프리더니
궁하고 떠밀어 올려
기운 버쩍 돌구는구나

바퀴처럼 등글지 않고
독처럼 길쭉한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광광 소리 나는 듣누나

온갖것 눈에 띄는것
어제와 마치 한모양
누구라서 두 손에 받쳐
단번에 치켜올렸노

가난한 집 처녀

김 규

그대는 보았으리 가난한 탓으로
시집도 못가는 아래집 처녀를
지난해도 그전해도 샅바느질로
시집가는 남의 옷을 짓고 지었건만

비단옷 공단옷 못하는 일 없이
타고난 재간이 세상에 소문났고
곱게 피는 나이 스무살 되었으니
꽃같은 얼굴에 술진 머리채

그러나 입은 옷은 지지리 헐어서
가지가지 천조박을 무어붙였네
연지는 고사하고 분가루조차
얼굴에 바를줄은 평생 모르더라

조반도 못먹고 저녁을 굶었으니
바늘귀가 혼들려 실을 못 꿰누나
기나긴 여름날 깊은 겨울밤
비단천 짜다가도 슬픔이 치민다네

순식간에 지은 관복 날랜뿐이라
빛갈도 아롱진 무늬까지 놓았으니

민첩하고 신묘한 처녀의 숨씨
듣는 사람마다 놀래며 감탄하리

그러나 열흘에 한번도 못빛는 머리에
구리로 만든 두 가닥 잠이 꽃혔네
석달에 한번이나 거울을 볼는지
각색으로 기워입은 치마저고리

문득 뜰아래 봄풀을 보더니
바늘을 멈추며 긴 한숨 쉬누나
부모를 일찍 잃고 오빠마저 죽어
식구라곤 울캐와 단 둘뿐인데

울캐가 병들어 누운지 삼년이라
일만가지 고역을 혼자 겪는다네
밝은 오막살이에 무엇이 남았는가
문어구에 쓸쓸히 선 버들 한그루

만사가 안 되는 그 신세 딱하구나
예로부터 가난한 집일수록이
아름다운 처녀가 있다곤하지만
헛되이 보내는 꽃나이 슬프더라

로씨야 성격

(소련)알렉세이 톨스토이

로씨야성격! 이 크지 않은 단편의 제목으로서는 뜻이 너무나도 크다. 하나 어찌하랴! 나는 로씨야성격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고싶은것을.

로씨야성격! 그것을 이야기한다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영웅적공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것인가? 하나 그런 공적은 하도 많아 어느것을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마침 나의 한 친구가 들려준 일신상의 짝막한 이야기는 나를 구원해주었다. 그가 도이쉴란드놈들을 어떻게 쳐부셨는가에 대해서는-비록 그가 금별을 달았고 가슴 절반이 훈장으로 가득차지만-이야기하지 않겠다. 짜라또브주 불가연안의 한 마을 꼴호즈원인 그는 소박하고 조용하며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단단하고 균형이 잡힌 체격과 그 보기 좋은 용모는 남달리 유별하였다. 그가 땅크포탑에서 내려오는것을 보면 틀림없는 전쟁의 신이었다. 그는 땅크에서 뛰어내리면 축축해진 고무머리에서 땅크모를 벗고는 어지러운 얼굴을 수건으로 훔치며 상쾌한 기분으로 의례 미소를 짓곤 했다.

죽음의 경지를 넘나드는 전쟁터에 나르면 사람이란 더 참되어지는 법이라 실속없는 온갖 허울은 해벌에 탄 불건전한 피부처럼 벗겨져버리고 사람에게는 알맹이만이 남는다. 하긴 그 알맹이가 혹자의것은 굳고, 또 혹자의것은 무르기도 하겠지만 그 알맹이에 힘이 있는 사람들도 저마다 훌륭하고 충실한 동무로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나의 친구 예고르 드료모브는 전쟁전에도 품행이 방정했고 어머니 마리아 빨리까르뽀브나와 아버지 예고르 예고로위치를 끔찍이 존경하고 사랑했다.

《우리 아버진 든직하신분이지요. 무엇보다도 조국을 사랑하는 그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지요. <얘야, 너는 세상의 많은걸 구경하고 또 이국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로씨야의 이름만은 자랑하거라> 이렇게요…》

그에게는 불가연안의 바로 그 마을 태생인 약혼녀가 있었다. 우리들은 약혼한 여자나 안해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곤했는데, 전선이 고요해진 추운 날, 토굴안에 등잔불이 가물거리고 난로가 활활 달아오를 때 저녁식사나 하고난 뒤면 특히 그러했다. 그 누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늘어놓을라치면 모두들 귀가 솔깃해서 듣는다. 일례로 이렇게도 시작된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어

느 누가 《사랑이란 존경에서 우리나오는거네.》 하고 말하면 또 다른 사람은 《천만에, 사랑이란 한개의 습관이네. 사람은 안해뿐만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사랑하거던…》 하고 말한다. 《췌, 실없는 소리 작작하게. 사랑, 그것은 온몸에 정열이 끓어넘쳐 술취한 사람처럼 되는 그것이지…》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말한다. 마침내 특무장이 끼여들어 권위있는 어조로 그 본질을 구명해줄 때까지는 이렇듯 시간 가는줄을 모르고 철학을 푸는것이다… 예고르 드료모브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멋적어서 그랬던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하여 나에게 그저 그 녀자는 얌전한 처녀이며 한번 기다리겠다고 약속한 이상은 자기가 한다리를 잃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줄것이라고 한마디 비쳤을뿐이다…

전투공적에 대해서도 그는 수다스레 늘어놓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회상하고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미간을 찌프리며 담배를 붙여문다. 그의 땅크가 세운 전투위훈에 대해서는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았는데 운전사 추일료브의 말은 특히 듣는 사람을 경탄케 하였다.

《…금방 산개하고 보느라니깐 산모퉁이에서 한놈이 기여나오겠지요… 그래 웨쳤지요… <중위동지 <범>(<범>이란 도이쉴란드땅크의 이름-역주) 발견!>, <앞으랴! -그의 명령입니다. - 전속력으로…> 그래 젓나무숲속을 요리조리 숨으며 내물았지요…현데 <범>은 포신을 돌려대더니 어렵치고 쏘더군요- 빗맞았지요… 그러자 중위동지가 그놈의 옆구리에 대고 한번 갈기니 박산났지요! 포탑에 대고 또 한방 안기니까 포가미가 곤두섰고… 세번만에는 그 <범>의 틈사구니마다에서 연기가 물씬 풍기며 불길에 솟았는데 아마 백메터는 올랐을거요…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비상륙크로 기여나올거 아니겠소… 그런걸 와니까 라프쎌이 기관총을 두루룩 휘두르니깐 모조리 나자빠져서는 네발을 버둥버둥하더란말요… 그리고나니 길은 깨끗이 청소된셈이지. 오분후에 우리는 마을로 돌입하였는데 정말 난 우스워 허리가 끊어질번하였소… 파시스트놈들이 산지사방으로 막달아들나는데… 글썄, 어떤놈은 미처 장화도 신지 못하고 양말바람으로 두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진창을 철썩거리며 도망을 치더란말이요! 모두들 창고로 뛰어드는 판이지, 그러자 중위동지가 나한테 명령을 내리두만요. <자, 어서 창고로>

그때 우리는 포신을 뒤로 돌려대고 땅크를 창고로 몰아 끌어들여놓았지요… 참 통쾌하게도, 글썽 땅크우에 창고의 대들보며 널판지며 벽돌들이 광광 떨어지는바람에 지붕밑에 기여올랐던 파시스트놈들도 떨어졌단말요… 그런걸 재차 다림질을 쭉 했지요-했더니 살아남은것들은 손을 번쩍 들고 히틀러는 망했다고 하잖겠소?!…》

불행을 당하기전까지 예고르 드료모브중위는 이렇게 싸웠다. 도이칠란드군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퇴각한 꾸르스크 대전투시에 그의 땅크는 밀밭 등성이에서 적 포탄에 명중되어 승무원중 두명이 즉사하였고 두번째 포탄에는 땅크가 불탔다. 앞승강구로 뛰어내린 운전사 추월로브가 땅크로 다시 기여올라 중위를 꺼내어오기는 했으나 중위는 의식을 잃었고 그의 전투복은 불에 타고 있었다. 추월로브가 중위를 끌어내자 곧 땅크는 폭발하였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세웠던지 포탑이 50메터나 날아가 떨어졌다. 추월로브는 중위의 얼굴과 머리와 옷에 흙부스러기를 막 쥐어뿌려 불을 껐다. 그리고는 기여가다가 포탄구멍이들에서 숨을 돌리군하며 위생소로 데리고왔다. …《내가 어찌서 그를 끌고왔는가구요?》하고 추월로브는 말했다. 《가만 들으니 심장이 아직 뛰고있거든요…》

예고르 드료모브의 부상은 나았다. 군데군데 뼈가 보일만치 얼굴에 화상을 입기는 하였지만 시력도 그대로 보존되었다. 그는 8개월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정형수술을 거듭한 결과 코도, 입술도, 눈꺼풀도, 귀도 모두 제대로 되었다. 8개월후 봉대를 푼 그는 자기의(이제는 자기의것이 아닌)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에게 거울을 빌려준 간호원은 얼굴을 돌리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인차 거울을 돌려주며 말했다…

《이보다 못할수도 있는데 이만하면 살수 있어.》

그러나 더는 간호원에게서 거울을 빌리는 일이 없었고 인제는 익숙해진듯 자주 얼굴을 쓰다듬어 보곤하였을뿐이었다. 군의심사위원회는 그에게 예비역복무가능자로 감정을 내렸다. 그러자 그는 장군을 찾아가서 말했다. 《런대에 돌아가도록 허락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은 불구자가 아니요.》 하고 장군은 말했다. 《그러잖습니까. 그저 얼굴이 불팔사나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투에 방해되지는 않을겁니다. 전투능력을 완전히 회복하겠습니까.》

(이야기하는동안 장군이 일부러 자기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것을 감촉한 예고르 드료모브는

틈사리처럼 일직선으로 패인 분홍빛 입술로 빙긋이 웃었을뿐이었다.) 그는 완전회복을 위해 20일간의 휴가를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떠났다. 그것은 바로 금년 3월이었다.

역에서 그는 마차를 타려고 생각하였지만 18웨르쓰파나 되는 길을 걸어서 갈수밖에 없었다. 주위에는 아직 눈이 깔려있었고, 날씨는 흐릿한데 인적마저 없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외투자락을 훑날리고 쓸쓸한 우수의 정을 자아내면서 귀전을 울렸다. 그가 마을에 당도한것은 이미 땅거미진 때였다. 저기 우물이 보였다. 키높은 용드레가 빼거덕거리며 흔들리고있었다. 여기서 여섯번째가 부모들이 계시는 길이다. 그는 별안간 걸음을 멈추고 호주머니에 두손을 꼭 쥐었다. 그는 고개를 흔들고 집을 엿비슷이 에돌아갔다. 무릎까지 눈에 폭 빠진채 창문가에 구부정하니 선 그는 심지를 낮춘 희미한 남포불밑에서 식탁에 저녁을 차리는 어머니를 봤다. 여전히 그 검정 머리수건을 쓴, 조용하고 침착하며 자애로운 어머니였다. 펍 늙으셨다. 훌쭉해진 두어깨가 앙상하다. <아, 그럴줄 알았더라면 하다못해 두서너마디씩이라도매일 편질 써왔을것을! …> 식탁을 간단하게-유유그릇 하나와 흘레브 한덩이, 숟가락 둘 그리고 소금접시-차려놓은 어머니는 파리한 두손을 가슴에 포개여있고 식탁앞에 선채 생각에 잠기는것이였다… 예고르 드료모브는 창문으로 어머니를 들여다보며 그를 놀래울수는 없다는것, 늙으신 어머니의 얼굴이 절망에 차서 경련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좋도록 하자. 그는 쪽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두드렸다. 어머니는 문안에서 응답했다. 《누구슈?》 그는 대답했다. 《쑤련영웅 그로모브중위입니다.》

가슴이 하도 벅차게 방망이질을 하여 그는 그만 옷문끝에 어깨를 짚 기대고말았다. 그도 자기가 그 여러차례의 수술을 받은 이후, 목이 쉬고 웅글고 흐려진 제 목소리를 생전 처음 듣는듯하였다.

《에그, 무슨 일루 오셨수?》 어머니는 물었다.

《마리야 뽀리까르뽀브나에게 자제분인 드료모브중위의 안부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문을 열고 그에게로 달려와 손을 그러쥐었다.

《그래 나의 예고르가 살아있단말이우? 몸도 성하구요? 여보시우, 아니, 어서 들어가거나 합시다.》

예고르 드료모브는 자기 발이 아직 방바닥까지 미치지 못했을 때 어머니가 교수머리를 쓰다듬으

면서 《애야, 어서 먹어라.》 하고 말씀하시던 그 시절에 앉근하던 식탁앞 장의자 바로 그 자리에 앉았다. 그는 이 집 아들, 자기자신에 대하여 자세히, 그가 음식은 어떻게 하고있으며 부족한것은 아무것도 없고 언제나 명랑하며 건강하다는것을 말하고 간단히 그가 땅크를 타고 참가했던 전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 전쟁판에선 무섭겠구먼?》 하고 어머니는 까만 눈의 흐리터분한 눈초리로 그의 얼굴을 주시하면서 말을 가로챘다.

《그러문요. 물론 무섭지요, 어머니, 하지만 습관이 되었으니깐요.》

아버지 예고르 예고로위치가 돌아왔다. 역시 이 몇해동안에 수척해졌고 수염은 서리를 맞은듯 허옇게 되었다. 손님을 바라보며 쭈그러진 왈렌끼를 신은 발을 문턱에서 탕탕 털고는 목도리를 천천히 풀고 반슈바를 벗은 다음 식탁에 다가와 손을 잡고 인사하였다-아, 그것은 그렇듯 낮익고 친근한 부친의 든직한 손길이었다! 혼장단 손님이 왜 여기에 와있는지, 그것은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가는 일이라 그도 아무 말없이 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앉아 듣기 시작했다.

드로모브중위는 몰라보게 변한 자기가, 자기와 자기 아닌 자기에 대해 오래 이야기하면 할수록 불쑥 일어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이 불구자가 저인줄을 정말 몰라보십니까!...》 하고 고백을 하기가 점점 난처하게 되어갔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와 한상에 마주앉은것이 반갑기도 애타기도 하였다.

《자, 그럼 저녁들을 하지, 여보, 뭇쫘 가져오구려, 손님을 위해서.》 예고르 예고로위치는 낡은 찬장문을 열었다. - 성냥곽안에 넣은 낚시바늘이 왼쪽구석에 놓여있었고(그것은 지금도 여전하다) 주둥이 떨어진 주전자를 넣어둔(그것도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그안에서는 빵부스럭냄새와 파겹질 냄새가 풍겨왔다. 예고르 예고로위치는 술병을 꺼내들고- 기껏해야 두어잔밖에 더 안됨을 보자더는 구할데도 없어 한숨을 지었다. 그전 시절처럼 저녁식탁에들 앉았다. 저녁식사를 할 때에야 비로소 드로모브중위는 어머니가 자기의 숟가락 전 손을 각별히 주의해 살피고있음을 느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눈길을 처든, 어머니의 얼굴은 병적으로 바르르 떨렸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금년 봄은 절기가 어떨것이며, 능히 파종을 보장할수 있을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여름안으로 전쟁은 반드시 끝나리란데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였다.

《예고르 예고로위치, 당신은 올해 여름안으로

전쟁이 끝나리란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사람들이 격할대로 격했소.》 하고 예고르 예고로위치는 대답했다. 《죽음을 넘은 사람들을 인제는 당해낼놈이 없을거요. - 하니 도이첼란드군이야 이젠 끝장두 났지요.》

마리야 뿔리카르보브나가 물었다.

《저 알수 없을가요. 그 애가 언제쯤 휴가를 얻어 집으로 오겠는지? 3년이나 그 앨 못봤는데! 아마 어른이 돼서 제법 수염도 자랐을걸요... 참, 매일같이 사경을 넘나든다니 목소리도 퍼그나 특해졌겠지?》

《그러문요, 아드님이 오셔도 아마 알아보지 못하실겁니다.》 하고 중위는 대답하였다.

그는 한개 한개의 벽돌장들이며, 통나무벽의 틈사리 하나하나와 천장의 나무들 하나하나를 죄기억하고있는 빼치까에서 자게 되었다. 결사전의 순간에도 그렇듯 잊혀지지 않던 생가의 오뎅향기-양모피 냄새와 홀레브 냄새가 풍겼다. 3월의 세찬바람이 지붕꼭대기에서 웅웅거렸다. 열방에서는 아버지가 코를 나직이 골았다. 어머니는 몸을 뒤채며 한숨을 쉬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중위는 두손에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 생각했다. <정녕 그렇게도 못알아보셨어요?... 정말 못알아보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는 새벽에 장작튀는 소리에 잠을 깼다. 어머니가 빼치까앞에서 조심스레 서두르고있었다. 길게 건네맨 줄에는 깨끗하게 뺀 그의 발싸개가 걸려있었고 문가에는 말끔히 닦은 장화가 놓여있었다.

《밀지짐을 자시우?》 어머니가 물었다.

그는 한참만에 대답을 하고 빼치까에서 내려와 군복상의를 입은 다음 혁띠를 죄어매고 맨발로 장의자에 걸터앉았다.

《저, 이 마을에 까짜 말리쉐바라고, 안드레이 쓰쨌빠노위치 말리쉐브의 따님이 계시는지요?》

《지난해에 강습을 마치고 우리 마을에서 교원노릇을 한답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시려우?》

《당신의 아드님이 그 녀자에게 꼭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웃 계집애를 시켜 그를 데리러 보냈다. 까짜 말리쉐바는 중위가 신도 채 신기전에 달려왔다. 그의 부리부리한 회색눈은 빛났고 두눈썹은 놀란듯이 우로 치켜져있었으나 두뺨에는 기쁨의 홍조가 어려있었다. 처녀가 머리에 쓴 털수건을 너부죽한 어깨우로 밀어젖혔을 때 중위는 <이 따뜻한 금발머리에 입을 맞췄으면!...> 하고 가슴속으로 신음소리를 내었다. 까짜는 어찌나 생신하고, 부드러우며 또 명랑하고 마음씨 고운

아름다운 처녀로 그의 눈에 확 안겨왔던지 그가 들어오자 온 방안이 환해지는것만 같았다...

《예고르의 안부를 전해오신분이세요? (해빛을 등지고 서있는 중위는 머리만 끄덕하였다. 말은 할수 없었기에) 저는 그이를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고있어요. 그이에게도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리고는 그의 곁으로 가까이 갔다. 그를 힐끔 쳐다본 까짜는 가볍게 가슴을 얻어맞은 사람처럼 흠칠하고 놀랐다. 이때 중위는 그날안으로 떠나 버릴것을 굳게 결심하였다.

어머니는 더운 우유를 넣고 밀지짐을 지저놓았다. 그는 다시금 드료모브중위에 대하여, 이번에는 그의 군공을 두고 이야기를 하였다. 자기의 보기좋은 얼굴로 하여 까짜의 귀여운 얼굴이 이그러짐을 보지 않으려고 까짜에겐 눈길도 돌리지 않고 무뚝뚝하게 이야기를 하였다. 예고르 예고로위치가 팔호즈의 말을 얻어주마고 하였으나 그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정거장까지 걸어서 떠났다. 그는 이 모든 일들로 하여 심히 의기소침하였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두손으로 제 얼굴을 두드리며 《아, 이제 어떡한단?》 하고 몇번이고 목메인 소리로 되뇌었다.

그는 대렬을 보충하기 위하여 깊은 후방에 와 있던 자기 편대로 돌아왔다. 전우들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어 그로 하여금 침식을 잃고 호호도 못하게 하던 그 모든것을 말끔히 잊어버리게 하였다. 그는 이렇게 결심했다. <어머니에겐 나의 불행을 하루라도 늦게 알게 하자. 까짜에 대해서는 그 가시를 가슴에서 뽑아던 지고말지.>

두어주일을 지나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다.

《나의 귀한 아들이야, 잘 있니! 너에게 편지를 하 기조차 겁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한테 너의 편대에서 사람이 하나 왔다갔다. 얼굴은 좋았으나 사람은 무척 홀륭하더라. 얼마간 묵고 가겠다더니 별안간 떠나버렸다. 그때부터 야야, 밤마다 잠을 이룰수 없구나. 나는 꼭 네가 왔다간것만 같다. 아버지는 날 꾸짖누나. <여보, 로친네, 당신은 정신이 나갔구려, 그가 우리 애였더면야-어째서 말을 아니 했겠소?... 그 애가 감출 리유가 어디있소? 만약에 그게 확실히 그 애였다고 해도 우리한테 왔다 간 그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는 오히려 자랑을 해알게 아니겠소.> 하며 아버지는 나를 설복시키려고 하지만 어미의 마음은 그저 우리 애였다, 우리 애가 왔다갔다!... 하는 생각뿐이다. 그 사람이 빼치까에서 잘 때 나는 그의 외투를 털어주려고 뜰로 가지고 나갔다가 그속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우리 애다. 그 애의 외투다!...하고. 예고루슈카야, 제발 편지를 써보내다우, 무슨 영문인지 나를 깨

우쳐주렴. 혹 내가 정신이 나갔다는게 정말이냐?...》

예고르 드료모브는 이 편지를 나(이완 쭈다레브)에게 보여주고 그 사연을 자초지종 이야기하면서 팔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거참, 무슨 성격들이 그렇담! 자넨 바볼세, 바보야. 어머니한테 어서 편지를 쓰라구, 용서를 빌게, 공연히 어머니를 상심케 하지 말고... 자네의 그 모습은 어머니에게 아주 귀중하네! 그러한 자네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걸세...》

그날로 그는 편지를 썼다. 《나의 존경하는 어머니 마리아 뽀리까르뽀브나와 아버지 예고르 예고로위치, 저의 무지한 행동을 용서하여주십시오. 실로 당신의 아들-제가 다녀왔습니다...》하는 등등 깨알같은 글씨로 낙장을 꼭꼭 박아썼다. 그는 스무장을 쓰래도 쓸수 있었을것이다.

며칠을 지나 우리들이 사격련습장에 나가있는데 전사 하나가 달려오더니 예고로 드료모브에게 보고를 했다.

《대위동지, 당신에게 면회왔습니다...》 비록 병사는 규정대로 단정히 서있었으나 그의 표정은 마치 술을 앞에 놓은 사람과 같았다. 우리는 마을에 당도하여 드료모브와 우리들이 함께 들어있는 농가로 향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였고 헛기침을 자주하였다... 나는 <팡크병은 팡크병이지만 역시 마음은 설레는 모양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나보다 앞서서 농가에 들어갔다. 나는 들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집니다!...》 보니-조그만 로파가 그의 가슴에 파묻혀있었다. 뒤를 돌아다보았다.- 거기에는 다른 녀인이 또 있지 않는가. 솔직한말로세상에 미인이 그이 하나뿐은 아니고 그 어텐가 또 있으면만 나는 그런 미인은 처음 보았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이 처녀에게로 다가갔다. 나는 이미 장사의 체구를 가진 그는 전쟁의 신이었다는것을 이야기한바 있다. 《까짜》하고 그는 말했다. 《까짜, 당신은 왜 왔소? 당신이 기다리겠다고 한것은 그전의 나였지 지금의 나는 아니지 않소...》

아름다운 까짜는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바깥방에 들어갔으나 그래도 들을수 있었다.) 《예고르, 나는 당신과 일생을 같이 하기로 한 몸이에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어요, 지극히 사랑하겠어요... 저를 제발 되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바로 이것이 로씨야성격이란것이다! 이렇듯 사람이 소박해보이지만 준엄한 불행이 닥쳐올 때면 그에게서는 위대한 힘-인간미가 나타나는것이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

최근 문예출판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 중의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을 세상에 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전통과 투쟁경험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는 귀중한 재부입니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1932년 늦가을부터 1934년 봄까지의 력사적사실을 반영하고있다.

김창억은 어느날 유격근거지가 생기고 조선사람들끼리 정사를 다스리는 좋은 세상이 온데다 이제 곧 유격대에 입대하게 되리라는 기쁨과 환희를 안고 현장서기 권일균의 말에 편자를 신겨가지고 마촌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이슬처럼 사라지고만다.

그것은 종파분자들인 권일균과 송해일에 의해 조흔했다는 단 하나의 리유로 유격대입대가 부결된것이다.

남편의 입대부결이 자기때문이라는것을 알게된 그의 안해 윤보금은 마촌에서 자기가 사라지면 남편의 앞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안고 온성 친정집으로 돌아가버린다.

한편 마종삼농민은 토지가 《공동경작》으로 넘어가고 쏘베트가 빼기발까지 조사하러 들자 반감을 안고 근거지를 떠나버리며 아버지를 설복하려고 뒤쫓아갔던 그의 아들 마동호는 도주자로 인정되어 혁명감옥에 갇히게 된다.

들쭉한 생활이 굶이치던 마촌의 유격근거지에는 뒤숭숭한 공기가 떠돌고 사람들의 가슴에도 불안이 깃든다.

이무렵 부대를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요영구를 거쳐 마촌에 도착하신다.

마촌에 사령부를 정하신 장군님께서 쏘베트로선의 후과를 깊이 통찰하시고 유격대 지휘관들을 각 유격근거지로 파견하시어 실정을 깊이 료해하도록 하신다. 그러시고 자신께서는 쌍암촌에 나가보시고 마촌에서 제일 년로하신 김창억의 아버지 김진세집에 들리시여 허물없이 새끼도 같이 꼬시면서 좌경분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그의 머리가 탈가하게 된 사정을 깊이 헤아려주신다.

그이께서는 각지방에 파견되었던 일군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신데 기초하시여 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여 쏘베트좌경로선의 부당성을 분석비판하시고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신다.

어느덧 사람들의 입에서는 쏘베트라는 말이 점차 사라지고 잘못되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바로 잡혀나간다.

장군님의 배려에 의하여 김창억이와 마동호는 유격대에 입대하게 되며 김진세로인은 토지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된다.

장군님께서 유격근거지에서 쏘베트정권을 인민혁명정부로 개편하도록 하시는 한편 반유격구를 툰튼히 꾸릴 구상을 안으시고 부대를 이끄시고 왕재산에 진출하시여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신다. 그이께서는 온성지구를 반유격구로 툰튼히 꾸릴데 대해서와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더욱 확대할 방침을 천명하신다.

장군님께서 이어 경원군류다섬에 들리시여 왕재산에서 제시하신 방침을 관철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곳 지하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신 후 인민들의 지성어린 국수를 대접받으신다.

조국원정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마촌에 돌아오신 장군님께서 봄발같이전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시고 황갈촌, 동림촌, 심리평 등지에 나가시여 토지개혁준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다.

근거지를 떠났던 사람들과 땅이 없어 고생하던 타지방인민들이 토지개혁소식을 듣고 근거지로 찾아들어온다.

근거지를 떠나 갓은 고생을 다하던 마종삼농민도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마촌으로 돌아온다.

장군님께서 이미 분여안을 다 짜놓았지만 그것을 다시 허물고 지난날 쏘베트광신자들때문에 고생한 그에게 1등전을 분여하도록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신다.

그이께서는 토지개혁날에 김진세로인이 분여받은 밭에 들리시여 친히 보랍을 잡으시고 밭갈이를 하신다.

이때 여기로 국제당파전원 류현민이 찾아온다.

그이께서는 류현민이 제기하는 파시즘의 대두와 관련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전략전술적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가 근거지실태를 깊이 료해할수 있도록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주신

다.

이무렵 시집을 떠났던 윤보금이 장군님의 배려로 다시 마촌에 돌아온다.

류현민은 한달동안 근거지를 돌아보고 나서 국제당원동국에 가서 할 보고문초안을 작성한다.

그는 보고문결론에 이렇게 쓴다.

《지금 내 가슴은 **김일성** 동지에 대한 흠모심에 가득 차있다.

.....

그는 조선의 피어린 력사와 인민대중이 낸 유일무이한 결출한 령도자이다.

동지들, 놀라지 말라!

만민이 흠모하며 따르는 **김일성** 동지는 올해 22살의 청년장군이다.

청년장군!

청춘처럼, 봄처럼 아름답고, 순결하고, 생동하고 강의한 령도자!

그의 모습과 이 봄은 하나의 조화로 어울려져 나로 하여금 심각한 시정에 자꾸 잠겨들게 한다. 나에게는 근거지의 이 봄이 자연의 봄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새 기운을 활짝 꽃피운 혁명의 화창한 봄으로 느껴진다.》

구정부사무실에서 우연히 이 보고문초안을 읽어보고 자기네 쏘베트로선이 더는 국제당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는것을 알게 된 권일균은 훈춘현당 박두철에게 알려 모두 자중하게 한다.

장군님의 바래움을 받으며 훈춘현당에 들린 류현민은 장군님의 로선을 지지하여 박두철과 불같은 론쟁을 벌린다. 이 론쟁끝에 자기의 무지가 대중들에게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자 박두철은 류현민을 사살하고 왜놈들에게로 도망쳐버린다.

이 소식을 들은 권일균은 자기의 정체도 드러나리라는것으로 하여 근거지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그는 쌍암촌전투에서 장대설중대장에 의하여 처단된다.

국제당파전원이 피살되었다는 소식에 접하신 독자편지

충성심을 심어주는 시

하루계획을 넘쳐해낸 기쁨을 안고 집에 들어서니 나를 기다린듯 《조선문학》 6호가 책상우에 놓여있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는 내가 이 잡지를 무척 좋아한다는것을 알고 언제나 첫눈에 띄울수 있게 책상우에 놓아주군한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매우 통분해하시며 조선풍습대로 그의 장례를 지내도록 하신다.

장군님께서서는 인민혁명정부로선이 관철되고 제반민주주의적개혁의 승리를 경축하는 성대한 체육대회를 마련하도록 하신다.

이때 구국군부대에 들어가 공작을 하던 리학산이 반변모의에 걸려들어 그들에 의하여 살해된다.

장군님께서서는 구국군과의 통일전선을 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대오를 이끄시고 오의성사령과 만나시여 담판에 성공하시며 동녕현성전투를 단행하신다.

당황망조한 적들은 이해 겨울 근거지에 대한 총공세로 이행한다.

장군님께서서는 전인민적방위체계를 더욱 튼튼히 꾸리시는 한편 근거지방위전에 전체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신다.

이때 온성지구에 나가있던 최진동은 근거지방위전에 필요한 원호물자를 운반하던 도중 희생된다.

근거지방위전에서는 김창억, 마동호, 김진세, 마종삼을 비롯한 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이 영웅적위훈을 세운다.

그러나 날이 흐를수록 적들의 공격은 더욱 집요해져 근거지를 지탱하기 어려워진다.

장군님께서서는 적의 후방이 비어있으리라는것을 타산하시고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적의 포위진을 뚫고 나가시여 랑수천자를 들이치시고 왕청시가를 해방하신다.

그 이듬해 봄, 장군님께서서는 승리한 유격근거지에서 농민들과 같이 씨를 뿌리신다.

독자들은 이 소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어떻게 적들의 봉쇄속에서 근거지를 지켜내고 영원한 봄이 마련되게 되었으며 우리 조국의 영원한 봄이 꽃피여났는가를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모든 문화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

나는 잡지를 들고 얼른 차레부터 훑어보았습니다.

이미 《만수대》, 《다시 오리》, 《해방의 말》(시조) 등의 주옥같은 시로써 독자들과 펍 친숙해진 시인 김철의 시 《인민의 한마음》은 또다시 저

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

깊이 든 잠 깨지를 말라고
차를 동구밖에 세워두신채
집집의 트랙을
조용히 살펴보고 가시지나 않으셨는지

알고 받는 사랑보다
모르고 입은 은혜 더 많은 나날이여
오늘은 또 어디선가 우리 수령님
내 알지 못하는
아름찬 행복을 마련하고계시리

.....

아, 이 땅을 더욱혀오신
위대한 수령님 열화같은 체온은
5천년 덧쌓였던 장설을 다 녹이시고
온갖 꽃망을 더치는 봄을 키우셨는데...

오늘도 수령님
가물타는 발고랑의 흙을 쥐신채
10리... 20리... 샘물줄기 찾으시여
험한 길 가시지 않으시는지
.....

시를 읊어가는 나의 마음은 한없이 뜨거웠습니
다.

정말 어버이수령님께 깊고깊은 한밤 내가 행복
의 요람에서 깰가 녀려되시여 저 멀리 동구밖에
차를 세우시고 우리 집을 조용히 살펴보고서 떠
나신것이나 아니신지...

밤이 가고 새날이 밝을 때면 시의 구절구절이
삼삼히 떠오르면서 정갈한 트랙 그 어디에 어버
이수령님의 거룩하신 발자취가 어려있는것만 같
았습니다.

하루계획이나 넘쳐하면 그만이라고 웃고 떠들
며 유원지로, 극장으로 밀려다니는 그 시간에도
나의 행복의 웃음소리를 더 크게 하시려고 진논
까비 내리는 발전소건설장도 찾으시고 가물타는
발고랑의 흙을 아프신 마음으로 쥐어보시며 샘줄
기를 찾아주시기 위하여 쉬임없이 현지도의 길
을 이으시는 어버이수령님!

우리는 행복이 웅당한것처럼 느껴지던 나의 가슴
속에 충성의 불덩이를 안겨준 서정시의 마감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노래하고있습니다.

.....

나의 삶, 나의 운명이시며

나의 세계 나의 온 우주이신

우리의 어버이

김일성원수님

그 품에 안기여
세월의 한끝까지 따르리
수령님
아, 우리 수령님,

시는 이렇게 끝났으나 가슴속엔 동해의 푸른
물결처럼 세찬 충격이 파도쳤습니다. 나의 삶, 나
의 운명!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나의 삶의
전부이시며 나의 운명의 천만줄을 잡으신 은혜로
운 태양이십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에서만 우주의 모래알같은
내 존재도 자주적이며 존엄있는 주체의 새 인간
으로 빛나고 위대한 수령님을 세월의 한끝까지
우리러 따르는 그 길에 나의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 《인민의 한마음》은 바로 한평생 로고와 심
혈을 다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크나큰 기
쁨과 만족을 드려 세월의 한끝까지 따르며 모시
려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마음을 그대로 엮어놓
았습니다.

이 시는 바이트에 만부하의 불꽃을 세차게 날
리며 쇠를 깎는 나의 마음속에 식을줄 모르는 불
덩이가 되어 끊임없는 혁신과 기적으로 하늘같은
수령님 은덕에 보답하라고 채찍질해주고있는상
입니다.

서정시 《인민의 한마음》은 결코 짧은 시가 아
닙니다. 그러나 길어도 긴것 같지 않고 아직 그
몇페이지 더 써여져도 그대로 외우고 또 외우고싶
은 시, 철학적깊이가 있는 시가 바로 《인민의 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또 읽으며 변함
없는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올해계획을 앞당겨
끝낸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춤없이 제2차7개년계획
수행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생활의 교과서, 참된 길동무
로서의 서정시들을 더많이 실어주십시오. 그것이
쇠를 깎는 선반공이 두번다시 하고싶은 부탁입니
다.

김창운동무가 일하는 공장 선반공 황영

생활의 교훈과 신념을 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또다시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거든 리승만매국<정권>과
그 군대를 라도분쇄하기 위한 구국투쟁에 다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장편소설 《금천강》(김영근작)을 읽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방송연설을 높이 받들고 조국강토에 기여든 철천지원췌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英勇하게 싸운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가슴뜨거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농민의 세기적숙망인 토지개혁을 실시하여주시므로써 대대로 내려오던 착취와 억압이 종식되고 제땅에 마음껏 씨앗을 뿌리며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안겨옵니다.

우리는 소설의 주인공 강명철과 그의 아버지인 강태봉로인 그리고 그의 누이인 이쁜이의 형상을 통하여 천대받고 억압당하던 조선인민이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참말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는것을 생활화폭적으로 생동하게 봅니다. 또한 자나깨나 아버지수령님의 그 은덕에 보답하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읽게 됩니다.

진정 그 사랑, 그 은정이 있음으로 하여 준엄한 시련의 적후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받들어 세포위원장이나 강태봉로인과 같은 수많은 이 나라 아들딸들이 서슴없이 한목숨 바친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소설은 아버지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조선인민의 앞길엔 그 어떤 원췌도 막아서지 못한다는것을 심오한 사상예술적경지에서 밝혀내고있습니다.

또한 주인공 강명철이와 그의 사랑하는 애인 금선이와 련대장 차종린의 형상을 통해서 소설은 아무리 계급적원췌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투쟁정신이 강하다 해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지도를 받아야만 세련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는것을 심오한 철학적깊이에서 해명해주고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명철이가 지하공작임무를 받고 적후로 들어갔다가 《치안대》에 끌려가 보초를 서는 진도수나 《38선집》 송경삼이가 적들을 도와주는것을 보고 계급적원췌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군당위원장 한형민에게 진도수나 송경삼이따위부터 처없애버리자고 나서며 지어 때부인 윤재필이가 경찰이 되었다는 원췌들의 잔피를 높은 계급적안목을 가지고 간파해보지 못하므로 누이 이뿐이까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서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당일군인 한형민은 우리의 철천지원췌가 누구인가?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이웃하고 살던 진도수나 송경삼이 같은 사람들까지 그런 너절한 길로 이끌어간것은 다름아닌 미국놈과 지주, 자본가놈들이라고 타일러주면서 우리가 겨누어야 할 첫과녁은 미국놈이라는것을 똑바로 인식시켜주는것입니다.

그래도 명철이는 진도수나 송경삼을 처없애야 한다고 우겨댑니다.

그러나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속에서 단련육성된 련대장 차종린에게서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의 사령부와 유격근거지를 지켜섰던 이야기며 위대한 수령님의 반일통일전선로선을 받들고 각계각층 군중들과 적기관에 있는 반일감정을 가진 사람들까지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운 이야기 등을 듣고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느끼게 되며 군당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절실히 뉘우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설에서 그 어떤 개인적 욕망이나 지향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수령님께 충직한 혁명가로 되는것이 아니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실천투쟁과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될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심장깊이 새겨안게 됩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을 따라 전진하는 보람찬 한길에서 그 누구나 다 생활의 교훈으로 명심하고 투쟁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것입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행하며 아버지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킬 무거운 임무가 나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장편소설 《금천강》을 읽으면서 다시한번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며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을 따라 변함없이 충성의 한길로 가리라는 결의를 굳게굳게 다집니다.

그 길이 작품에서 금천마을 인민들에게 돌려주신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 라고 생각합니다.

동평양경량부재공장 로동자 한봉수